



## **제2장 신산업과 전통산업이 조화된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제1절 미래형 3차원 첨단 신산업 육성

제2절 신성장 녹색친환경 고부가가치 농림축산업

제3절 글로벌시대 국제교류 및 통상역량 강화



## 제2장 신산업과 전통산업이 조화된 미래형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

### 제1절 미래형 3차원 첨단 신산업 육성

#### 1. 현황 및 문제점

##### □ 충청북도 경제 현황

- 충청북도의 경제지표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음

<표 3-1> 충청북도 경제지표 총괄

년도	구분		충북(전국비중)	전국
2009년 기준 (잠정)	국민 계정	GRDP	31조 6,826억 원(3.0%)	1,066조 837억 원
		1인당 GRDP	21,398천 원(전국 7위)	21,870천 원
		인구(장래인구추계)	148만 명(3.0%)	4,875만 명
	산업 구조	GRDP (%)	농림어업	5.3%
			광업, 제조업	38.1%
			서비스업 및 기타	56.6%
2010년 기준	취업	종사자 수(%)	농림어업	10.1%
			광업, 제조업	21.5%
			서비스업 및 기타	68.4%
	고용	실업률	2.2%	3.7%
		소비자 물가상승률(%)	3.0%	2.9%
		어음부도율(%)	0.43%	0.15%
		재정자립도(%)	33.7%	52.2%
	물가 금융 재정	수출액(US 백만달러)	10,330(2.2%)	466,384
		수입액(US 백만달러)	6,120(1.4%)	425,212

자료 : 통계청([www.kosis.kr](http://www.kosis.kr)), 『충북통계연보』, 2010.

##### ○ 산업구조

- 충북의 산업구조는 3차(서비스업)산업(56.6%), 2차(제조업)산업(38.1%), 1차(농림수산  
업)산업(5.3%)의 순으로 충북은 1, 2차 산업의 비중이 낮은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3차 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이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3-4> 산업단지 현황**

구분	개소	총면적(천 m <sup>2</sup> )	입주업체수(개소)	종업원수(인)
합 계	56	17,603	1,067	56,917
국가단지	1	2,199	57	-
지방단지	15	10,924	614	41,555
농공단지	40	4,480	396	15,416
청주시	1	3,019	267	22,513
충주시	7(4)	1,559(524)	113(49)	3,131(1,422)
제천시	6(5)	1,253(522)	103(56)	2,000(1,058)
청원군	7(3)	6,625(354)	214(5)	14,702(591)
보은군	3(3)	399(399)	55(55)	809(809)
옥천군	5(5)	692(692)	74(74)	2,232(2,232)
영동군	3(3)	392(392)	17(17)	1,060(1,060)
진천군	8(7)	935(755)	50(49)	4,737(4,686)
괴산군	2(2)	138(138)	18(18)	874(874)
음성군	8(3)	1,692(322)	117(40)	3,357(1,319)
단양군	3(3)	222(222)	24(24)	445(445)
증평군	3(2)	676(169)	25(7)	1,111(920)

주 : ( )는 농공단지분임.

자료 : 충청북도, 『충북 통계연보』, 2010.

## □ 신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 방안 미흡

- WTO와 FTA에 의한 글로벌 경쟁체제 확립
  - 전세계가 단일 질서가 지배하는 단일 시장으로 변모(Global is one market, one rule)
- 정보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신체계패러다임으로의 변화
  - 신경제체제가 기존의 경제체제와 달리 가상공간과 결합하여 융합형의 새로운 경제 시장을 형성할 전망 : Long tail economics, Webnomics, Web 3.0
- 글로벌 기업에 의한 세계시장의 과점체제 대두
  -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전세계시장을 장악하는 현상이 대두. 이 시장에서의 승리는 글로벌 승자가 될 수 있으나 패배자는 자국시장까지 빼앗김

⇒ 이러한 현상에 의해 경쟁구도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지방의 정부 및 기업체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응방안 수립이 추상적이며 소극적인 실정

## 2. 여건변화와 전망

### □ 세계 경제의 주요한 흐름 : 융합과 녹색성장

- 세계경제의 중심축은 기존 IT 중심에서 BT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각종 융합산업군을 중심으로 각종 신수종산업의 발굴·육성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음
- 이른바 “Oil Peak”으로 지칭되는 화석자원의 고갈과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치열함
- 특히, 우리나라는 탄소배출규제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현재 탄소배출감축의무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
  - Oil Peak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채굴되고 있는 석유의 매장량이 정점을 지나 저감한다는 논리로 유가 폭등의 전조로 전망하나, 최근까지 새로운 유정의 개발 및 시추기술의 진화 (sand oil 등)로 oil peak은 당초 예상보다 미루어지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IT을 기반으로 ‘BIGH-T’로 지칭되는 융복합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녹색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들 가운데 향후 시장 전망이 매우 우수하며, 비교적 단기간 내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칭하고 이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음

〈표 3-5〉 국가신성장동력산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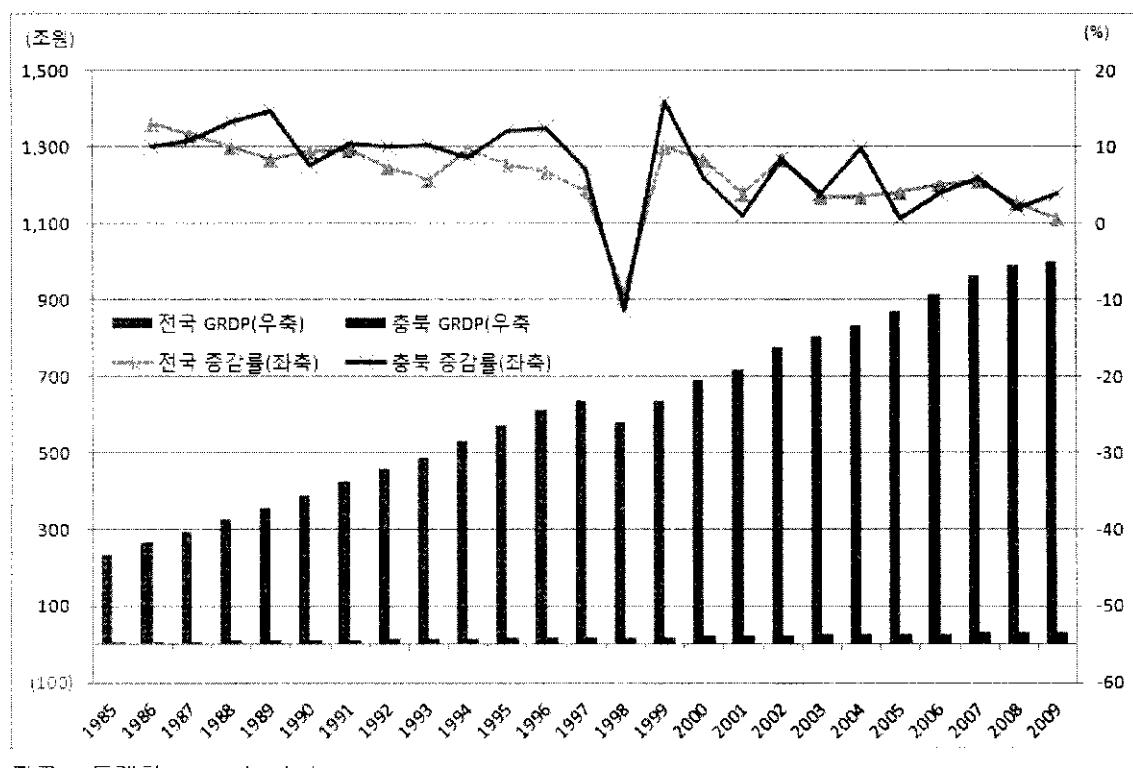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6)	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저감 에너지 ③고도 물처리 ④LED 응용 ⑤그린수송시스템 ⑥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6)	⑦방송통신융합산업 ⑧IT융합시스템 ⑨로봇 응용 ⑩신소재·나노 융합 ⑪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⑫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5)	⑬글로벌 헬스케어 ⑭글로벌 교육서비스 ⑮녹색 금융 ⑯콘텐츠·소프트웨어 ⑰MICE·관광

자료 :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금융위원회  
『신성장동력 추진계획』, 2009.

- 이에 따라 충북에서도 민선 5기 들어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을 도정기조로 설정하고 기존의 반도체 중심의 IT산업을 기반으로 바이오산업과 태양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 충북의 경제성장을 탐보상태

- 전국 대비 충북의 GRDP 비중은 1989년 2.8%에서 1999년 3.2%까지 증가했으나, 2009년 3.0%로 탑보상태임
- 전국 증감률과 비교시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기복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특정 대기업(하이닉스, LG전자, LG화학 등)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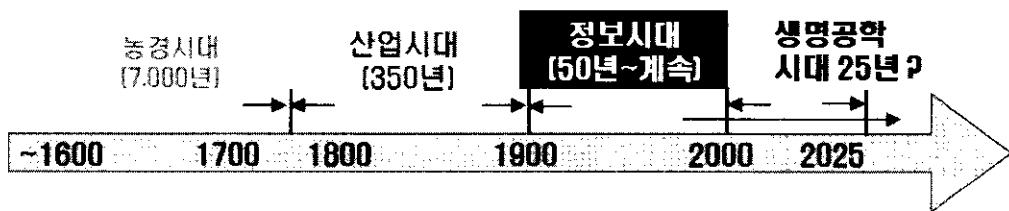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www.kosis.kr](http://www.kosis.kr)

<그림 3-7> 전국과 충북 GRDP 및 GRDP 증감률 비교 : 1985-2009

## □ IT와 BT를 주축으로 첨단산업의 융합화 동향 가속화

- 제2차 IT혁명기 : 기존 IT기반인 유선(Wireline)에서 무선(Wireless)과 융합된 유비쿼터스(ubiquitous) 정보화 환경으로 진화
  - 유비쿼터스(Ubiquitous) : 라틴어 'ubique'를 어원으로 하는 영어의 형용사로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편재하는'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즉,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며, 여러 기기나 사물에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통합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환경으로써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기술(USN : Ubiquitous Sensor Network)을 전체로 구현됨

- BT산업의 대두 :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IT에서 BT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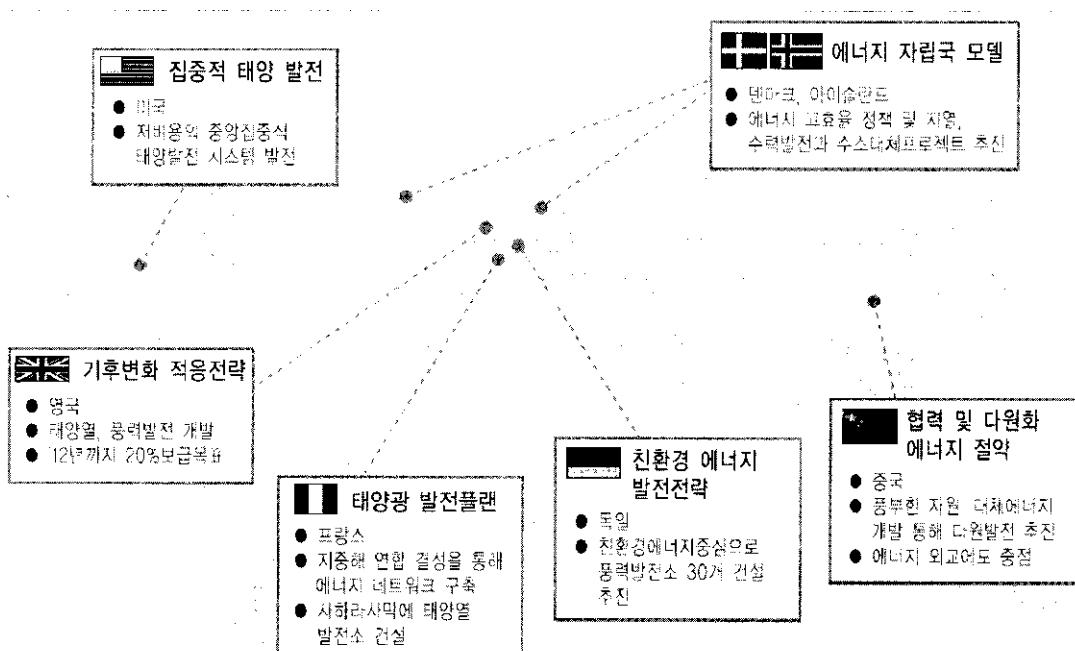


<그림 3-8> 바이오 경제의 대두

- BINT 융합화 : IT와 BT를 기반으로 소위 신성장의 NT, ST, ET, CT 등과 융합된 소위 'BINT'형 신산업 창출 가속화
  - \*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환경공학기술(ET)·우주항공기술(ST)·문화콘텐츠기술(CT)

## □ 녹색산업의 급성장

-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녹색산업의 탄생 및 급성장 :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 풍력, 조력 등) 관련 산업의 급성장
- 녹색산업의 2차 파생산업(탄소펀드, 탄소배출권시장 등)의 급성장



<그림 3-9>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국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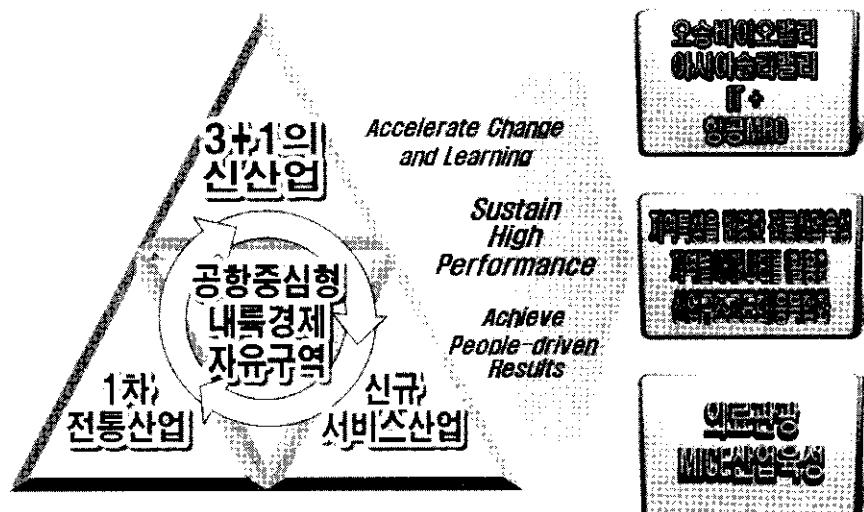
- 5+2 광역권계획(충청권) : 충청의 특화산업은 '뉴 IT'와 '의약바이오'로 선정하고 관련 산업을 추진중이며 이를 통해 2조 5,000억원의 매출과 4,000여명의 고용창출, 20억 달러의 수출 효과가 기대됨
  - 뉴 IT(1,086억) :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과 IT 기반의 그린반도체산업 성장 거점화 사업
  - 의약·바이오(915억) : 기업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연계 사업과 첨단 신약 및 소재 실용화지원 사업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추진 : 대덕(기초연구)을 기반으로 세종시와 오송(BT), 오창(BIT), 증평·진천·음성(태양광 부품)의 BIGH-T 클러스터 구현
- 바이오메디컬 융합 클러스터 조성 :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의료, 의료기기, 신약, 휴양관광, 한방 등의 융합형 클러스터 조성
  - 북부권(한방)과 남부권(의료기기 및 바이오농산업), 충북 전역의 의료관광이 융합된 '융합형 바이오메디컬 투어리즘' 클러스터 조성
    - \* 의료관광(Medical Tourism) : 전통적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비즈니스 모형(Business Model)으로 충북의 경우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의료산업 메카로의 육성을 추진 중에 있음
    - 의료관광은 '의료 + 관광'이 융합된 신조어로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과 의료를 융합하는 모형임. 대표적인 국가로 인도(관광중심 저렴한 의료비), 태국(관광 + 휴양), 헝가리(임플란트치료-소프론시) 등이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 대비 저렴한 의료비와 선진국 못지 않을 기술을 융합한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되고 있음. 대표적인 분야로는 성형관광, 피부미용, 각종 암치료 등이 주요 특화 분야로 지정됨
- 충북 4대 전략산업(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 바이오)의 지속적 육성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와 BT 분야의 신수종 산업의 글로벌 기업군 유치 및 클러스터 조성</li> <li>■ 육상(도로, 철도, KTX), 항공(청주국제공항)과 해상(평택·당진항) 등을 통한 국내 최단 최적의 접근성 확보(전국 2시간 이내)</li> <li>■ 비교적 풍부하고 차별화된 첨단산업분야 교육 인프라 기획보</li> <li>■ 태양광 모듈 중심 부품산업의 클러스터화(전국 인프라의 40% 결집)</li> <li>■ 이차전지(LG화학, 새한에너테크 등)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적인 역내 배출 교육인프라의 역외 유출(전국 최상위 순위)</li> <li>■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 중심의 역내 산업구조 지속</li> <li>■ 충북 신성장동력 육성에 필요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첨단 고급인력의 유치·확보 미흡</li> <li>■ 수도권 및 대도심 권역 대비 충북 경제의 특화발전 역량 미흡</li> <li>■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 및 중부권(괴산) 등 일부 시군의 특화산업 성장 미흡</li> </ul>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보건복지부 산하 6대 국책기관, 제2오송산업단지) 및 오창(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제천(한방) 중심의 바이오산업 특화 기회 확보</li> <li>■ 세종시 건설을 계기로 충북이 배후도시로서의 역할 제고 전망</li> <li>■ KTX 오송역 개통을 계기로 의료 관광산업 등 신규 성장산업 육성 기회 포착</li> <li>■ 중부신도시 및 충주기업도시 추진 기반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성 전망</li> <li>■ 태양광 부품 모듈산업의 집적화를 계기로 태양광 클러스터 특구 구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가용 인적 자원의 만성적 부족현상 지속</li> <li>■ 세종시 건설 본격화 및 천안권 경제 활성화에 따라 인접 지역의 관련 자원 유출 및 흡수 가능성 우려</li> <li>■ 주변 경쟁권의 첨단산업(BT, 태양광 등) 육성 추진으로 충북 육성전략 차질 우려</li> <li>■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5+2)에서 인재 양성대학부문에서 충북권역 대학의 탈락으로 지역 특화인력 양성기회 상실</li> <li>■ 지역 특화산업 관련 고급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유지 지난</li> <li>■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고급 R&amp;D 전문인력의 지속적 흡수로 역내 기획보 고급 전문인력의 역외 유출 가능성 존속</li> </ul>

### 3. 계획의 기본방향

#### □ 전통산업과 신산업이 어우러진 권역별로 차별화된 충북 건설

- 3차원의 산업 육성 : 충북의 신성장동력산업(BT, IT, MRO, 태양광)과 전통산업의 고도화, 신규서비스산업(MRO, SoftWare, MICE)의 병행 육성 추진



<그림 3-10> 충북의 3차원 산업 육성 전략

- '충북발전 3 + 1 프로젝트'<sup>1)</sup> 중심의 신산업 육성 : 오송바이오밸리, 태양광 중심 솔라밸리, IT 등 3개 역점사업에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와 항공정비(MRO)산업이 더해진 미래 성장 추진 전략임
  -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 오송바이오밸리 : 식약청 등 6개 국책기관과 58개 주요 제약업체가 입주할 오송생명과학단지, BT융합대학원 등 바이오 교육관련 시설이 들어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KTX의 중심축인 오송역세권을 연계해 대단위 바이오클러스터 구현
  - 36번 국도를 축으로 한 솔라밸리 : 36번 국도 변을 중심으로 한 청주,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충주 등 7개 시·군에 걸친 국내 최초의 '벨트형 광역 태양광 특구'를 지정·육성
  - 지역 균형발전·충청내륙화 고속도로와 신발전 지역이 융합된 균형발전 구현 : 남부, 북부의 성장기회 마련
  - 청주공항활성화와 MRO산업 : 국제노선 6개로 확대(기존 4개), 활주로 연장, 북측 진입로 개설, 화물청사 증축, 수도권 전철 공항 연장 등 인프라 확충 및 함께 항공정비(MRO)산업을 집중 육성

1) 충청북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비전 2014", 2011. 2.

## □ 히든챔피언 30개 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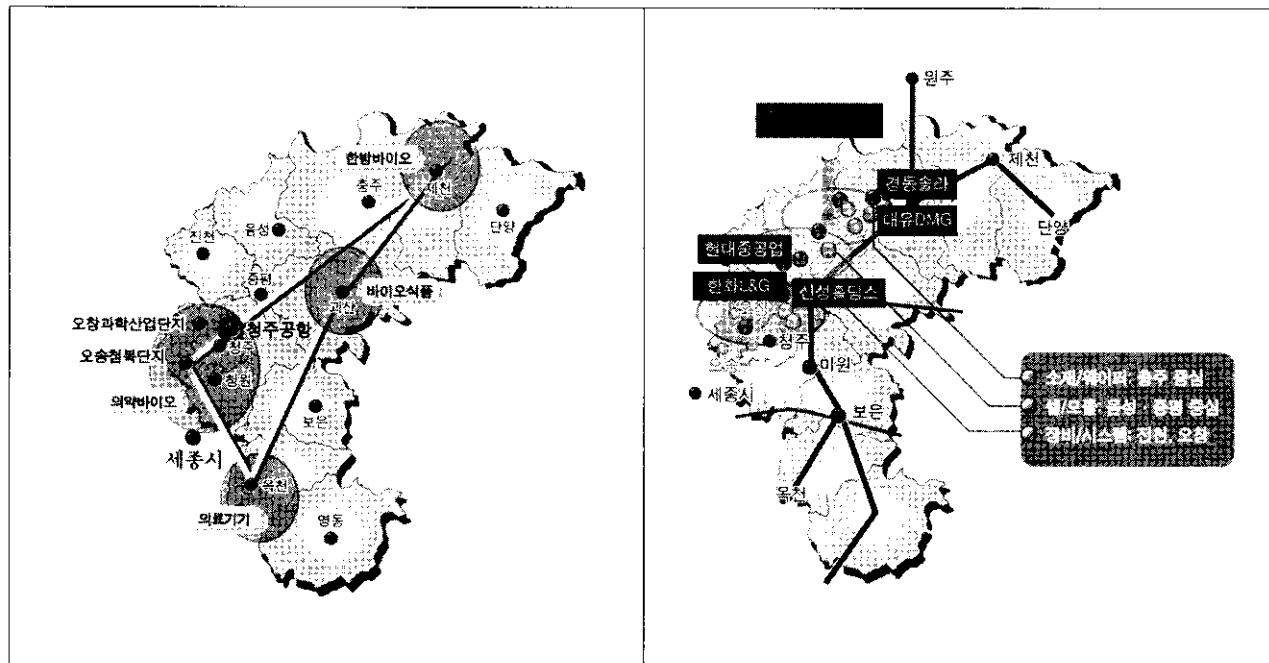
- 충북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었거나, 성장 가능성이 큰 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시킴
  -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 잘알려져 있지 않은 틈새시장에서 세계 4위 이내 혹은 대륙별 1위를 차지하는 제품을 말함. 우리나라의 홍진크라운 헬멧 등이 포함됨. 독일의 헤르만 지몬박사가 독일의 중소기업처럼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특정 분야에서 전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독일기업을 치칭한데서 유래.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착안하여 한국무역협회와 수출입은행이 주관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히든 챔피언 300개 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대상 분야
  -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에 부합하는 업종·태양광, 바이오(바이오신약 및 의료기기)
  - 5 + 2 광역경제권 부합업종 : 뉴 IT, 의약 바이오
  - 충북의 4대 전략산업 : 바이오, 이차전지, 차세대반도체, 전기전자융합부품
  - 기타 충북의 특화 업종 : 항공정비 MRO

## □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시군별 특화 전통산업 육성

- 중부권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시군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의 특화 인프라 및 어매니티를 활용한 산업을 육성
  - 지역 특화 인프라 : 청주·청원(IT, BT), 충주(사과), 제천(한방), 단양(석회석), 음성·괴산(고추), 진천(쌀), 증평(태양광), 보은(황토 대추), 옥천(의료기기), 영동(와인) 등
  - 지역 보유자원 및 어매니티 : 2댐(충주댐-충주·제천, 대청댐-청주·청원·옥천), 3국립공원(소백산국립공원-단양, 월악산국립공원-충주·제천, 속리산국립공원-보은) 등

## □ 4대 전략산업을 기본으로 바이오와 태양광 산업 중심의 권역별 특화 산업 육성

-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 : 수도권과 상생하는 중부권 최대 생활경제권의 핵심(메가로 폴리스)
  - 바이오산업 발전축 : 제천한방바이오(한방바이오 R&D 기반 구축, 한방바이오 고기능 제품개발 지원) ⇔ 옥천의료기기(의료기기업체 클러스터 구축, 오송바이오밸리와 네트워크) ⇔ 오송의약바이오(세계적 연구타운 조성, 바이오 문화·관광·교육도시 조성) ⇔ 괴산 바이오식품(유기식품 및 발효식품단지 조성)
  - 솔라밸리 발전축 : 36번 국도를 중심으로 충주(소재/웨어피) ⇔ 음성·증평(셀/모듈) ⇔ 진천·오창(장비/시스템)



<그림 3-11> 오송바이오밸리와 아시아솔라밸리 개념도

지역의 어매니티와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구현 및 기발굴 광역 연계사업의 지속적 추진

- 시군별로 특화된 전통산업을 기반으로 2·3차 산업과 융합된 특화 성장모형 구현
  - 예 : 영동의 포도, 단양 석회석단지, 과산 발효산업단지 등
-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기초자치단체간 혹은 도계를 뛰어넘는 권역별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을 추진함
  - 예 : 김치 체험학교의 경우 군의 특화 특작물을 기반으로 전통문화의 계승을 구현시키려는 사업으로 단양(마늘), 괴산(절임배추), 음성(고추)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학생들에게 김치학교 운영을 통한 수익모델 확보와 전통성 계승을 병행하고 있음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 모형(New Business Model) 확보 및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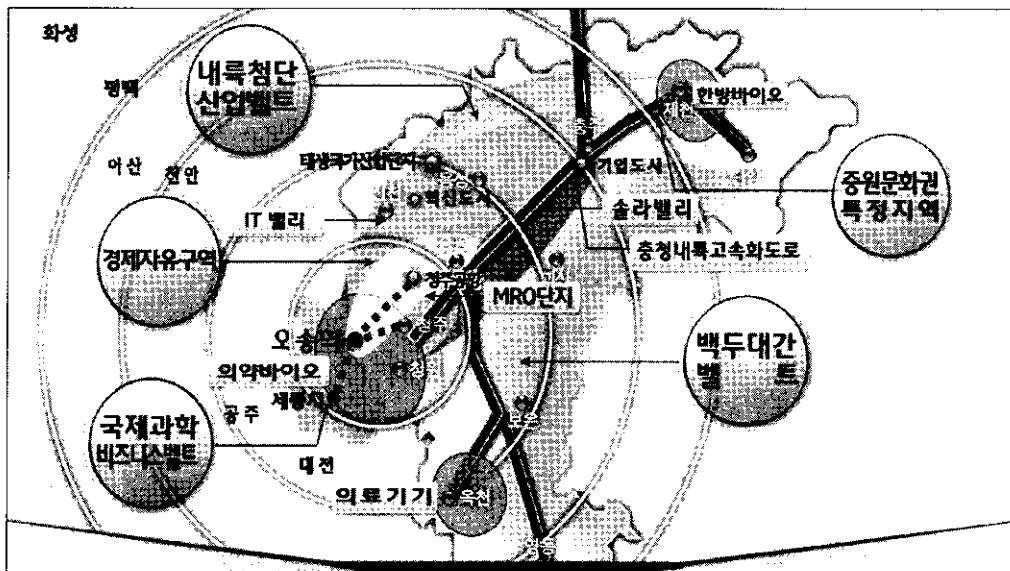
- 충북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특정 대기업 중심의 하청 구조에서 탈피하여 세부 틈새시장(niche market)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강소형 중소기업 육성을 추진함
  - 특히, 시군별 농공단지의 개선사업과 함께 개별 입지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을 산업단지로 집적시킴으로써 다양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추진함

## 5. 세부 추진과제

### 1) 3 + 1 프로젝트

**오송 바이오밸리와, 솔라밸리, 첨단 IT밸리(3) 육성 및 항공MRO(1) 육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성장산업 선점**

- 기 추진하고 있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을 거점으로 하는 Hub & Spoke 모형을 추진함
  -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청주국제공항(항공정비복합지구)을 중심으로 오송바이오밸리, 솔라밸리(증평그린IT전문단지), IT밸리(청주테크노폴리스, 오창BIT융복합지구)와 충주의 친환경 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그림 3-12> 충북의 산업 발전축 및 공간 구상

-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신성장거점 육성
  -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바이오밸리, 솔라밸리, 경제자유구역 등 성장거점을 육성
  - 제천한방바이오, 옥천의료기기바이오 등을 오송바이오밸리와 연계하여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육성
  - 아시아 솔라밸리는 36번 국도변에 태양광 기업 집적화 및 생산증대로 국내 태양광 부품소재산업을 주도함으로써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거점지역의 발전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

-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MRO 등 수도권과 차별화된 단지를 조성토록 함
- 충북4대 전략산업 중 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여 System 반도체, Green 부품소재, 에너지절감형 반도체 등 인접 미래신산업으로 고도화
- 신성장 거점으로서 오송바이오밸리와 아시아솔라밸리, 첨단 IT 밸리 구현을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최근 선호되고 있는 고급형 일자리 창출을 추진함
- 권역별로 특화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을 북부권 한방기업, 중부권(첨복단지 중심 신약 및 의료기기), 남부권 의료기기 업체 유치를 추진함
- 유치 업체 수준은 일정 수준 클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다양한 시너지 효과 획득을 목표로 추진함
- 오창과학산업단지 중심의 BIT산업 거점 조성
  - 오창과학산업단지 연구타운 내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전자정보부품산업 지원센터, 유비쿼터스 사회구현을 위한 u-센터 등의 IT 전략산업 집중 육성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조성,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조성, 한국석 유품질검사소 부설연구소 건립 등을 통하여 BIT 및 BINT 관련 R&D 기반을 구축함
  - 자동차용 이차전지 산업을 기반으로 전후방의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함
- 오송생명과학단지 중심의 동북아 BT산업 메카 조성
  -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등 6대 국책연구기관에 의한 신기술 산업화 기반 구축,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 오송 바이오 국제회의 지속 추진 등을 통해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세계적인 바이오 중심 단지로 육성함
  - 생명·의약물류권역(청주, 청원), 한방·바이오농업권역(보은, 옥천, 영동), 화훼기능성식 품권역(진천, 음성), 청정·웰빙식품권역(증평, 괴산) 등 바이오 5개 개발권역을 설정하여 경쟁력 우위 분야를 집중 육성함
- 전략산업육성을 통한 거점지역간 연계강화(hub & spoke)
  - 오창, 오송, 진천 등 전략산업육성의 권역별 허브(hub)와 산업적 전후방 연계를 갖는 스포크(spoke)간의 역할 재정립
    - 충북 전략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거점 클러스터 및 이와 전후방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소규모 클러스터의 실질적 연계성 형성
    - 혁신거점내/외 산학연 주체 역량강화 및 보유역량의 전략적 통합·활용체계 확립
      - 전략산업육성 주체간 역량연계를 위한 공동기획 및 기능별 통합조정체계 정비
    - 지역내 입주예정인 공공기관 연계활용으로 중앙부처와의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 오송생명과학단지 : 6대 국책기관, 15개 연구기관

-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BT전문대학원, 생명의과학연구소, BT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 오창과학산업단지 : 4대 국책기관, 2개 지원기관
- ▷ 한국생명공학연구원분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오창총괄본부(2부 9센터 : 바이오의약 연구소-항체치료제, 세포치료제, 면역제어, 분자암, 화학생물연구센터, 인프라사업부-국가영장류, 바이오평가, 의생명마우스, 바이오산업화공정개발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3연구부 : 자기공명, 질량분석, 환경과학연구부), 한국석유품질검사연구소, 충북테크노파크(2단 3센터 :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반도체센터, 전자정보센터, 전통의약산업센터, 보건의료산업센터, 임베디드센터, 인력양성실, 행정지원실, 지역산업평가단), 충북지식산업진흥원
- 중부혁신도시 : 첨단 R&D 이노밸리내 9개 기관
- ▷ 한국가스안전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 2) 전통산업 고도화

### □ 지역별 특화된 전통산업 기반 고도화 산업 기반 구현

-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제조가공업체와 식품업체 등의 설비 현대화를 통하여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2개 이상씩 특화업체를 발굴·육성함
- 지역 전통산업에 기반한 청주, 청원 지역을 제외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특화 업체를 기초자치단체당 1개 이상 유치 또는 신설을 추진함
  - 노후화된 산업단지 리모델링이나 신규장비 구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가 지속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도 미흡
    - QWL 개념을 접목시킨 산업단지 개선
  - \* QWL(Quality of Working Life) : 기존의 노후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을 통해, ‘일하면서 배우고 문화 생활도 누리는 복합공간’으로 변모시키는 프로젝트임.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경제부에서 관련 사업을 시행중임
  - 지역전통산업은 현재 각 기초자치단체별 특화분야 내지 육성분야를 중심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되, 구체적으로 충청북도의 경제통상국과 기초자치단체의 해당 실과가 함께 각 사안별 검토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함

### □ 지역 어매니티를 활용한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 2개의 냅과 3개의 국립공원으로 지칭되는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를 토대로 기초 자치단체별로 차별화된 지역어매니티를 활용한 산업 즉, 전통적 1차 산업(농업), 2차 산업(제조업)과 3차 산업(관광)을 융합화하는 모형임

- 지역별 어매니티 지원의 발굴 및 육성은 시군별 특성에 맞게 추진되어, 국·도립공원 및 문화유산과 함께 지역에 기 조성된 산업단지를 융합하는 모형을 적극 검토
- 주요 지구별 특화 방향은 다음의 표와 같음

&lt;표 3-6&gt; 충북의 8개 클러스터 중심의 권역별 특성화 계획

구분	거점	영향권역	주요기술분야	핵심주체
바이오	청원	청주, 진천, 음성, 제천, 괴산	바이오신약, 바이오기반 의료기기	식약청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 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반도체	청주/ 청원/ 진천	청원, 진천, 음성	반도체, 자동차용 2차 전지	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충북테크노파크, 지식산업진흥원 등
에듀테인먼트	음성	청원	에듀테인먼트, 게임	첨단문화산업단지, 디자인센터 등
석회석 신소재	단양	제천	광촉매콘크리트, 자동형 시멘트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전통의약	제천	청원, 진천, 음성	한방신약, 생태치료(에코테라피)	전통의약산업센터, 세명대학교
문화관광	보은/ 충주/ 증평	단양, 옥천, 영동	수상레포츠(무술축제, 조정대회 등)	도내 전지역
환경	충주	음성, 진천, 청원, 괴산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광), 보양관광	충주대학교, 건국대학교, 중원대학교
의료기기	영동/ 옥천	옥천, 보은, 청원	의료기기	영동대학교, 충북테크노파크

### 3) 신규 서비스산업 육성

####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중심의 의료관광 및 MICE산업 육성을 추진함

- 오송에 기 조성되고 있는 특화 의료인프라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임상실험시험센터 등)와 6대 국책기관을 연계하여 의료관광 및 MICE산업 육성을 추진함
- 의료산업 중심의 MICE 산업 육성
  - MICE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머릿글자를 합성해 만든 신조어로서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먼저 쓰이기 시작하면서 21세기에 들어서며 대중적인 용어가 되었음. 미국의 라스베거스가 그 대표적 사례로서 기존 관광인프라를 토대로 전시회와 컨벤션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형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최근들어 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서울의 COEX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음
  - 현재 오송은 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한 경험이 있으며, 향후 “2013 화장품&뷰티박람회” 등이 계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 관련 인허가기관과 R&D가 집적되어 있고, 향후 세종시와 중부혁신도시 등의 단계적 활성화에 따라 향후 전시산업의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
  - 한편, 접근성 측면에서도 KTX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활용할 경우 전국 2시간 이내 접근성과 동북아 4시간대의 접근성이 확보된 지역임
- 의료관광
  - 국내의 의료관광은 수도권(각종 암, 심장병 등)과 부산권(성형)을 중심으로 특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이를 산업 육성에 다양한 노력을 추구하고 있음
  - 충북은 바이오신약 및 바이오기반 의료기기로 특화되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를 계기로 바이오 치료제 관련 의료관광지구로의 육성을 추진함
  - 향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추진되는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관련 분야의 Test Bed로의 구현을 추진함

## □ 시군별 특성화 방향

- 충청북도내 시군별 산업 특성화 방향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7> 시군별 특성화 계획

구 분	세 부 내 용
청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문화산업 관련 기업유치, 환경친화형 기업유치를 통한 생태산업단지 조성, 아파트형 공장 설립, 반도체 중심 IT업체 유치</li> </ul>
충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주기업도시 육성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중부내륙권 성장거점공간으로 육성</li> <li>· 남한강 친수공간을 활용한 ‘물’ 관련 산업 유치 및 육성</li> </ul>
제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방관련업종 유치, 틈새시장공략이 가능한 유치업종 공략, 생태자원과 한방자원의 접목을 통한 신개념 단지 조성, 건강·테마·관광 등의 종합단지로 구상</li> </ul>
청원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한 BT산업의 핵심거점지역으로 육성</li> <li>·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BIT 융복합 및 자동차용 이차전지 산업 육성</li> </ul>
보은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농업종합지원센터, 시험재배단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생산·연구·유통·주거단지 조성</li> </ul>
옥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기분야로 특성화된 전문농공단지 조성</li> <li>· 묘목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li> </ul>
영동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건강산업 및 기능성 식품 클러스터 구축</li> <li>· 남부권 핵심 전략사업으로 벤처농업의 거점 확보</li> </ul>
증평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양광종합기술센터 유치를 통한 ‘아시아 솔라밸리’ 거점지구 육성</li> <li>· 태양광 관련 부품 및 모듈산업 유치 및 관련 벤처기업 육성</li> </ul>
진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산업 관련 전기·전자융합 부품산업 중심 기업 유치</li> <li>· 정주형태가 복합된 첨단산업 도시체계로 구성된 신개념 도시 건설</li> </ul>
괴산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T 산업(발효산업 등) 중심의 친환경적 생태산업단지 조성</li> <li>· 중원대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ET 산업 육성 추진</li> </ul>
음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산업 유치 및 농산물의 명품화를 통한 농공병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도모</li> <li>· 공해유발업종 제한, 청정기술형 첨단산업 유치</li> </ul>
단양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성 석회석 신소재 공동연구 기반구축 및 산업단지 조성</li> <li>· 석회석 신소재 관련 산업 유치 및 신소재 개발</li> </ul>

## 제2절 신성장 녹색친환경 고부가가치 농림축산업

### 1. 현황 및 문제점

#### 1) 지역내 총생산과 농업생산구조

- '09년 현재 충북의 지역내총생산(명목)은 31조 6,826억 원 규모로 전국의 3.0%를 차지,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4.0% 성장
- 농림어업의 비중은 '08년 5.5%에서 '09년 6.0%로 확대되었으며, 농림어업은 10.3% 성장하였음
- '09년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는 당해년 가격으로 28조 7,747억 원이며 이중 농림어업은 1조 5,328억 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음
- '09년 충북 산업별 구성비(당해년 가격)중 농림어업 구성비는 5.3%이며 '08년 4.8%와 비교하면 0.5%가 증가한 것임

#### 2) 농가인구와 경지 면적

- 농가인구는 '09년 223,580명(남자 110,434명이고 여자 113,146명)으로 '98년 299,791명(남자 148,685명, 여자 151,106명)에 비해 25.4%인 76,211명이 감소하였음
- '09년 충북도내 성별 농가인구는 남자 110,434명(49.4%), 여자 113,146명(50.6%)로 구성되어 있으며 '98년에 비해 남자는 25.7%, 여자는 25.1% 감소하였음

<표 3-8> 충북의 농가인구 추이

(단위 : 가구, 명)

구분	농가			농가인구		
	계	전업	겸업	합계		
				남	여	계
1998	95,070	60,816	34,254	148,685	151,106	299,791
2000	92,132	60,416	31,716	137,815	139,719	277,534
2002	85,228	56,242	28,986	123,093	124,513	247,606
2004	83,890	52,481	31,409	117,431	118,080	235,511
2005	85,723	55,479	30,244	118,516	120,094	238,610
2006	86,984	54,140	32,844	117,481	119,851	237,333
2008	85,388	49,487	35,901	112,508	116,024	228,531
2009	84,257	48,496	35,761	110,434	113,146	223,580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내부자료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 충북의 총 경지면적은 2001년 133,515ha로 논이 64,484ha, 밭이 69,031ha였으나, 2009년의 총 경지면적은 118,919ha로 14,596ha가 감소하였음
- 경지 규모별 농가수는 '01년 90,499호이며, '09년은 84,257호로 6,242호가 감소하였음
- 작물별 경지이용면적비율은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잡곡과 두류, 특용작물, 과실이 높은 편이며, 미곡, 맥류, 서류, 채소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음
  - '09년 경지이용면적은 125,149ha이며, 경지이용률은 102.7%로 '08년 경지이용면적 124,748ha, 경지이용률 100.6%보다 다소 증가하였음

&lt;표 3-9&gt; 충북의 총 경지 면적과 가구당 경지면적

구분	합계	논	밭	가구당 경지면적		
				계	논	밭
2001	133,515	64,484	69,031	1.47	0.71	0.76
2002	132,187	64,084	68,103	1.55	0.75	0.80
2003	130,680	63,264	67,416	1.55	0.75	0.80
2004	129,184	62,128	67,056	1.54	0.74	0.80
2005	128,162	60,916	67,246	1.53	0.73	0.80
2006	125,844	58,498	67,346	1.45	0.67	0.77
2007	124,063	57,098	66,965	1.45	0.67	0.78
2008	121,865	54,871	66,994	1.43	0.64	0.78
2009	118,919	52,994	65,925	1.41	0.63	0.78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lt;표 3-10&gt; 충북 시군별 경지면적(2009)

순위	시군	논	밭	합계
1	청원군	11,202	6,791	17,993
2	충주시	6,340	8,933	15,273
3	음성군	6,601	7,277	13,878
4	괴산군	4,762	7,869	12,631
5	제천시	2,921	7,843	10,764
6	보은군	5,537	4,281	9,818
7	영동군	2,434	7,235	9,669
8	진천군	5,705	3,058	8,763
9	옥천군	2,904	5,211	8,115
10	단양군	570	5,287	5,857
11	청주시	2,738	1,267	4,005
12	증평군	1,280	873	2,153
	충북	52,994	65,925	118,919
	전국	1,010,287	726,511	1,736,798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 3) 재배면적과 생산량 비중

#### □ 식량작물

- 식량작물 중 전국과 비교하여 재배면적 비중이 높은 작물은 수수, 옥수수, 대두, 팥 등이며, 특화계수가 1 이상인 작물은 수수, 옥수수, 메밀, 대두, 팥, 고구마, 감자 등임

#### □ 채소류

- 과채류 중 전국과 비교하여 재배면적 비중이 높은 작물은 수박, 오이, 호박 등이며, 특화계수가 1 이상인 작물은 수박, 오이, 호박 등임
- 엽채류 중 전국과 비교하여 재배면적 비중이 높은 작물은 배추이며, 특화계수가 1 이상인 작물은 배추임
- 근채류와 조미채소류는 전국과 비교하여 재배면적과 특화계수가 모두 낮으나, 고추는 재배면적 비중이 높고 특화계수도 1 이상임

#### □ 특용작물

- 전국 대비 들깨의 재배 비중이 높고 특화계수도 1보다 높음

#### □ 고일류

- 전국 대비 사과, 복숭아 포도의 재배면적이 높고 특화계수도 1보다 높음

#### □ 축산

- 전국 대비 사육 비중이 대부분 낮으나, 한·육우와 같은 특화계수가 1보다 높음

#### □ 임산물

- 임산물의 생산량은 종실과 약용, 그리고 산나물의 수량은 증가한 반면, 버섯은 점차 감소 추세를 나타나고 있음
- 충청북도 전체 임산물 총 생산액을 비교하여 볼 때, 2009년 충청북도의 임산물 총 생산액은 300,371,956천원으로 2000년에 비하여 119,871,452천원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lt;표 3-11&gt; 충북 특화계수(2009년)

품목	특화계수	품목	특화계수
미곡(백미)	0.883	생강	0.066
겉보리	0.484	마늘	0.428
조	0.598	참깨	0.738
수수	7.001	들깨	1.412
옥수수	3.507	땅콩	0.617
메밀	1.009	유채	0.000
콩	2.171	사과	1.164
팥	1.850	배	0.386
녹두	0.852	복숭아	2.286
고구마	1.091	포도	1.295
감자	1.042	감	0.457
수박	1.812	한육우	1.221
참외	0.025	젖소	1.138
딸기	0.227	돼지	0.996
오이	1.213	닭	1.406
호박	1.146	마ppelin	0.607
토마토	0.479	산양	1.683
배추	1.252	면양	0.770
시금치	0.249	사슴	2.437
상추	0.268	토끼	3.528
양배추	0.470	개	0.846
무	0.922	오리	1.852
당근	0.282	칠면조	2.628
고추	1.821	거위	2.286
파	0.682	꿀벌	1.355
양파	0.053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 4) 농가경제 현황

##### □ 농가소득과 가계지출은 전국보다 높음

- '09년 기준 농가소득은 31,876천원으로 전국 30,814천원보다 높으며 가계지출은 28,108천원으로 전국 26,574천원보다 높음

##### □ 자산과 부채는 전국보다 낮음

- 자산은 285,208천원으로 전국 358,029천원보다 낮고 부채는 20,553천원으로 전국 26,268천원보다 낮음

&lt;표 3-12&gt; 농가경제 현황

(단위 : 원)

구 분	평 균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농가소득	30,814	34,262	34,126	31,876	32,864	30,641	25,216	31,296	28,173	35,037
◦ 경상소득	27,306	31,397	30,880	29,234	28,725	26,424	21,529	27,990	25,023	31,524
- 농가순소득	21,826	25,379	24,512	23,407	24,145	21,054	15,906	22,701	18,962	25,604
- 농업소득	9,698	7,107	11,342	10,237	10,038	11,122	8,304	12,498	9,204	10,427
총수입	26,621	24,785	27,834	23,309	31,583	26,044	23,404	28,690	28,478	29,606
경영비	16,924	17,679	16,492	13,072	21,545	14,922	15,099	16,192	19,274	19,179
- 농업외소득	12,128	18,272	13,171	13,170	14,107	9,933	7,601	10,203	9,758	15,178
겸업소득	3,296	3,745	3,258	3,271	4,102	2,919	2,510	3,890	2,641	2,096
사업외소득	8,832	14,527	9,913	9,900	10,005	7,014	5,091	6,313	7,117	13,081
- 이전소득	5,481	6,018	6,368	5,826	4,581	5,369	5,623	5,289	6,061	5,920
◦ 비경상소득	3,507	2,865	3,246	2,642	4,139	4,217	3,687	3,305	3,150	3,512
가계지출	26,574	35,919	26,159	28,108	27,401	24,009	22,794	22,513	25,362	30,798
◦ 소비지출	20,017	27,657	20,634	19,365	19,617	19,246	17,257	17,068	19,096	22,458
◦ 비소비지출	6,557	8,261	5,526	8,744	7,783	4,763	5,537	5,445	6,266	8,340
처분가능소득	24,257	26,001	28,601	23,133	25,081	25,878	19,679	25,851	21,907	26,696
농가경제 잉여금	4,240	-1,657	7,967	3,768	5,463	6,632	2,422	8,783	2,810	4,239
농 가 자 산	358,029	701,109	341,817	285,208	380,488	278,085	217,668	278,923	286,915	421,702
농 가 부 채	26,268	41,392	26,166	20,553	27,114	19,358	19,929	20,282	32,302	40,172
부 채 비 율 (농가부채/농가자산)	7.3	5.9	7.7	7.2	7.1	7.0	9.2	7.3	11.3	9.5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 2009.

## 2. 여건 변화와 전망

### 1) 여건 변화

#### □ 농업·농촌의 메가트렌드와 영향

- 인구 구조의 변화와 고령사회로의 이행
  - 2000년 고령인구는 7.2%로 고령화사회에 접어 들었으며 200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0.7%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2050년에는 4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농업분야는 도시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2010년 현재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34.2%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며, 농촌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05년에 18.6%로써 고령사회에 해당함
- 농업생산력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농촌사회의 활력 저하가 우려되나, 고령친화적인 실버 농업의 등장과 청장년 전업농이 주력을 형성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음

#### □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른 경쟁 심화

- 경쟁에 기초한 시장경제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세계경제의 공조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FTA 추진이 확대되고 DDA협상의 진전으로 무한경쟁에 직면하고 세계화에 대한 적응 여부에 따라 성장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짐
- 시장대응력의 격차로 국가, 지역, 기업, 소득 등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나,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농업(품목, 경영체, 조지계)으로 구조조정이 진전되고 글로벌 경제에 적용하여 수출시장이 확대될 것임

#### □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및 환경의 중요성

- 지구온난화로 1970~2000년 대비 평균기온은 2030년에 1.0~1.5℃, 2050년에 2.0~2.5℃ 상승할 전망임
  - 강수량은 2030년에 4~5%, 2050년에 8~9%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화석연료의 경우, 석유는 향후 40년, 천연가스는 58년, 석탄은 130~200년 정도에 고갈 될 것으로 예상됨

- 화석연료를 대신하여 신재생에너지 또는 대체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조력, 수력, 원자력 등이 부상할 것임
- 한반도 아열대화로 인하여 식생이 변하면서 기존의 농산물 주산지가 재편될 것임
- 열대과일 재배가 가능해지고, 기존 과일의 재배적지가 북상하며, 곡물의 생산감소와 채소류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 새로운 성장작목으로 대체에너지용 유지작물이나 바이오매스 등의 자원이용이 확산될 것임
- 지구 환경의 악화에 따른 대응으로 미래 농업은 자연순환 기능, 환경보전, 지역자원관리 역할 등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임

## □ 기술발전에 의한 융복합기술의 농업 활용

- DNA발견, 전자공학, 정보과학의 발전 등이 21세기형 농업기술혁신을 가져왔으며, 생명공학기술은 향후 50년간 농업 발전에 혁신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과학기술과 지식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고령농업인들은 농촌사회에서 점점 소외되게 될 것임
-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이 발전하고 우주농업(space agriculture)이 가능해 질것임
- 농업상품화 기술과 유통체계의 혁신, U헬스 시스템 등으로 농촌지역의 의료복지 서비스도 향상될 것임

## □ 새로운 가치 지향으로 농업과 농촌의 기능 강화

-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물질적 풍요가 적정선을 넘게 되면서 양적 풍요보다 깊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나 농촌 어메니티가 더욱 부가되면서 식품안전성, 맛과 영양 중심, 농촌 어메니티 활성화, 농촌관광산업화, 귀농·귀촌 인구 증가, 휴양공간이나 전원생활 수요 증가 등은 미래 농업·농촌의 변모를 가져올 것임

&lt;표 3-13&gt; 농업·농촌 메가트렌드와 파급영향

메가트렌드	전망과 특징	농업·농촌의 파급 영향
고령화사회 (장수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출산, 인구증가율 둔화, 평균수명 연장</li> <li>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li> <li>건강, 장수에 대한 니즈</li> <li>노인복지 수요 급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생산력의 증가세 둔화</li> <li>농촌사회의 활력저하 및 지역경제 위축</li> <li>고령친화 실버농업의 부상</li> <li>청장년 전업농이 주력 형성</li> </ul>
글로벌경제 (무한경쟁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진전, DDA협상 진행</li> <li>미국중심의 세계화 탈피, 전지구적 시장경제 출현</li> <li>2030년경부터 경제국경 소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질서의 국제규범 재편</li> <li>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농업으로 구조조정</li> <li>농업·농촌의 양극화 확대</li> <li>농산물 수입증가, 수출시장 확대</li> </ul>
기후변화와 환경중시 (녹색산업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온난화로 2050년 기온 2°C 상승, 강수량 8% 가량 증가</li> <li>화석연료 고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li> <li>세계적인 물부족 현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반도 아열대화로 인한 식생변화, 열대과일 재배</li> <li>농산물 생산 감소와 품질 저하</li> <li>대체에너지용 유지작물 등 확산</li> <li>지속가능한 환경농업 발전</li> </ul>
과학기술발전 (융복합기술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BEC기술의 보편화 융합화</li> <li>유비쿼터스시대 도래</li> <li>로봇 상용화로 2025년 노동시장 50% 대체</li> <li>우주시대 본격화, 원격탐사기술의 농업 분야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첨단기술수용의 격차 확대</li> <li>기계화·자동화의 정밀농업 발전, 우주농업, 원격탐사기술 등</li> <li>농산물 상품화, 유통체계 발전</li> <li>U헬스시스템 등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향상</li> </ul>
새로운 가치 지향 (문화창조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성장에서 탈피, 삶의 질 중시</li> <li>개성, 집단지성</li> <li>지식창조사회</li> <li>여가 및 문화 가치 중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안전성, 맛과 영양 중시</li> <li>농촌어메니티 활성화, 농촌관광산업화</li> <li>귀농·귀촌 인구 증가</li> <li>휴양공간, 전원생활 수요 증가</li> </ul>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정책연구보고 P133』, 2010.

## 2) 전망

### □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추이

- 2030년에 농가호수는 92만호, 농가인구는 173만명 정도가 될 것이며, 고령화의 가속화로 농가인구 65세 이상의 비율이 2030년에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됨
- 2030년경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기간적 전업농가는 20만호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됨
- 경지면적 감소는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2010년 172만 ha에서 2030년 149만 ha로 감소하고 벼 재배면적도 91만ha에서 80만ha로 감소가 예상됨

## □ 농업부가가치와 농가소득

- 2010년 21조원(불변가격) 수준에서 2030년에는 시장개방 가속화의 영향으로 19조원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함
- 전통적인 경종작물이 쇠퇴하고 다양한 소득작목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지역별로 다양한 소득작목이 개발되어 농업생산의 감소 추세를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
- 농가소득의 경우, 농업소득은 정체되나 농외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호당 농가소득은 2010년 3,300만원(불변가격) 수준에서 2030년에는 5,700만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농산물 소비량의 추이와 전망

- 쌀 소비량은 2010년 1인당 72.8kg이며, 2030년에는 47kg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 과일소비는 1970년 대비 사과는 2배, 배는 7배나 증가하였으나, 사과 소비량은 증가 속도가 정체되고 배는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채소류도 소비가 크게 늘었으나 앞으로는 약간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2030년경에는 현재 소비량의 9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육류소비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2030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은 쇠고기가 13kg, 돼지고기가 25kg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 □ 농촌공간과 지역사회

- 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30년 농촌인구는 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농가비중이 줄어들면서 농촌지역의 혼주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로 농촌인구 중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36%에서 2030년 23%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농가인구의 감소로 농촌은 생산공간에서 국민의 산업·생활공간으로 변모하는 추세로 도시민의 귀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 농촌인구의 총 인구 비율을 15%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음

## □ 농업·농촌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대체 유기영농의 일반화, 영농의 자동화, 인공식품의 보편화 등에 의한 새로운 농업기

### 술의 패러다임이 창출됨

- 농촌은 전통적·획일적 특성에서 다문화 수용지역으로 변화하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인구이동이 일어나게 됨
  - 농업 생산과 관련 분야, 농촌관광 분야 등에서의 활동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면서 다양한 전문 인력이 농촌에서 거주하게 될 것임
- 농산물 생산시장, 농산물 유통시장과 농산물 판매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체제가 형성될 것임
  - 농산물 생산시장에서는 전통적 농산물 재배방법, 소규모 관광농업 재배방법, 대규모 유기영농 재배방법, 인공식품 제조공장으로 나누어져 하나의 경쟁체제가 형성됨
  -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진 농산물들이 농산물 소비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국내 생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임
  - 자연재배 농산물과 인공농작물 간의 경쟁에 의해서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 농업·농촌의 역할과 변화

- 농업은 산업규모면에서나 경제활동인구면에서 비중이 점점 약해지고 있으나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
  - 국민에게 녹색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정화의 기능을 하며,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는 농업의 외부경제효과가 매우 큼
- 소비패턴의 변화,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확대 등은 농업과 농촌에게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요구하고 있음
  - 국제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안정된 식량공급 기능
  - 화석원료의 가격상승과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의 공급원
  - 국토환경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적 이용과 지역경제 및 전통문화의 유지,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도시과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억제
- 환경 친화 및 자원절약형 농업이 확대되면서 녹색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임
  -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친환경적인 생산방식이 강조되고 특히, 지역의 자원을 지역내에서 순환시키는 지역순환형 농업으로 전환될 것임
-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농기업이 출현하여 애그리비지니스(agribusiness)가 각광을 받을 것임
  - 농업생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일어지는 부산물,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 문화, 농촌 생활 등 다양한 자원을 소재로 활용하여 서비스부문까지 영역이 확대될 것임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정 이미지</li> <li>■ 풍부한 수자원</li> <li>■ 수도권 인접성</li> <li>■ 국토의 중심입지</li> <li>■ 풍부한 역사·문화자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사업 제약</li> <li>■ 시설설치 제한</li> <li>■ 기계화 제약</li> <li>■ 전문인력 부족</li> </ul>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정농산물 생산</li> <li>■ 풍부한 관광자원</li> <li>■ 수도권 인접성</li> <li>■ 관광수요 증가</li> <li>■ 다면적 기능</li> <li>■ 수출시장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 및 노령화</li> <li>■ 도농격차 및 부채증가</li> <li>■ 복지시설 낙후</li> <li>■ 시장개방</li> <li>■ 농지잠식</li> </ul>

### 3. 계획의 기본 방향

#### □ 농업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 DDA 협상과 FTA 체결 확대에 따른 농축산물시장의 개방과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외국 농축산물이 국내 농축산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국내 농축산물시장을 지키고 시장의 외연적 확대를 위해서는 농축산물의 품질 경쟁력, 마케팅과 브랜드 강화 등이 필수적임
- 농축산물이 식품산업과 의약산업, 에너지 산업 등과 융복합화하면서 농축산물의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식품과 서비스업을 접목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유지함

#### □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역량 강화

- 도시보다 농촌이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 예상되고 현재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농업 생산력 증가세 둔화와 농촌사회의 활력 저하를 저지할 수 있는 전업농과 농업법인을 육성하는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여야 함
- 도시 출신 귀농자 및 청년 취농자들을 농업 인력으로 전환하고 농촌에 거주시킬 수 있는 유인 제도를 마련하여 미래 농업·농촌의 지도자 또는 주력 인력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 녹색성장을 이끄는 농축산업 육성

-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의 농산물 주산지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로 저에너지 투입 기반의 농축산물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대체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이용되는 작물을 발굴하고 이를 대량으로 재배하여 녹색성장을 이끌 수 있게 대비하여야 함
- 지구 환경 악화에 대한 대응, 지역자원 관리와 생물의 다양성 유지 등에 부합하는 농업 생산환경을 갖추기 위해 자연순환농업, 환경보전농업 등을 확대 실시하여야 함

### □ 삶의 질이 향상된 농산촌 완성

- 사회 양극화 심화와 물질적 풍요에 대한 반감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농업이 지니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어메니티를 더욱 가치 있게 보전하고 이를 활용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
- 농촌어메니티의 발굴과 가치화, 농촌관광산업화, 휴양 공간 기능, 전원생활 수요에 맞춘 국민 산업·생활공간 등으로 농촌을 새롭게 재구성을 위한 각종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

### □ 여유와 풍요를 갖춘 농촌복지 실현

- 식량안보, 국토·환경 보전, 토지 비축 등의 역할뿐만 아니라 농촌사회 유지, 도시집중 억제, 노령인구 부양 등의 사회적 복지 기능으로 농촌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
- 다문화 확대와 양극화사회 심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와 전통문화의 유지 등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의료시설 등 사회간접시설을 도시와 동등하게 갖추어야 함

## 4. 세부 추진과제

### □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농업경영주체 육성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와 법인이 한국 농업을 선도
- 농업생산의 목적이 단순한 생계유지가 아닌 상업적 판매를 통한 이윤창출에 있는 농

업 경영체가 생산·경영의 중심적인 주체가 됨

- 농업소득, 경영규모, 영농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업농의 기준을 정하고 선정된 주업농을 한국농업의 성장을 견인한 경쟁력 강화정책의 주대상으로 삼음
- 전반적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성과가 미약한 농업법인을 규모화·전문화하여 농업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개성 있는 농업인력 육성
- 농업생산, 농촌관광, 애그리비즈니스 등 다양한 농업 인력 양성
- 지역농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지도자를 육성하고 이를 조직화
- 산·학·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문성을 갖춘 농업인

## □ 농업·농촌의 신성장동력인 녹색성장기반 구축

- 자원순환형산업을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 저투입 농식품산업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흡수역량을 강화
  - 재배적지 조성, 새로운 생산기술 개발, 재해대응 강화 등으로 생산방식을 개편
  - 지속 가능한 자연자원 관리와 이용을 위한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어업을 확대해 나감
-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농업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 확대와 관련 실용화 기술로 농경지 메탄 및 아산화질소 감축기술, 토양내 유기탄소 저장기술, 반추가축 장내발효 개선 기술,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바이오 활용 및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의 에너지 절감 녹색기술의 실용화
  - 바이오매스 자원의 생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바이오매스 자원 품종개발 및 생산 확대, 지역별 에너지·자원화 시설 조성과 활용

## □ 신성장 녹색친환경 농업 육성

- 농업생태계 보존과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에너지 고투입 농법을 저탄소 농법으로 전환
-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간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시스템 구축
- 에너지 사용 저감, 대체농자재 사용 등 저탄소 농업기술을 통한 농가경영비 절감과 품질 및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친환경 및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고 천적농법이나 경종축산복합농업 등의 정착
  - 수직형 식물공장, 기후변화 대응 및 정밀농업 등에 필요한 기술 개발
- 바이오농업 지향 미래농업 기술 개발
  - 품질이 높고 수확량이 많으며 불량 환경 저항성을 지닌 품종, 수입사료를 대체하기 위한 초다수성 곡물 등의 육성·보급 등과 개인의 건강을 고려한 맞춤형 농작물 생산
- 녹색성장 선도 원예기술 개발
  - 에너지 저감형 고효율 원예작물 생산기술, 식물 병해충 발생 예측, 억제 및 방제기술, 기능성 및 환경내성 형질전환 품종 육성 등

## □ 첨단기술과 시설을 갖춘 맞춤형 농산업 육성

- 식품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감
  -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흐름을 식품소재 생산업(농림수산업), 가공업, 유통업(도·소매업), 외식산업을 거쳐서 소비자의 식생활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파악함
- 환경을 생산하는 농업 생산방식의 도입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 물질순환을 기본 시스템으로 하여 농업과 환경이 가장 조화를 이루는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육성

## □ 세계 최고의 안전과 품질을 갖춘 농식품 육성

-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킴
  - 식품소비가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전환되면서 식품의 건강기능성, 편의성,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되는 농식품을 생산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함
-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요건의 완비로 소비자 신뢰 제고
  -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사를 전과정에서 식품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 제도와 생산이력추적제를 강화함

## □ 생활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갖춘 녹색농촌 조성

- 자연과 농촌주민, 도시민이 어우러진 공생의 풍요로운 농촌건설

- 어메니티 자원과 농촌다움, 다양한 역사유적지 및 자연관광, 문화예술축제를 연계하여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한데 어울리는 장을 마련함
- 도농교류가 활성화되어 농촌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공간이면서 전통을 배우고 유지하는 학습의 장이 되면서 농촌이 정신적 고향으로 자리잡게 됨
- 농어촌지역의 소득, 건강, 교육, 문화생활 등을 보장하는 환경 마련
- 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일터, 삶터, 쉼터인 농어촌지역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적·물리적 환경 조성
- 탄소 흡수원 확충의 일환으로 탄소 순환림을 조성하고 목재펠릿 활용촉진으로 화석연료 대체 및 이산화탄소 감축
- 지속적인 산림휴양 수요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산림휴양시설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게 공급

## 제3절 글로벌시대 국제교류 및 통상역량 강화

### 1. 현황 및 문제점

#### 1) 국제교류분야

##### □ 국제교류분야 현황

- 충북은 1986년 미국 아이다호주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2010년 12월 현재 12개국 21개 지역과 국제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자매결연지역 7, 우호교류 9, 기타 5)
  - 국가별로는 중국이 7개 지역, 미국이 3개 지역, 베트남 2개 지역이고, 그 외 국가는 각 1개 지역임

<표 3-14> 충청북도 국제교류 현황(2010년 12월 기준)

단체명	국제교류기관			비고
	국가명	자치단체명	교류일자	
충청북도	미국	아이다호주 (Idaho)	1986. 07. 01	자매결연
		몽고메리카운티(Montgomery County)	2004. 05. 03	바이오산업교류
		매릴랜드주(Mariland)	2007. 05. 14	과학기술교류
	일본	야마나시현 (山梨縣)	1992. 03. 27	자매결연
		흑룡강성 (黑龍江省)	1996. 09. 18	자매결연
	중국	내몽고 자치구(內蒙古自治區)	1999. 01. 27	경제문화교류
		요령성 대련시(遼寧省 大連市)	1999. 01. 29	투자 경제통상교류
		광서장족 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2001. 06. 07	우호협력교류
		산동성(山東省)	2002. 01. 30	우호교류협력
		호북성(湖北省)	2006. 09. 15	우호협력교류
		길림성(吉林省)	2008. 04. 11	우호교류
		멕시코	콜리마주 (Colima)	1999. 11. 15
	아르헨티나	추붓주 (Chubut)	2000. 09. 18	자매결연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Central Java)	2005. 09. 30
	오스트리아	슈타이어 마르크주(Steiermark Province)	2000. 05. 05	교류각서(MOU)
		헝가리	바란야주(Baranya County)	2000. 05. 09
	이태리	피아몬트주(Piemonte Region)	2000. 11. 15	경제문화교류
		베트남	푸옌성(Phu Yen Province)	2007. 09. 06
			빈푹성(Vinh Phuc Province)	2008. 10. 21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	2008. 05. 13	우호교류
	필리핀	벵겔주(Benguet State)	2009. 05. 31	우호교류

자료 :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 도내 시군의 교류지역은 미국 3개 지역, 일본 7개 지역, 중국 13개 지역, 대만 및 몽고 각 1개 지역으로 미국을 제외한 22개 지역이 아시아에 편중되어 있음(자매결연지역 12, 우호교류 12, 직원파견 1)

&lt;표 3-15&gt; 각 시·군별 국제 교류 현황

단체명	국제교류기관			비고
	국가명	자치단체명	교류일자	
청주시	일본	돗토리현 돗토리시(鳥取縣 鳥取市)	1990. 08. 30	자매결연
	야마나시현 고후시(山梨縣 甲府市)	2002. 09. 26	우호교류	
	중국	호북성 무한시(湖北省 武漢市)	2000. 10. 29	자매결연
	미국	절강성 호주시(浙江省 湖州市)	2006. 05. 15	우호교류
충주시	대만	워싱턴주 벨링햄시(Washington Bellingham)	2005. 10. 01	우호교류
	일본	타이중시(臺中市)	1969. 11. 27	자매결연
	중국	가나와현 유가와라마치(神奈川縣 湯河原町)	1994. 11. 28	자매결연
	미국	도쿄도 무사시노시(東京都 武藏野市)	1997. 07. 15	직원파견협정
제천시	중국	흑룡강성 대경시(黑龍江省 大慶市)	2001. 10. 10	교류협력
	미국	워싱턴주 스폴카운티(Washington Spokane)	1999. 05. 11	자매결연
	중국	강서성 장수시(江西省 樟樹市)	2006. 10. 17	자매결연
	미국	사천성 성도시(四川省 成都市)	2007. 05. 24	우호교류
청원군	중국	하북성 창주시(河北省 滄州市)	2004. 11. 03	우호교류
	일본	구마모토현 키쿠치시(熊本市 菊池市)	2007. 03. 07	우호협력
보은군	일본	미야자키현 다카오카쵸(宮崎縣 高岡町)	1993. 08. 06	자매결연
	중국	안휘성 소호시(安徽省 巢湖市)	2008. 06. 01	우호협력
옥천군	일본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치(青森縣 五戸町)	1997. 08. 28	자매결연
	몽고	울란바타르시 수크바타르그(UlanBator Sukhbaatar)	2008. 06. 05	교류협력
영동군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방성항시(廣西壯族自治區 防城港市)	2007. 09. 12	자매결연
증평군	중국	강소성 관남현(江蘇省 灌南縣)	2005. 10. 05	우호교류
진천군	미국	캘리포니아주 밸리오시(California Vallejo)	2002. 04. 09	자매결연
괴산군	중국	길림성 집안시(吉林省 集安市)	2006. 10. 20	자매결연
음성군	중국	강소성 태주시(江蘇省 泰州市)	2000. 09. 27	자매결연
단양군	중국	강소성 단양시(江蘇省 丹陽市)	2005. 06. 28	우호교류
	미국	길림성 안도현(吉林省 安圖縣)	2005. 10. 24	교류협약

자료 :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 □ 국제교류 특징

- 충북의 국제교류 특징은 지리적 요건, 이질적 문화, 교류아이템 부족, 민간교류 부진, 경제적 실리 부족 등의 사유로 국제교류가 대체로 활성화 되지 못한 실정임
- 국제교류지역을 교류정도에 따라 세분하면 활성화지역 3개 지역, 간헐적 교류 6개 지역, 교류부진 12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교류 활성화 지역(3개)의 특징은 지리적 근거리, 동일 동양 문화권, 자매결연 체결 15년 경과 등으로 상호 성숙된 관계가 정립되어 있음

&lt;표 3-16&gt; 교류 활성화 지역의 주요 교류사업

구 분	지 역	주요 교류사업	비고
교 류 활 성 화 지 역 (3개소)	중국 흑룡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및 유학생 상호파견 각1명</li> <li>■ 하얼빈 경제박람회 참가</li> <li>■ 스포츠·청소년교류, 정부·의회대표단 교환방문 등 연 15회 교류</li> </ul>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이나아세안엑스포 참가</li> <li>■ 정부·의회대표단 교환방문 등 연 5회 교류</li> </ul>	
	일본 야마나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및 유학생 상호파견 각 1명</li> <li>■ 정부대표단 교환방문 등 연 4회 교류</li> </ul>	

자료 :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 간헐적 교류지역(6개)의 특징은 개발도상국에서는 IT·BT 등 선진산업과 농업교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박람회 참가 등을 추진하여 상호 국제교류 명맥만 유지함
- 부진 교류지역(12개)의 특징은 지리적요건, 이질적 서양문화, 교류아이템 부족, 대부분 도지사 해외출장을 위한 일회성 교류협정 체결, 민간부문의 교류사업 부재, 경제적 실리 부족 등의 특징을 나타냄

&lt;표 3-17&gt; 부진 교류지역의 주요 교류사업

구 분	지 역	주요 교류사업	비고
간 헐 적 교 류 지 역 (6개소)	멕시코 펠리마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펠리마주 산토스 박람회 참가(연1회)</li> </ul>	
	베트남 빈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마을 자매결연, 농업기계화 지원 등</li> </ul>	
	중국 길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림·동북아 투자박람회 참가</li> </ul>	
	필리핀 뱅겟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장비 기증('10. 3월, 19종 1,084점)</li> </ul>	
	미국 몽고메리카운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T요원 1명 파견근무, 인큐베이터 사업</li> </ul>	
	러시아 상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트시 대표단 방문('09. 12월)</li> <li>■ Early Music 패스티벌 참가(9월)</li> </ul>	
교류부진 지역 (12개소)	미주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다호주, 메릴랜드주</li> </ul>	
	중국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북성, 대련시, 산동성, 내몽고자치구</li> </ul>	
	유럽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스트리아 슈타이어마르크주, 헝거리 바란야주, 이탈리아 페아몬테주</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헨티나 추부주, 베트남 푸엔성, 인도네시아 중부</li> </ul>	

자료 :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 시·군의 국제교류 특징은 미국(3개 지역) 외 전 지역이 일본, 중국, 대만, 몽고 등 아시아(22개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 미국 3개 지역, 일본 7개 지역, 중국 13개 지역, 대만 1개 지역, 몽고 1개 지역

## □ 국제교류 문제점

- 국제교류와 국제통상 기능과의 연계성 미흡
- 교류지역 신규 개척 시 도내기업의 수출전략지역으로 선정 필요

- 교류지역과 수출 대상지역의 시장수요 상이

- 국제교류의 산발적 추진으로 효율성 저하
- 도 부서별 국제교류관련 협의·조정 기능 미흡
- 도와 시·군과 국제교류관련 공조체제 전무
- 예산과 인력의 부족
  - 전국 16개 시·도 중 하위권-인력 10위(정원 17명, 전국평균 22.5명), 예산액 12위(국제통상과 총예산 38억원, 국제교류 8억원, 시도평균 116.8억원)

## 2) 수출지원분야

### □ 수출현황

- 2010년 12월 말 기준, 충북 수출은 10,330백만불, 수입은 6,120백만불, 무역수지는 4,210백만불을 기록
  - 충북 최초 100억불을 달성(12.22) 하였으며, 무역수지 또한 가장 많은 흑자를 실현
  - 수출실적 기업은 1,336개사, 총수출국가는 168개국으로 나타남
- 지난 10년간 평균 수출 성장률은 11.3%를 기록함
  - 4년 주기별('01년, '05년, '09년)로 감소세 기록
    - '01년에는 IMF 구제금융 영향으로 27.3% 감소, '05년에는 LG전자통신사업부의 평택이전으로 24.9% 감소하였으며, '09년에는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12.3%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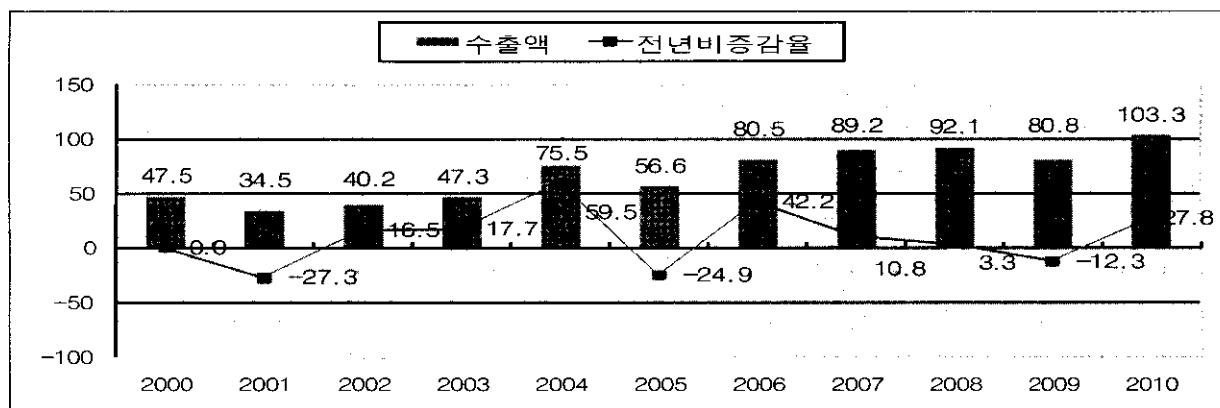
<표 3-18> 충북의 최근 10년간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불, %)

구분	충 북				전 국		
	수출	수입	무역수지	증가율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0	4,748	3,314	1,434	-	172,268	160,481	11,786
2001	3,450	2,677	773	△27.3	150,439	141,098	9,341
2002	4,019	3,253	766	16.5	162,471	152,126	10,344
2003	4,732	3,589	1,143	17.7	193,817	178,827	14,991
2004	7,546	5,252	2,294	59.5	253,845	224,463	29,382
2005	5,664	5,495	169	△24.9	284,419	261,238	23,180
2006	8,054	6,890	1,164	42.2	325,465	309,383	16,082
2007	8,920	7,543	1,376	10.8	371,489	356,846	14,643
2008	9,213	8,299	914	3.3	422,007	435,275	△13,267
2009	8,080	4,969	3,111	△12.3	363,534	323,085	40,449
2010	10,330	6,120	4,210	27.8	466,384	425,212	41,172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무역통계」, 각 년도.

(단위 : 백만불, %)



&lt;그림 3-13&gt; 충북의 최근 10년간 수출 동향

## ○ 충북의 10대 수출국

- 수출금액 기준으로 중국, 대만, 홍콩, 미국, 일본, 싱가폴, 인도, 이란, 말레이시아, 태국 순임
- 10개국이 총수출의 82.6% 점유,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이 총수출의 50.3% 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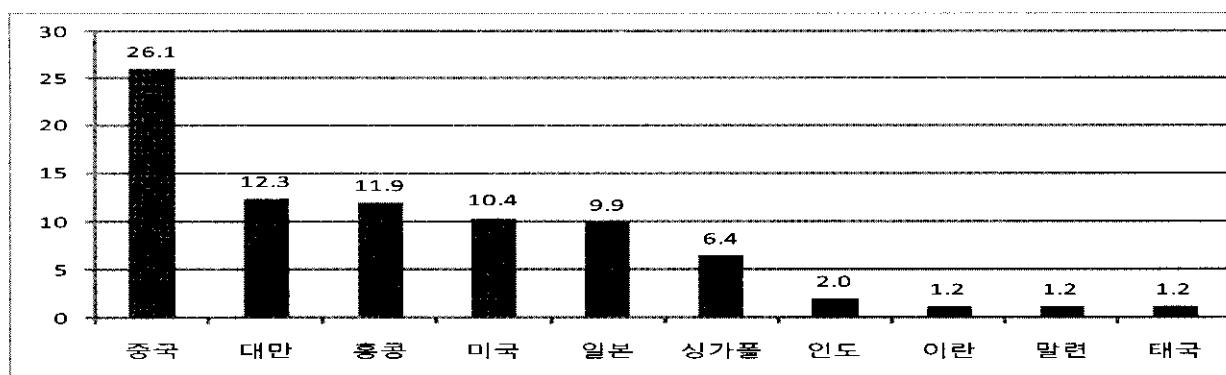
&lt;표 3-19&gt; 충북 10대 수출국

(단위 : 백만불, %)

국가(순위)	0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중국	대만	홍콩	미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이란	말련	태국
금액	8,536	2,700	1,268	1,235	1,077	1,020	660	210	123	122	121
비중	82.6	26.1	12.3	11.9	10.4	9.9	6.4	2.0	1.2	1.2	1.2
전년대비 증가율	-	32.8	46.6	31.2	△2.1	36.0	47.5	24.8	22.3	84.2	39.5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무역통계』, 2010.

(단위 : %)



&lt;그림 3-14&gt; 충북 10대 수출국 비중

- 10대 수출국의 주요 수출품은 광학기기, 반도체, 플라스틱제품, 자동차부품, 건전지 및 축전지, 전선, 인쇄회로 등이 주종을 이룸

&lt;표 3-20&gt; 총북 10대 수출국 주요 수출품

순위	중 국	대 만	홍 콩	미 국	일 본
1	광학기기	반도체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2	반도체	광학기기	컴퓨터	자동차부품	광학기기
3	건전지및축전지	기구부품 (인쇄회로등)	광학기기	건전지및축전지	유선통신기기
4	기구부품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제품	농산가공품
5	플라스틱제품	유리제품	정밀화학제품	반도체	전선
순위	싱가포르	인 도	이 란	말레이시아	태 국
1	반도체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반도체	반도체
2	기구부품 (인쇄회로등)	종이제품	계측제어분석기	정밀화학제품	기구부품 (인쇄회로등)
3	전선	전선	플라스틱제품	정전(정지)기기	정밀화학제품
4	고무제품	알루미늄	철강관및철왕석	플라스틱제품	종이제품
5	정밀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기구부품	동제품	전선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무역통계』, 2010.

#### ○ 총북 10대 수출품목

- 반도체, 광학기기, 플라스틱제품, 건전지 및 축전지, 기구부품,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전선, 유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순임
- 10대 품목이 총수출의 70.7% 점유
- 특히 하이닉스반도체와 엘지화학 2개 업체 비중은 37.0%를 점유

&lt;표 3-21&gt; 총북 10대 수출품목

(단위 : 백만불, %)

구분	합 계	반도체	광학 기기	플라스 틱제품	건전지 축전지	기구부품 (PCB등)	자동차 부품	무선 통신 기기	전선	유선 통신 기기	합성 수지
금 액	7,287	3,147	1,187	550	532	513	426	358	266	157	151
비 중	70.7	30.5	11.5	5.3	5.2	5.0	4.1	3.5	2.6	1.5	1.5
전년대비 증가율	-	58.2	26.1	22.9	25.0	33.8	68.9	△52.6	16.3	72.3	23.5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무역통계』, 2010.

- 충북 10대 수출기업(2010년 기준)

- 충북 10대 수출기업은 (주)하이닉스반도체, (주)엘지화학, 엘지전자(주), 매그나칩반도체(유), (주)심텍, (주)일진글로벌, 한국다우코닝(주), (주)파워로직스, 엘에스산전(주), 미래나노텍(주) 임
- 10개 기업의 수출금액은 5,553백만불로 총수출 비중의 53.8%를 점유

**<표 3-22> 충북 10대 수출기업**

(단위 : %)

순위	기 업 명	주요 수출품목	비중
1	(주)하이닉스반도체	반도체	23.5
2	(주)엘지화학	광학기기	13.5
3	엘지전자(주)	무선통신기기	5.3
4	매그나칩반도체(유)	반도체	2.4
5	(주)심텍	기구부품	2.4
6	(주)일진글로벌	자동차부품	1.8
7	한국다우코닝(주)	기타정밀화학제품	1.6
8	(주)파워로직스	반도체	1.3
9	엘에스산전(주)	정전(static electric)기기	1.2
10	미래나노텍(주)	광학기기	1.2

자료 :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 □ 충북수출의 특징 및 문제점

- 특정국 및 수출편중현상 지속

- 중국, 대만 등 10대 국가가 수출의 82.6% 점유하는 등 주요국에 수출편중 심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반도체 등 10대 품목이 수출의 70.7%를 점유하여 주요품목의 수출비중 과다함

- 중소기업 수출비중 미미

- (주)하이닉스 등 10대 기업이 수출의 53.8% 점유하여 일부 중소기업에 비교해 대기업 수출비중이 매우 높음

## 3) 외자유치분야

### □ 외자유치현황

- 충북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1974년 7월 24일 최초 투자일부터 2011년 2월 말 현재 172 개 기업으로 나타남

-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대별 분포는 '70년대 1개 기업, '80년대 15개 기업, '90년대 30개 기업, '00년대 107개 기업, '10년대 19개 기업으로 '00년대에 크게 증가하였음

&lt;표 3-23&gt; 충북 외국인투자기업의 연대별 분포

(단위 : 개, %)

구 分	총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기업수	172	1	15	30	107	19
비 중	100	0.6	8.7	17.5	62.2	11.0

자료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기업정보』

- 외국인 투자기업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전기전자 39개 기업(22.7%), 도소매(유통) 32개 기업(18.6%), 화공 22개 기업(12.8%), 식품 17개 기업(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산업별 분포는 공공서비스, 도소매(유통), 부동산임대, 비즈니스서비스, 음식숙박업의 44개 기업(25.6%)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에 128개 기업(74.4%)이 투자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lt;표 3-24&gt; 충북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별 분포

(단위 : 개, %)

구분	총계	공공 서비스	광업	금속	기계 장비	기타 제조	농축 임업	도소매 (유통)	문화 오락	부동산 임대	비금속 광물
기업수	172	2	2	10	9	1	3	32	3	2	4
비 중	100	1.2	1.2	5.8	5.2	0.6	1.7	18.6	1.7	1.2	2.3
구분	총계	비즈니스 서비스	설유 직물	식품	운송용 기계	음식 숙박	의약	전기 전자	제지 목재	화공	-
기업수	172	4	1	17	10	6	1	39	4	22	-
비 중	100	2.3	0.6	9.9	5.8	3.5	0.6	22.7	2.3	12.8	-

자료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기업정보』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가별 분포는 총 33개국으로 나타남
  - 일본 58개 기업, 미국 22개 기업, 중국 19개 기업, 독일 8개 기업, 프랑스 4개 기업, 네덜란드 4개 기업, 캐나다 4개기업, 스위스 3개 기업, 이탈리아 2개 기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투자국 대부분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등 선진국의 비중이 높은 것은 선진기술의 도입으로 투자기업의 기술향상을 통한 충북의 생산성 증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 외자유치분야의 문제점

- 국가, 업종, 지역의 편중성 지속
  - 충북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주변 주요 국가(미국, 일본, 중국 등)가 IT, BT 등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청주, 청원 등 중부권에 집중되는 현상 지속
- 경제자유구역 미지정으로 인한 외자유치 체계의 상대적 열세
  - 현재 충북의 외자유치는 도의 '기업유치지원과 외자유치팀'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이미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은 지자체(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대구, 경북 등)와 비교 시 전체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 현재 충북의 특장점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시급
- 연차별 편차가 매우 큼
  - 충북의 연차별 외국인 투자실적은 일정한 성장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연차별 편차 매우 큰 실정
  -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성장세 구현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이 절실히

## 2. 여건변화와 전망

### 1) 세계 경제의 다극화

#### □ 세계경제 중심축이 G7(선진 10억 시장)에서 G20(선진+신·중 40억 시장)으로 이동

- G7을 제외한 여타 G20국가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9년 24.8%(14.3조불)에서 '15년 31.8%(26.1조불)로 증가 예상
  - (G7) 인구 7.3억 명, GDP 30.8조불 → (G20) 인구 44.3억 명, GDP 50.8조불
  - G7의 세계 GDP 비중: ('09년) 53.3% → ('15년) 46.7% (6.6%p 감소)

#### □ 신·중국 중심축이 성장하면서, '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4억의 중산층이 새로 형성될 전망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국·인도를 중심으로 약 12억명 증가
  - 2020년까지 연평균 5.3% 증가(OECD) : ('09) 18.45억 명 → ('20) 32.49억 명

**□ 경제성장률에 있어서도 신흥개도국이 선진국을 압도**

- '11년에도 美·日 등 선진국 경제 성장률(2.4%)보다 신흥개도국의 성장률(6.4%)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IMF)
- 선진국 중에서는 유럽(1.3%↑), 일본(1.8%↑)의 약세가 지속되고,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9.6%↑)과 인도(8.4%↑)가 성장을 주도

**2) 세계화의 확대 및 동북아 경쟁 심화**

**□ 세계화 확대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글로벌 압력 증대**

- 수많은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감에 따라, 우리 기업은 새로운 위기(내수경쟁 격화)와 기회(글로벌 시장)에 직면
  - 국경을 초월한 최적 입지에서 생산·판매 등의 기업 활동을 영위
  - 역외 및 아웃소싱(outsourcing) 등을 통해 최적의업체로부터 원자재·부품을 조달
    - 세계 100대 다국적 기업은 자산의 57%, 매출의 62%, 고용의 58%를 해외 의존
- 산업의 융·복합화와 기술의 복잡성 등으로 단일 기업이 모든 것을 혼자하기 어려운 시대에서 네트워크 경쟁력은 필수

**□ 한·중·일 3국간 분업구조가 보완관계에서 경쟁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중국 등 동북아 시장에도 종체적인 大경쟁시대가 도래**

- 선진시장을 최종 수요처로 '일본(소재)→한국(부품)→중국(완제품)'으로 대변되던 분업구조가 상호 경쟁구도로 변화
  - 중국은 규모의 경제,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해 완제품 및 부품·소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세계 시장점유율을 확대
  - 일본은 자신의 장점인 환경기술·첨단기술 등의 우위를 바탕으로 기존 선진시장 공략과 아시아 중산층 시장까지 집중 공략
- 동북아 大경쟁시대는 우리 기업에게 보다 높은 생산성과 글로벌 역량을 요구하며, 기존 시장 안주가 아닌 시장개척을 요구

**3) FTA 확산 등 무역파러다임의 변화**

**□ FTA 확산, 비관세장벽 확대 등 무역형태와 규범의 다양화로 무역거래가 점점 더 복잡화·전문화**

- FTA시대 개막 : DDA 협상의 난항,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을 배경으로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FTA 추진 가속화
  - 체결국별로 세분화·차별화된 FTA 확산에 따라, 표준화된 WTO체제와는 달리 필요정보가 급증하고, 거래비용이 증가
    - FTA 체결 국가별로 상이한 원산지규정, 통관규정, 표준, 안전규제 등에 따라 기업이 수출에 있어 투입해야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FTA 추진효과가 반감
- 무역장벽 증가 : 신규 무역제한조치 도입,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무역규제가 복잡·다양화
  - '08년 11월 1차 G20정상회의 이후 '10년 2분기까지 645건의 신규무역제한조치 도입
  - 기술규제(WTO에 통보된 건수)는 '04년 이후 연평균 18.5% 증가

**□ 전자무역 확산, 결제방식의 변화 등 무역거래형태도 기술발전에 따라 계속 진화**

- 전자무역 확산 : 기존 오프라인 방식의 수출 및 무역업무에서 벗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무역 및 전자문서 활용 증가
- 결제방식 변화 : 신용장 방식이 감소하고, 송금 방식이 증가하면서 무역금융·보험 환경이 변화
  - '00~'10년 중 신용장 방식은 전체 수출액 중 27.6%에서 15.6%로 크게 감소한 반면, 송금결제방식 비중은 43.0%에서 60.2%로 증가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시 건설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li> <li>■ 오송, 오창 산업단지의 첨단 및 신산업 발전</li> <li>■ 청주공항 및 오송전철역으로 인한 접근성 용이</li> <li>■ 세계무역 8대국 진입 및 G20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로 인한 우리나라 브랜드파워 활용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상존 및 투자 부진</li> <li>■ 국제교류지역의 산발적 추진으로 효율성 저하</li> <li>■ 수출 대상지역 및 수출품목 편중</li> <li>■ 투자기업 편향적 유치활동 및 국내 지역간 경쟁심화</li> </ul>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의 국가이미지활용을 통한 국제교류 및 통상의 선진화 가능</li> <li>■ 세종시, 경제자유구역지정을 통한 비즈니스 환경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외교 및 역량의 제한</li> <li>■ 선진시장 위축 및 신흥국 부상</li> <li>■ 전면적인 글로벌 경쟁 심화</li> </ul>

### 3. 계획의 기본방향

#### □ 국제교류분야

- 신흥수출 유망국가와의 교류사업 확대
- 국제교류업무의 낭비와 비효율성 제거 및 생산성 제고
- 외교적 활동은 『도민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

#### □ 수출지원분야

- 수출상위 10대 수출국에 대한 과감한 지원, 점유율 확대
- 신흥 수출유망 10대국에 공세적, 도전적 해외마케팅 전개
- 높아진 국가이미지 및 FTA 활용, 수출기반 인프라 확충
- 새로운 무역환경에 맞는 선택과 집중전략 추진

#### □ 외자유치분야

- 국내외 투자유치 강화
  - 효율적인 투자유치 촉진기반 구축
  - 투자유치 네트워크 다원화 및 홍보강화
- 충북 4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유치활동 지속 전개
  - 의약·바이오,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이차전지, 전기전자용합부품
-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기업 투자기업 발굴 유치 전력
  - 일자리 창출 극대화,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 신성장 동력산업과 서비스산업 등 투자유치분야 확대
- 소규모 투자유치단 중심의 실속있는 유치활동 필요

### 4. 세부 추진과제

#### □ 국제교류분야

○ 교류와 통상의 일체화

- 기존 자매·우호교류지역 : 도민이익을 창출하는 교류로 전환
  - 자매·우호교류지역 대표단 초청 충북우수상품전 개최 등
  - 교류지역별 강점을 도내 도시, 농촌마을 연계 자매결연 추진
- 신규 교류지역 개척 : 도내 기업의 수출촉진 전략지역으로 선정
  - 자매·우호지역 박람회, 국제행사 등에 기업체 참여 기회 확대
  - 국제교류는 반드시 자매결연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도민이익을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국제교류 추진
- 상생발전 아이템 발굴
  - 국제 교류 아이템 발굴 : 전문가와 간담회 개최(분기별)
  - 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제교류 협력 강화 : 바이오·에너지 분야 등

○ 도, 시·군, 부서간 협력 시스템 구축

- 국제교류계획 수립 시, 부서간 협조
  - 도 국제교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복 출장 배제 등 효율성 극대화
  - 도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계획 수립, 서민경제 활성화
- 도 ↔ 시·군간 국제업무 협력 강화
  - 시·군의 국제화 사업은 상호 정보교류로 낭비요인 제거 : 시·군별 통상·문화 사절단 파견, 국제행사 등 기획단계부터 상호 협조하여 국제교류 성과 극대화
  - 도 국제관계자문대사 적극 활용 : 풍부한 해외근무경력과 인적네트워크를 갖춘 고위 외교관 출신, 시·군에서 국제교류, 투자유치 등 업무지원 요청 시 적극지원

○ 지구촌 휴먼네트워크 강화

- 수출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 수출 전문기업협의회 구성·운영 : 30개 기관·기업체
- 세계적 인사와 인적네트워크 확충
  - 국제자문관, 충청향우회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도정 설명회, 산업시설 시찰, 문화 유적지 관람 등
  - 해외 전문가 그룹 DB화 관리 : 도정소식지 제공 등
- 청소년 세계화 마인드 제고
  - 자매·우호교류지역과의 청소년 교류확대 : 충청향우회와 홈스테이
  - 탁구, 바둑, 태권도 대회 등 청소년 상호방문 확대
- 스마트폰을 활용한 세계 정보 교류
  - 국제자문관+충청향우회+KOTRA+해외전문가 그룹+대기업 해외지사(네트워킹)

□ 수출지원분야

- 수출상위 10개국의 유망품목 시장점유율 확대

-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 중국 : 친환경인테리어, 영유아제품, 고급의류, 자동차부품, 플라스틱제품, 정보기술, 생물의약,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등
- 대만 : 석유화학제품, 기계류, 방직기계, 수송장비, 부품소재 등
- 홍콩 : 수출의 60% 이상 중국 재수출로 중국 내수소비 및 관련 생산품

- 동남아(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

- 싱가폴 : 친환경 건축자재, LED 조명기구 등
- 말레이시아 : 정밀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동제품 등
- 태국 : 기구제품(인쇄회로기판), 화학제품, 종이제품, 전선 등

- 서남아 및 중동(인도, 이란)

- 인도 : 산업용원부자재, 종이제품, 전선, 알루미늄, 플라스틱제품 등
- 이란 : 의료기기 및 의약품, 플라스틱제품, 건설장비 및 부품 등
- 미국 : 철도차량부품, 솔라패널, 반도체제조장비부품, 미용의료기기 등
- 일본 : 로봇용관련센서, 터치패널, 애완용품, 농산가공품 등

○ 신흥 수출유망 10대국에 공격적 해외마케팅 전개

-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폴란드, 터키,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호주, 남아공  
※ 시장규모, FTA 체결 및 협상국, G20 국가, 국제교류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

<표 3-25> 수출상위 10개국의 유망품목 및 특징

지역별	국가명	유망품목	인구수 (백만명)	총북 수출국 순위	FTA	G20 국가	비 고 (교류관계)
아시아	베트남	합성수지, 정전기기, 전선, 가죽, 동약 및 의약품, 기구부품 등	89	13	발효	-	우호교류 (빈膈, 푸엔성)
	필리핀	동제품, 반도체, 플라스틱, 무선 통신기기, 종이제품 등	98	18	발효	-	우호교류 (벵겔주)
	인도네시아	알루미늄, 플라스틱, 화학공업제품, 철강관 및 철강선, 반도체 등	240	16	발효	○	자매결연 (중부자바주)
유럽	폴란드	광학기기,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연마제품, 가죽제품 등	38	15	타결	-	-
	터키	원동기 및 염프, 기구부품, 조명기구, 자동차부품, 인조섬유제품 등	77	23	협상 중	○	-
	러시아	플라스틱, 전선, 철강관 및 철강선, 기호식품, 화학제품, 축산가공품 등	140	12	-	○	우호교류 (상트페테르부르크)
남미	브라질	농약 및 의약품, 플라스틱, 기구부품, 반도체, 전전자 및 축전자, 정전기기 등	198	19	-	○	-
	멕시코	광학기기, 기구부품,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회전기기, 주단조품 등	111	22	협상 중	○	자매결연 (폴리마주)
대양주	호주	전선, 플라스틱제품, 동조가공품, 커피류, 자동차부품, 화장품 등	21	11	협상 중	○	-
아프리카	남아공	기호식품, 유선통신기기, 철강관, 플라스틱제품, 염료 및 안료 등	49	33	-	○	-

- 중소기업 맞춤형 글로벌마케팅 지원 확대
  -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사업 추진
    -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및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 해외 충북우수상품전 및 B2B 사이버 수출상담회 개최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 중소기업 수출보험 및 유망기업 글로벌촉진 지원
    - 내수기업 수출기업 전환 및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 충북통상 CEO 전문가 과정운영 : 충북대 등
  - 수출기업의 무역역량 강화 지원
    - 온라인 타겟마케팅 및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지원
    -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및 외국어 통번역 지원
- 경제외교 및 수출인프라 확충
  - 자매·우호지역과의 실리외교
    - 중국 하얼빈, 차이나-아세안, 산토스 무역박람회 참가
    - 흑룡강성과의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 내실추진
    - 양 지역 우수중소기업 상품전 개최 등
  - 수출 국제인적 네트워크 강화
    - 유능한 국제자문관 위촉 확대 : 21명 (79명 → 100명)
    - 짚고 참신한 해외인사를 수출촉진 후원자로 활용
    - 친 충북 외국인사(주지사급 및 CEO)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중국, 일본의 외교관, 기업가 등 초청 간담회 개최

## □ 외자유치분야

- 既 관리중인 잠재 외투기업 실질투자 유도
  - MOU 체결, 투자계약 및 착공 유도
  - 주요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해 담당자를 PM으로 지정
    - 바이오 및 의약·의료기기, 태양광, 공항관련 분야
  - 외투기업(잠재투자가) 홍보 이메일링 서비스 제공
    - 바이오 동향지, 투자 관련 동향을 국내외 기업인들에게 E-Mailing 서비스로 발송
- 산업별, 지역별 전략적 해외 IR추진
  - 지역별, 유치대상별 체계적 IR 추진방향
    - 바이오·의약, 태양광, MRO 등 산업별 맞춤형 투자사절단 파견
    - 스토리가 있는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전개
    - 투자환경설명회, 개별 기업상담 및 전문전시회 등 추진

- 해외무역관 및 민간전문가와 공동 추진으로 효율성 제고
- 고용, 기술이전 파급효과가 큰 해외기업유치
- 국내·외 투자유치 네트워크 다원화 및 내재적 기반 구축
  - 외국인 투자유치 네트워크 다원화
    - 외투기업 임원과의 간담회 및 실무위원회 워크숍 개최
  - 미국내 상설 투자유치 활동 시스템 구축
    - 미국은 바이오 강국으로 투자유치 대상기업 대다수 소재
    - 미국 봉고메리카운티 파견 직원의 효율적 활용도모
    - 바이오포럼, 네트워킹 행사참석, 잠재투자기업과 상담 등
    - 상시 실시간 현지 활동을 위한 투자유치 센터화
    - 미주지역 내 MRO업체 동향 및 홍보
    - 국내외 IR활동시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한 전문성 제고
    - 외국인 투자유치 유관기관과 네트워킹 강화
    - Invest KOREA 합동 투자유치 활동
    - 해외 투자협약기관 정기적 정보교류 활성화
    -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지소 등 추가 협약체결 검토
  - 외자유치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 외자유치 전문교육을 통한 투자유치 전문가 육성
    - 외자유치 공무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외국인 투자기업 방문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지원
    - 既 입주 외투기업 및 MOU체결기업
    - 업체별 PM지정 후 행정지원을 통한 증액투자 유도
  - 외국인 투자기업 커뮤니티 블리그 제작·운영
    - 도내 소재 외국인 기업 대상
-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홍보활동 강화
  - 산업별 맞춤형 홍보물 제작
    - 한국 바이오산업동향 제작, 잠재투자기업 및 유관기관 배포
    - 아시아 솔라밸리, 충북외투지역, 항공정비복합단지 등
  - 지경부(IK) 홍보계획과 연계 추진으로 효율성 도모
    - IK 투자유치 홈페이지에 충북사이트 운영 활성화
    - 아리랑TV Invest KOREA 프로그램 등 공동 홍보활동 추진
    - IK Journal, Focus 등 국내외 해외잡지 홍보 추진
- 국내·외 IR활동으로 MRO 및 항공복합단지 조성추진
  - 추진 방향

- 기체 중정비, 엔진, 보기 등 분야별 · 업종별 유치
- 국내업체와 국외업체의 타깃을 정하여 추진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기반 사전 구축



## **제 3 장 함께하는 문화충북, 명품 테마관광 실현**

제1절 함께 누리는 행복문화

제2절 생명력이 넘치는 선진형 웰빙관광충북 실현

제3절 활력있는 녹색농촌관광 활성화



# 제3장 함께하는 문화충북, 명품 테마관광 실현

## 제1절 함께 누리는 행복문화

### 1. 현황 및 문제점

#### 1) 문화시설 현황

##### □ 문화기반시설

- 문화기반시설에는 『도서관법』 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상 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 진흥법』 상 문예회관 등이 있음
- 2009년 12월 기준, 충북의 문화기반시설은 도서관 30개, 박물관 37개, 미술관 6개, 문예회관 12개, 문화원 12개, 문화의 집 8개 등 총 10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청주·충주·제천시 및 청원군에 집중 분포되어 있음

<표 3-26> 도내 주요 문화시설 현황

(단위 : 개)

시·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소계	공공	사립	대학	소계	공공	사립	대학			
계	30	15	15		37	23	9	5	6	2	4		12	12	8
청주시	8	5	3		7	4	1	2	3	1	2		1	1	3
충주시	3	2	1		6	5	1						2	1	
제천시	6	5	1		3	2	1						1	1	1
청원군	2	1	1		6	2	2	2	2	1	1			1	
보은군	1		1		2	2							1	1	
옥천군	1		1		2	1	1						2	1	
영동군	1		1		4	2	2						1	1	1
증평군	1		1		1	1							1	1	1
진천군	1		1		1	1							2	1	1
괴산군	1		1		2	1		1						1	
음성군	3	1	2		2	1	1						1	1	
단양군	2	1	1		1	1			1		1			1	1

자료 : 문화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10.

- 충북의 문화기반시설수를 다른 도와 비교해보면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수치상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음

&lt;표 3-27&gt; 도별 문화기반시설 현황

(단위 : 개)

구분	합계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화원	문화의집		
						계	박물관				미술관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소계	공공	사립	대학	소계	공공	사립	대학			
전국	2,030	703	457	229	17	771	630	311	234	85	141	33	102	6	182	227	147
도계	1,453	494	322	163	9	548	459	262	154	43	89	23	65	1	137	159	115
경기	349	143	126	11	6	134	106	46	52	8	28	5	22	1	26	31	15
강원	163	50	27	22	1	70	60	42	13	5	10	3	7	0	14	18	11
충북	105	30	15	15	0	43	37	23	9	5	6	2	4	0	12	12	8
충남	136	50	30	20	0	44	39	23	14	2	5	0	5	0	15	17	10
전북	119	43	25	17	1	33	30	20	6	4	3	2	1	0	17	14	12
전남	144	52	31	21	0	46	34	24	8	2	12	2	10	0	14	22	10
경북	174	55	27	27	1	66	60	39	10	11	6	2	4	0	20	23	10
경남	162	50	26	24	0	55	50	32	13	5	5	3	2	0	17	20	20
제주	101	21	15	6	0	57	43	13	29	1	14	4	10	0	2	2	19

자료 : 문화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10.

- 도별 인구대비 문화기반시설을 살펴보면 충북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등 주요문화기반시설의 1관 당 인구수가 도서관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적거나 중간에 해당함

&lt;표 3-28&gt; 도별 문화기반시설 1관당 인구수

(단위 : 명)

지 역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경 기	80,144	108,119	409,308	440,793	369,697	764,041
강 원	30,257	25,215	151,287	108,062	84,048	137,534
충 북	(3) 50,916	(7) 41,283	(6) 254,580	(7) 127,290	(5) 127,290	(5) 190,935
충 남	40,752	52,246	407,516	135,839	119,858	203,758
전 북	43,128	61,817	618,169	109,089	132,465	154,542
전 남	36,789	56,265	159,417	136,643	86,955	191,300
경 북	48,543	44,498	444,979	133,494	116,082	266,988
경 남	65,004	65,004	650,035	191,187	162,509	162,509
제 주	26,793	13,085	40,190	281,332	281,332	29,614

주 : 1) 주민등록인구 기준

2) ( )속은 순위를 나타냄

자료 : 문화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재구성, 2010.

### □ 공연시설 현황

- 공연예술은 다수의 관객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성을 특징으로 삼기 때문에 공연예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와 시설을 갖춘 공연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2009년 12월 기준, 도별 공연장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lt;표 3-29&gt; 도별 공연장 현황

구 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공 공	96	27	11	30	17	16	24	17	6	244
민 간	19	3	0	6	1	1	2	1	10	43
계	115	30	11	36	18	17	26	18	16	287

자료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정책백서』, 2010.

## 2)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계 현황

### □ 문화예술단체 현황

- 2009년 기준 충북에 소재하는 예술단체는 교향악단 2개, 국악단 3개, 무용단과 합창단 각 1개로, 총 7개의 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이 중 4개의 단체가 청주에 소재하고 있음

&lt;표 3-30&gt; 충북 소재 예술단 현황

구분	소재지	창단일	단원수		
			계	상임	비상임
교향악단(2)	충북도	2009.06.11	27	16	11
	청주	1977.07.07	56	56	-
국악단(3)	청주	1985.08.07	27	26	1
	충주	1988.08.26	29	20	9
	영동	1991.05.18	29	24	5
무용단(1)	청주	1995.08.01	26	25	1
합창단(1)	청주	1979.03.01	42	41	1

- 대표적인 문화예술협회로는 한국예총 충북연합회(충북예총)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충북지회(충북민예총) 등이 있음
- 충북예총은 1962년 1월 27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북지부로 결성된 이후 현재 11개 시·군 예총과 10개의 회원협회가 있음
- 충북민예총은 1994년 3월 5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충북지회로 창립한 이후 현재 6개 시·군 민예총과 12개의 장르 위원회가 있음

&lt;표 3-31&gt; 충북의 문화예술협회 현황

충북예총		충북민예총	
시·군 예총	회원협회	시·군 민예총	장르위원회
청주예총	건축가협회	청주민예총	작가회의
충주예총	국악협회	제천민예총	민미협
제천예총	무용협회	충주민예총	연극위원회
영동예총	문인협회	옥천민예총	풍물위원회
음성예총	미술협회	보은민예총	음악위원회
옥천예총	사진작가협회	청원민예총	춤위원회
청원예총	연극협회		영화위원회
증평예총	연예협회		무예위원회
괴산예총	영화인협회		사진위원회
진천예총	음악협회		서예위원회
단양예총			전통음악 전통미술

자료 : 충북예총 및 충북민예총 홈페이지

## □ 문화예술활동 현황

- 2010 『문예연감』을 통해 지역별·장르별 문화예술 활동을 살펴보면 2009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행해진 시각예술, 공연예술 활동은 총 57,246건으로 집계되었음
  - 그 중 서울이 35,077건으로 6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1,123, 경기의 4,786건을 합할 경우 전체 문화예술 활동의 71.1%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됨
- 충청북도의 문화예술 건수는 532건으로 전체의 0.9%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음
  - 장르별로는 시각예술 115건, 양악 52건, 국악 24건, 무용 28건, 연극 313건으로 연극 부문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르 간 편차가 현격함

&lt;표 3-32&gt; 지역별·장르별 문화예술활동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시각예술	양 악	국 악	무 용	연 극	합 계	구성비
서 울	6,459	2,948	1,541	1,126	23,003	35,077	61.3
부 산	597	301	128	139	2,552	3,717	6.5
광 주	228	191	59	36	244	758	1.3
대 구	790	558	158	138	1,530	3,174	5.5
대 전	368	266	42	53	303	1,032	1.8
인 천	177	312	51	70	513	1,123	2.0
울 산	47	248	46	38	579	958	1.7
경 기	793	929	168	189	2,707	4,786	8.4
강 원	174	217	41	17	375	824	1.4
충 북	115	52	24	28	313	532	0.9
충 남	70	80	30	7	137	324	0.6
경 북	111	187	54	27	332	711	1.2
경 남	196	336	70	97	732	1,431	2.5
전 북	193	218	139	42	241	833	1.5
전 남	52	223	102	30	244	651	1.1
제 주	126	143	31	10	196	506	0.9
합 계	11,305*	7,209	2,684	2,047	34,001	57,246	100.0

주 : \* 해외미술 국내전 809건(1.4%) 포함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 2010.

### 3) 문화재 현황

- 2009년 12월 기준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보호·관리되고 있는 충북의 지정문화재는 644건임

- 이중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13건, 보물 71건, 사적 19건, 명승 9건, 천연기념물 22건, 중요무형문화재 3건, 중요민속문화재 22건 등 총 159건으로 전체 국가 지정문화재 3,237건의 4.9%를 차지하고 있음
-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267건, 무형문화재 17건, 기념물 116건, 민속문화재 16건 등 416건으로 전체 시·도지정문화재 4,736건의 8.8%에 해당하고 있음
- 이외 국가 혹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인 문화재자료를 69건 보유하고 있음

**<표 3-33> 전국 및 충북지역 지정문화재 현황**

(단위 : 개)

구분	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계	국보	보물	1)	2)	3)	4)	계	유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	무형 문화재		
전국	3237	313	1,588	557	404	261	114	4,726	2,528	1,513	321	364	2,238	
충북	159	13	71	28	22	22	3	416	267	116	16	17	69	

주 : 1) 사적 · 명승 2) 천연기념물 3) 중요민속문화재 4) 중요무형문화재  
 자료 : 문화재청, 『문화재 연감』, 2010

- 등록문화재는 21건으로 전체 등록문화재의 4.6%를 점유하고 있음
  -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큰 것을 일컫는 것으로, 등록문화재 제도는 근대문화재의 무분별한 멸실을 방지하고자 2001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시행되었음
  - 등록문화재의 특징은 기존 지정제도와 달리 등록문화재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존의지에 의존하는 신고위주의 제도로서 등록문화재의 외관보존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음

**<표 3-34> 충북의 등록문화재 현황**

등록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수량·규모	등록 일자
6	내덕동 청주상고 구 본관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261	1동 1,566.3m <sup>2</sup>	2002.3.28
7	옥천 삼양리 옥천 친주교회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58-2	1동 749.3m <sup>2</sup>	2002.3.28
8	진천 읍내리 대한성공회 진천성당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29-1	1동 205m <sup>2</sup>	2002.3.28
9	문화동 우리예능원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7-3	1동 143.6m <sup>2</sup>	2002.3.28
47	추풍령역 급수탑	영동군 추풍령면	탑1기(높이)15.5m)	2003.1.28

등록 번호	문화재명	소 재 지	수량·규모	등록 일자
		추풍령리 336-1	우물1개소(용량40톤)	
55	충북도청 본관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1동 연면적 3,365m <sup>2</sup>	2003.6.30
56	대한통운 제천영업소	제천시 화산동 238-9 외 2필지	1동 연면적 201.65m <sup>2</sup>	2003.6.30
57	옥천 축향초등학교 구 교사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83	1동 연면적 264.46m <sup>2</sup>	2003.6.30
58	진천 덕산양조장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572-16	1동 연면적 347.1m <sup>2</sup>	2003.6.30
59	영동 노근리 쌍굴다리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교량 1기 (길이 24.5m, 폭 6.75m, 높이 12.25m)	2003.6.30
65	제천 엽연초 생산조합 구 사옥	제천시 명동 151-1	1동 건축면적 112.99m <sup>2</sup>	2003.9.27
144	괴산군수 관사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51	3동, 1층 연면적 : 173m <sup>2</sup> 안채(85m <sup>2</sup> ), 사랑채(39m <sup>2</sup> ) 행랑채 및 부속채(49m <sup>2</sup> )	2004.12.31
273	제천 엽연초 수납취급소	제천시 명동 151	1동(1층) 연면적 1,044.26m <sup>2</sup>	2006.9.19
297	영동 심천역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318-43, 195-1외	역사 1동 및 일곽 역사건축면적 : 148.86m <sup>2</sup> 부지면적 : 10,268m <sup>2</sup> 철로길이 : 역사 좌우측 각각 150m	2006.12.4
350	주성교육박물관 (구 청주공립보통학교 강당)	청주시 상당구 영동 48-1	1동 1층 건축면적/연면적 400m <sup>2</sup>	2007.9.21
351	대성여자중학교 (구 청주대학교) 강당	청주시 상당구 수동 396-1	1동 1층 건축면적/연면적 454.21m <sup>2</sup>	2007.9.21
352	구 충북산업장려관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4	1동 2층 연면적 429.77m <sup>2</sup> 건축면적 218.18m <sup>2</sup>	2007.9.21
353	충청북도지사 관사	청주시 상당구 수동 36-3	1동 1층 건축면적/연면적 341.82m <sup>2</sup>	2007.9.21
354	괴산중학교 구 본관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165	1동 1층 건축면적/연면적 725.06m <sup>2</sup>	2007.9.21
355	청주 동부배수지 제수변설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150	1동 1층 현황총량면적 20.9m <sup>2</sup>	2007.9.21
411	국산 1호 항공기 '부활'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136 (공군사관학교 박물관)	기장6,600, 기폭12,700 기고3,050, 중량380kg 엔진O-200, 85마력(4기통)	2008.10.01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

- 한편 문화재의 내부는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로이 변경하거나 수리수선이 가능하도록 하여 문화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lt;표 3-35&gt; 전국의 등록문화재 현황

(단위 : 개,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개수	88	10	8	5	10	17	5	26	33	21	33	45	67	27	36	21	452
비중	19.5	2.2	1.8	1.1	2.2	3.8	1.1	5.8	7.3	4.6	7.3	10.0	14.8	6.0	8.0	4.6	100

자료 : 문화재청, 『문화재 연감』, 2010.

## 2. 여건변화 및 전망

- 최근 들어 세계경제의 블록화 및 FTA 확산으로 인해 정치·경제 분야뿐 아니라 자본과 인력의 교류 확대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음
- 이러한 교류를 통해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는 문화선진국들의 문화확산에 따른 종속의 심화라는 측면과 함께 다양한 문화적인 접촉을 통해 우리의 한류문화 교류를 통해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양면적인 측면에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임
-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는 빼어난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을 통해 문화관광분야에서 새로운 소비주체 및 최대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권의 Chindia(중국, 인도)의 경우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BRICs와는 차별되는 새로운 문화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음
- 21세기는 기술혁신(Innovation)과 이에 따른 콘텐츠의 활용이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창의적 문화기반경제시대라 할 수 있는 바, 문화는 예술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국가발전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역량(Core Competence)으로 부각
- 이 경우 국가핵심역량으로서의 문화는 좁은 의미에서의 3C(Creativity, Culture, Contents)를 활용한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 분야의 정책의제화 및 전략적 육성이 시급한 실정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문화강국(C-KOREA) 2010>을 통해 창의성(Creativity)과 문화(Culture)를 바탕으로 문화·관광·레저스포츠의 다양한 콘텐츠(Contents)의 산업적 활용을 통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조기에 견인하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진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문화를 기반으로 창출한 고부가가치를 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한 '창의성(Creativity)' 개발인 바, 창의성에 기반을 둔 문화와

산업과의 접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루하는 것은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

- 타 산업에 비해 성장률과 고용효과가 높은 문화·관광·레저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Contents)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수립이 시급
- 해방 이후 문화예술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는 대략 다음의 4단계 시기로 구분해서 그 진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음

<표 3-36> 문화정책의 진화과정

起의 단계 (1945-1970)	承의 단계 (1970-1990)	轉의 단계 (1990-2010)	結의 단계 (2010-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제 유지, 홍보의 문화</li> <li>-통일, 질서, 국민 계몽</li> <li>-국가 차원의 문화 기반시설 마련</li> <li>-문화 기본법 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 성장의 뒤편에서 최소한의 문화 정책</li> <li>-향후 발전을 위한 준비 작업</li> <li>-중앙과 지방의 문화 기반 시설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 문화 욕구 증폭</li> <li>-문화 영역의 다양화</li> <li>-‘시설’에서 ‘이용’으로 문화의 국제 교류 활발 ‘이용’</li> <li>-지원, 조성의 문화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아 만족의 삶과 문화</li> <li>-문화 예술 영역의 세분화·복합화</li> <li>-정부 간여의 최소화</li> <li>-예외 사항에 대한 대처</li> </ul>

자료 : 이대희,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의 전개와 쟁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10.

- 2011년도 비전은 도민의 창의적인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도민 중심의 문화정책을 구현함으로써 이루어질 “함께 누리는 행복 문화”로 설정하여 추진 중임
- 전략목표로는 특색있는 전통·건전문화 육성에서 문화유산 원형보존 및 가치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5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음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부내륙권 중원문화의 중심지로 부각</li> <li>■ 통합적 퓨전 성격의 문화충북</li> <li>■ 자연자원과 사람에 대한 청정 이미지</li> <li>■ 사통팔달의 국가 기간교통망 결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문화에 대한 적응력 취약</li> <li>■ 중원문화권 위상과 전망 약화</li> <li>■ 문화관련 전문인력의 절대 부족</li> <li>■ 문화행정의 연속성·창의성 부족</li> </ul>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발전 동력으로서의 ‘문화’ 급부상</li> <li>■ C-Korea 2010의 비전 제시</li> <li>■ ‘감성’과 ‘이미지’의 문화경제체제 진입</li> <li>■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향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의 세계화에 따른 지역전통문화 변질</li> <li>■ 대량생산적 문화의 무차별적 확산</li> <li>■ 문화인프라 환경의 시너지 결핍</li> </ul>

### 3. 계획의 기본방향

#### 1) 문화정책성의 확립

##### □ 충북의 고유한 문화정책성 확립

- 중원문화권의 위상 재정립
- 양반문화, 선비문화의 정체성 확립
- 역사문화인물을 통한 충북의 정신사 확립

##### □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 유·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전승방안 마련
- 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남한강 유역의 문화자원 발굴
- 6대 사지(史誌) 및 충북의 문화총서 발간

##### □ 지역특화 문화권 발전전략 수립

- 운명공동체로서의 충북문화권 정립
- 직지·나제문화권 특정지역 추진
- 중원문화권 활성화 및 홍보 전략

#### 2)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 □ 문화향수 기반 구축

- 가칭 충청북도문화정보센터 운영
- 문화의 거리 재정비 및 확대 조성
-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 □ 문화복지 확충을 통한 삶의 질 고양

- 문화향수를 통한 행복지수의 향상
- 다문화활동 지원체계 구축

### 3) 문화예술의 창조력 제고

#### □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 지역별 특성을 살린 창작스튜디오 조성
- 문화예술인의 창작 지원 및 보상 시스템 구축

#### □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활성화

- 예술주체 전문교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함
- 지역내 예술단체의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4)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

#### □ 콘텐츠산업의 육성기반 마련

- 콘텐츠 발굴 및 육성체계 구축
- 충청북도 디지털문화대전 편찬 사업

#### □ 특성화된 문화지원의 콘텐츠화 사업 추진

- 김수현문화관(드라마센터) 건립 추진
- 대청호 문화콘텐츠타운 조성
- 전통 선비마을 조성

## 4. 세부 추진과제

### 1) 문화정체성 확립

#### □ 충북의 고유한 문화정체성 확립

- 중원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동시에 후손들에게 보존·전승하여 도민들의 역사의식 함양과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
- 중원문화의 위상정립을 위해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한반도 중부내륙 옛 산성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함
- 충북학연구소와 충북문화재연구원을 중심으로 중원문화의 발굴과 전승 및 활용을 통한 중원문화유산의 고부가가치 실현
- 중원문화권과 연계한 지역박물관의 홍보 및 특성화 전략을 추진함(단양 수양개 선사 유물전시관, 보은 비립박물관, 음성 세연철박물관, 한독의약박물관, 청원 잠사문화박물관, 제천 지적박물관 등)
- 영남사림과 더불어 조선 성리학의 양대축을 이루는 기호사림의 중심지로서 보은, 괴산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교관련 유적을 연계한 유교문화벨트를 구상
- 괴산군 : 송시열의 화양서원, 연풍향교와 김홍도, 김시민의 충민사 등
- 보은군 : 대곡 성운의 모현암, 충암 장암선생의 유허지, 2번째 사액서원인 상현서원, 고봉정사와 풍림정사 등
- 이들 지역을 중부권의 청학동으로서의 전통적 방식의 예절교육을 담당할 전통선비마을로 조성함
- 지역내 역사문화 인물에 대한 조명을 통해 충북의 정신사 확립
- 청원 신채호, 괴산 홍명희, 송시열 등 생가 복원 및 문학마을 건립
- 괴산 연풍의 김홍도와 관련된 역사유적지를 현대에 맞게 재구성하여 김홍도의 마을로 특화함
- 영동 난계국악의 특성화 : 영동대학교의 국악교육학과 개설, 학산 정보고등학교의 국악 고등학교로의 전환, 난계국악기체험 전수관 건립, 국악타운 조성 등
- 충주의 우륵, 영동의 박연, 옥천의 김덕수에 이르기까지 국악의 본고장임을 기반으로 현재 서울, 전북, 전남 등 3개소에만 있는 국립국악원을 지역특성에 맞게 특화하여 도내 시군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함

## □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 지역전통문화의 근간이 되는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및 지역민의 생활에 밀착한 보존 및 전승방안 마련이 시급함
- 도내 유형문화재의 콘텍스트 수집 및 정리, 유형문화재군에 대한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 지역민의 정서에 밀착한 살아있는 문화재로서 재탄생 시킴
- 타지역과의 차별화가 가능한 산성 및 남한강유역의 문화자원 활용을 극대화함
- 우선적으로는 국가 사적 및 시·도 지정 기념물 등을 중심으로 문화재위원회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등록대상이 되는 잠정목록을 설정함
-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술자문단, 문과위원회를 포함하는 추진위원회를 조직하는 한편 홈페이지 운영, 언론홍보, 산성관련 문화축제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
- 발굴 및 정비를 포함하는 삼년산성사적공원화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
- 남한강유역권에는 온달산성, 온달동굴, 태장이묘, 미륵사지 공기돌, 고구려비, 장락탑 등 유형의 고구려 문화유산과 지역 고유의 문화를 접목하여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음
- 이를 위해 역사 관련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작업 및 미디어콘텐츠 창출방안을 강구함
- 충북의 6대 사지(史誌) 및 충북의 문화총서를 발간함으로써 지역민의 충북문화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 나감
- 80년대 발간하여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한 인물지, 전설지, 문화재지, 사지, 민속지, 지명지 등 6대 사지(史誌)를 현대적 의미에 맞게 재출간함
- 지역의 유·무형 문화재, 역사문화인물, 구비문학, 팔경과 구곡문화, 전통 생활방식 등을 대상으로 한 충북의 문화총서를 발간함으로써 지역민의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 지역특화 문화권 발전전략 수립

- 일반적으로 '충북문화'라는 것은 문화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치, 경제, 행정적 개념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역사·지리적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충북 도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정체성의 기반 확립이 가능
- 충북문화, 중원문화, 서원문화, 한강유역문화, 금강유역문화에 대한 개념 정립을 통해 충북 전체의 문화권역의 관계를 재설정함
- 이를 통해 충북의 기초자치단체나 지역 전체를 균등하게 구분하는 문화지형도를 그릴 수 있게 되며, 향후 각 지역의 문화권 개발에 따른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중원문화권과 차별화되는 충북의 중부권에 직지문화권, 남부권에 나제문화권을 설정하기 위한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함
  - 청주, 청원은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을 만들어낸 고대 문화발전의 중심지이며 이는 충북 북부지역의 중원문화권과는 구별되는 문화적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차별화되는 직지문화권의 설정을 통해 청주, 청원 일대의 새로운 문화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계기로 직지문화권의 개발계획의 수립이 시급함
  - 충북 남부지역은 나제문화권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 3군의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개념적 기반 구축이 필요함
  - 하지만 나제문화는 충북 이외의 지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북 남부지역'이라는 지리적 구체성을 결합하여 문화지역을 분명하게 하고 실제 문화지역은 나제문화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 충북의 경우 충북문화라는 행정적 용어의 한계점으로 인해 그 대안으로 중원문화라는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개념은 충북 북부 지역을 지칭하는 개념적 한계가 있음
  - 1980년대 전국을 5대 문화권으로 구분할 당시 충북의 중원문화는 다른 문화권역(백제, 신라, 가야, 탐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미약한 상태로 지정된 결과 타 문화권역에 배해 상대적으로 특정적 개념을 획득하지 못함
  - 따라서 충북의 중부와 남부와 구분되는 중원문화권만의 활성화 및 홍보 전략 수립이 필요함

## 2)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 □ 문화향수 기반 구축

- 정보화시대에 부응, 충북지역 문화에 관한 다양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충북 문화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충북의 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가칭) 충청북도문화정보센터를 설립
- 타지역과 구분되는 충북지역만의 특색있는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거리문화을 창조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필요가 있음
  - 아직 문화의 거리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군에 대한 조례제정을 유도함으로써 지역민과 교감을 이루는 문화공간 구축의 단초를 마련함
- 생활예술공동체 활동은 문화향수 확산을 위한 중요한 전략임
  - 생활예술공동체의 주요한 근거지점은 생활영역이며 구체적으로는 "작은 단위로 지역

### 화 된 공동체”임

- 즉 골목문화, 동네문화, 마을공동체의 개념으로 ‘운명과 생활을 공유하는 공동사회’의 의미를 지니며 종적, 횡적으로 네트워크 된 형태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
-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흥겨운 충북문화 구축을 위한 생활예술공동체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프로그램 지원체계 구축 및 동아리활동 및 전문인 지원체계 방안을 포함하는 주민참여형 문화활동 종합대책수립이 절실히

### □ 문화복지 확충을 통한 삶의 질 고양

-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 문화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충청북도 시군별 문화행복지수 산정 및 공표가 필요함
- 분야별로 충청북도 시군별 문화행복지수를 산정, 정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문화향수를 통한 도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최근의 추세인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에 근거하여 이질성, 다양성, 혼종성에 개방된 문화사회(cultural society)로 충북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문화다양성, 다문화 시대에 대응한 도내 전역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결혼이주민, 새터민 등의 효율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체계구축이 필요함
- 다문화활동 지원체계 구축은 원 거주민들의 문화향수기회 확대 및 문화적 다양성 체험에도 크게 기여함

### 3) 문화예술의 창조력 제고

### □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 최근 창작과 향수가 통합되는 추세에 따른 복합적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지역별 특성을 살린 창작스튜디오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유휴 시설, 폐교 등을 활용한 창작 공간 조성과 지원, 예술인 마을, 창작 스튜디오 등 기존 창작 공간 운영 지원 등이 필요하며, 시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예술창작 복합센터 확보 및 운영 지원이 필요함
- 이는 폐교, 유휴 시설 등의 방치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예술가의 창작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신에 창작공간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파급효과가 지역민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음
- 문화예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창작 환경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함으

로써 지역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지역민의 문화향수와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함

- 현대예술은 창작과 향수가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복합적 문화예술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충북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음

## □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활성화

- 예술주체 전문교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역량 있는 신진 전문 예술인들이 지역 예술계의 중추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함
- 지역 대학과 연계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신진 문화예술 인력과 신장르, 예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지원을 실시함
- 현장 진입 후 빠르게 이탈하는 신진 문화예술 인력에게 창작 동기 등을 부여할 재교육이 절실하며, 한편 기존 전업 예술가에게도 새로운 창작의 모티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재교육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 전문 문화예술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관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예술단체별 균등 재정분배 방식에서 벗어난 선의의 경쟁에 기초한 차등지원 방식을 추진함
- 이를 위해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심의하고 평가할 체계 및 기구의 정비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 단체지원을 전담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4)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

### □ 콘텐츠 산업의 육성기반 마련

-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발굴을 위해 체계화된 콘텐츠 산업 발굴 및 육성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 공공기관 내 콘텐츠 전문 조직을 구성하여 콘텐츠 발굴 및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콘텐츠 산업 관련 민간기업(단체)과 공공기관의 교류보 역할을 담당하게 함
- 효율적으로 콘텐츠 자원을 개발하고 상품화하여 산업화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콘텐츠 산업 관련 민간기업(단체)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함
- 충북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의 다양한 변천사와 발전상을 총체적으로 담아낼 디지털 문화대전을 편찬함으로써 충북의 문화정보에 기초한 콘텐츠 발굴에 대한 활용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문화대전 편찬을 위한 시·군별 콘텐츠 공모 및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통합자료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한편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세대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문화매개체의 역할을 도모함

## □ 특성화된 문화자원의 콘텐츠화 사업 추진

- 최근 영화나 드라마의 매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청주출신의 대표적인 드라마 작가인 김수현의 브랜드 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문화관 또는 드라마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함
- 충청북도의 영화·드라마 관련 콘텐츠산업의 전국 대비 현 위치를 파악하고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뉴미디어 콘텐츠 마켓 선도를 위한 토대 마련
- 드라마센터 설립을 통해 영화·드라마 작가를 발굴, 양성하는 장을 마련하고 취약한 지역 미디어 콘텐츠 산업 기반을 향후 뉴미디어 콘텐츠 마켓의 중심으로 이끌 토대를 마련함
- 대청호변 청남대, 문의문화재단지와 물문화관, 벌랏한지마을, 마동창작마을, 장계관광지 등과 같은 문화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대청호 문화콘텐츠타운 조성을 추진함
- 대청호변 다양한 문화 정보를 종합하고 콘텐츠화하여 방문객과 문화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함
- 향후 충청권 문화의 중요한 축중 하나인 금강변 문화권역의 센터로서의 역할 담당
- 충북은 선비의 고장, 충효의 지역으로서 정신사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바, 특히 괴산군 을 호서사림의 본고장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문수양과 심신단련이 가능한 전통선비마을을 조성함

## 제2절 생명력 넘치는 선진형 웰빙관광충북 실현

### 1. 현황 및 문제점

#### 1) 자연관광자원 현황

##### 자연공원

- 2009년 기준 전국에는 20개의 국립공원과 31개의 도립공원, 27개의 군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충북에는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은 없이 3개의 국립공원이 존재함

<표 3-37> 국립공원 현황

(단위 : km <sup>2</sup> )				
국립공원	위 치	전체면적	지정시기	지정순위
속리산	충북(보은군·괴산군), 경북	274.5	70/03/24	6
월악산	충북(충주시·제천시·단양군), 경북	288.0	84/12/31	17
소백산	충북(단양군), 경북	322.4	87/12/14	1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기준 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재구성)』, 2010.

- 속리산국립공원과 월악산국립공원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방문객 수가 감소하나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백산국립공원은 방문객 수의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임
-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에 있어서는 3개소 모두 4~5%의 증가율을 나타냄

<표 3-38> 국립공원 방문객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증가율
속리산	1,149	1,098	1,165	1,339	1,403	5.1
월악산	620	538	622	627	722	3.9
소백산	392	356	460	426	463	4.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기준 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 2010.

## □ 산림관광자원

- 2009년 기준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133개소가 운영 중이며, 삼림욕장은 146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충북에는 3개의 국립자연휴양림과 13개의 지자체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어, 전국대비 개소 수 및 면적 비중은 각각 9.8%, 2.5%로 나타남

&lt;표 3-39&gt; 자연휴양림 현황

(단위 : km <sup>2</sup> )			
구 분	휴양림	위 치	면 적
국립 자연휴양림	속리산 밀티재	보은 장안 장재	3개소 829
	황경산	단양 대강 올산	375
	상당산성	청원 내수 덕암	275
			179
충북 자연휴양림	박달재	제천 백운 평동	13개소 2,377
	장령산	옥천 군서 금산	170
	조령산	괴산 연풍 원풍	156
	봉황	충주 가금 봉황	766
	계명산	충주 종민	174
	옥화	청원 미원 운암	363
	민주지산	영동 용화 조동	136
	소선암	단양 단성 가산	180
	수레의산	음성 생극 차곡	67
	문성	충주 노은 문성	89
	충북 알프스	보은 산외 장갑	56
	좌구산	증평 증편 울리	72
	백야	음성 금왕 백야	73
			75
	합 계	16개소	3,20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기준 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 2010.

- 산림청은 2013년까지 기존의 산림휴양 개념에 생태·문화·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보강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각 시도별로 2개소 이상 조성할 계획임
- 충북은 2010년에서 2014년 동안 국비 140억을 지원받아 증평군에 면적 402ha 규모의 좌구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할 계획임

## □ 안보관광지 및 온천관광지

- 안보관광지는 6·25 전적지 같은 전적관광자원을 발굴·개발함으로써 전후 세대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특색 있는 관광경험을 제공하려는 목적의 관광지로서 충북에는 음성의 무극전적지가 지정관광지로 지정되

어 있으며, 청원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의 관광자원화가 가능함

- 2009년 기준 전국에는 432개의 온천이 지정되어 연간 54,383천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충북은 전국의 4.4%에 해당하는 19개의 온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2,970천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용객 비중이 온천 개수의 비중보다 높은 5.5%로 나타남

## 2) 관광산업 현황

### □ 여행업

- 2009년 기준 충북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행업체는 총 287개로, 국내여행업(148개)이 국외여행업(128개)보다 1.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중 청주에 157개의 업체가 편중되어 있으며(54.7%), 뒤를 이어 충주에 44업체(15.3%), 청원에 32업체(11.1%)로 나타남
- 제천의 경우 2008년도에는 18개의 여행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2009년에는 전무하며, 괴산은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관련 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0> 여행업 현황

(단위 : 개)

구 분	충 북	청 주	충 주	제 천	청 원	보 은	온 천	영 동	증 평	진 천	괴 산	음 성	단 양
여 행 업	일반	11	6	1	-	2	1	-	-	-	-	1	-
	국 외	128	76	20	-	12	1	3	4	-	6	-	3
	국 내	148	75	23	-	18	1	3	5	1	7	-	8
합 계	287	157	44	0	32	3	6	9	1	13	0	12	10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 □ 관광숙박업

- 『2009년 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에서 조사된 2009년의 전국 관광숙박업체는 838개이며, 이를 기준으로 충북의 관광숙박업을 비교할 때 3.7% 수준에 해당함
- 시·군별로 살펴보면, 관광호텔업의 경우, 청주에 8개 업체, 충주 6개 업체, 제천에 3개 업체 순으로 등록되어 있어, 전체 23개 중 73.9%에 해당하는 17개 업체가 시 단위 기초자체에 편중되어 있음
- 가족호텔업은 충주에 1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휴양콘도미니엄업(7개소)은 충주(5개소)·제천(1개소)·단양(1개소)의 북부권에서만 운영되고 있음

&lt;표 3-41&gt; 관광숙박업 현황

(단위 : 개)

구 분		충 북	청 주	충 주	제 천	청 원	보 은	옥 천	영 동	증 평	진 천	괴 산	음 성	단 양
관 광 숙 박 업	관광호텔업	23	8	6	3	1	1	1	-	-	1	-	1	1
	수상관광호텔업	-	-	-	-	-	-	-	-	-	-	-	-	-
	한국전통호텔업	-	-	-	-	-	-	-	-	-	-	-	-	-
	가족호텔업	1	-	1	-	-	-	-	-	-	-	-	-	-
	휴양콘도, 미니업업	7	-	5	1	-	-	-	-	-	-	-	-	1
합 계		31	8	12	4	1	1	1	0	0	1	0	1	2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 관광객 이용·편의시설업**

- 2009년 충북에는 관광객이용시설업과 관련하여 청원의 1종 종합휴양업 1개소와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1개소만이 유일하게 등록되어 있음
  - 2008년의 등록 현황과 비교해 보면 단양을 근거로 한 관광유람선업 3개 업체의 부재 가 두드러짐
- 관광객편의시설업은 총 25개 업체가 관광유홍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팬션업종에 등록되어 있으며, 진천의 관광식당업(1개소), 단양의 관광팬션업(6개소)을 제외하고 청주, 충주, 제천, 청원에 분포함

&lt;표 3-42&gt; 관광객 이용·편의시설업 현황

(단위 : 개)

구 분		충 북	청 주	충 주	제 천	청 원	보 은	옥 천	영 동	증 평	진 천	괴 산	음 성	단 양
관 광 객 이 용 시 설 업	전문휴양업	-	-	-	-	-	-	-	-	-	-	-	-	-
	1종	1	-	-	-	1	-	-	-	-	-	-	-	-
	2종	-	-	-	-	-	-	-	-	-	-	-	-	-
	자동차야영장업	-	-	-	-	-	-	-	-	-	-	-	-	-
	관광유람선업	-	-	-	-	-	-	-	-	-	-	-	-	-
관 광 편 의 시 설 업	관광공연장업	-	-	-	-	-	-	-	-	-	-	-	-	-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1	-	-	-	1	-	-	-	-	-	-	-	-
	계	2	0	0	0	2	0	0	0	0	0	0	0	0
	관광유홍음식점업	7	5	1	1	-	-	-	-	-	-	-	-	-
	외국인전용유홍음식점업	-	-	-	-	-	-	-	-	-	-	-	-	-
관 광 편 의 시 설 업	관광식당업	6	-	3	-	2	-	-	-	-	1	-	-	-
	시내순환관광업	-	-	-	-	-	-	-	-	-	-	-	-	-
	관광사진업	-	-	-	-	-	-	-	-	-	-	-	-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	-	-	-	-	-	-	-	-	-	-	-
	관광도속주판매업	-	-	-	-	-	-	-	-	-	-	-	-	-
계		25	5	4	7	2	0	0	0	0	1	0	0	6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 □ 국제회의 및 유원시설업

- 국제회의업은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으로 분류되며, 충북에는 국제회의기획업체만 청주시에 2개소 등록되어 있음
- 충북의 유원시설업 15개소 가운데,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종합유원시설업은 2개소,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일반유원시설업은 7개소,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은 6개소로 나타남

&lt;표 3-43&gt; 유원시설업 현황

구 분		충 북	청 주	충 주	제 천	청 원	보 은	옥 천	영 동	증 평	진 천	괴 산	음 성	(단위 : 개) 단 양
유 원 시 설 업	종합유원시설업	2	1	-	-	-	-	1	-	-	-	-	-	-
	일반유원시설업	7	1	1	2	1	-	-	-	-	-	-	-	2
	기타유원시설업	6	1	-	3	-	-	-	-	-	-	-	2	-
합 계		15	3	1	5	1	0	1	0	0	0	0	2	2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 3) 관광객 및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 2009년 기준 충북의 주요관광지 방문객수는 43,598,15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국의 6.0%에 해당함
- 2005년 이후 최근 4년간 충북도내 관광지 방문객 증가율은 약 6.2%로 전국 2.3%의 2.7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9년 기준 충북의 전체 관광객 가운데 제천을 방문한 관광객이 8,749,250명으로 집계되어 2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8,500,162명의 단양이 19.5%, 6,018,065명의 충주가 13.8%로 나타나 북부권의 3개 시·군이 나란히 최상위에 위치함
- 그러나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최근 4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영동이 65.5%의 증가율로 타 지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있으며, 괴산 22.3%, 증평 22.0%, 옥천 9.1% 순으로 나타남
- 이를 비중 면에서 상위에 위치한 북부권 3개 시·군의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해 볼 때 (제천 8.7%, 단양 3.8%, 충주 -3.6%) 충주호반과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행태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음

&lt;표 3-44&gt; 충북의 시군별 주요관광지 방문객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충북 대비	연평균 증가율
청주시	2,293,491	1,558,897	1,577,293	1,333,324	1,481,270	3.4	-10.4
충주시	6,981,906	5,478,573	6,306,071	6,062,078	6,018,065	138	-3.6
제천시	6,259,360	6,436,954	6,596,815	7,557,797	8,749,250	201	8.7
청원군	3,609,321	3,413,541	3,761,475	4,139,127	4,769,993	10.9	7.2
보은군	1,473,560	1,602,540	1,571,022	1,644,057	1,667,607	3.8	3.1
옥천군	2,171,192	2,780,538	2,723,186	2,856,471	3,080,793	7.1	9.1
영동군	424,340	465,949	2,301,978	2,914,030	3,180,778	7.3	65.5
증평군	491,218	930,074	952,499	1,014,951	1,088,744	2.5	22.0
진천군	1,014,353	1,059,288	1,186,777	1,368,091	1,369,016	3.1	7.8
괴산군	1,185,820	1,457,919	1,747,225	2,139,627	2,656,099	6.1	22.3
음성군	987,720	1,360,230	1,377,724	1,350,050	1,036,378	2.4	1.2
단양군	7,317,946	6,578,654	7,254,716	8,289,039	8,500,162	19.5	3.8
충 북	34,210,227	33,123,157	37,356,781	40,668,642	43,598,155	100	6.2
전 국	668,616,520	679,277,185	686,583,017	738,534,182	733,241,929	-	2.3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재구성)

- 한편, 전문적인 관광안내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육성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경우, 2011년 2월 기준 162명이 충북의 12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문화관광 허브 사이트를 통해 문화관광해설사 예약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4) 관광개발 현황

##### □ 지정관광지

- 2009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지정관광지는 230개소이며, 충북에는 23개소의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어 전국대비 10%를 차지함
- 충북의 관광지는 충주·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음성·단양 등 8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음
  - 이 가운데 제천시가 7개소로 가장 많은 지정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어 충주시 5개소, 단양군 3개소, 보은·영동·괴산군 각 2개소, 옥천·음성군 각 1개소 순으로 나타남
- 상위 3개 시·군이 모두 속하는 북부권에 15개소의 관광지가 집중되어 있어 65% 이상의 비중을 보이는 반면, 청주·청원의 중부권에는 지정관광지가 전무함

&lt;표 3-45&gt; 지정관광지 현황

(단위 : m<sup>2</sup>)

구분	관광지명	위치	관광지지정		조성계획승인		지정면적	
			최초일	변경일	최초일	변경일	최초면적	변경면적
			충청북도			23개소	6,454,898m <sup>2</sup>	
충주 (5)	세계무술공원	충주시 칠금동	89/11/25	08/01/28	89/11/25	08/01/28	171,000	262,000
	충온온천	양성면 돈산리	89/12/14	08/10/01	90/06/11	08/10/01	291,470	224,825
	능암온천	양성면 능암리	89/12/14	99/04/09	90/06/08	10/06/11	199,210	199,210
	돈산온천	양성면 돈산리	95/07/28	-	96/05/06	03/05/27	876,556	876,556
	충추호체험	가금면 탑평리	04/08/13	10/03/29	04/08/13	10/03/29	31,943	223,134
제천 (7)	교리	청풍면 교리	89/12/28	04/12/24	89/12/28	08/10/24	332,118	333,519
	능강	수산면 능강리	97/06/27	03/04/11	98/06/05	08/12/19	137,239	136,818
	금월봉	금성면 월굴리	98/05/29	-	98/12/04	08/08/14	88,119	88,119
	계산	청풍면 계산리	98/07/24	-	05/01/13	08/12/26	135,806	135,806
	제천온천	수산면 내리	02/01/16	-	06/05/09	-	296,700	296,700
	만남의 광장	청풍면 교리	04/08/13	-	04/08/13	10/08/20	147,440	147,440
	KBS제천촬영장	금성면 성내리	04/08/13	-	04/08/13	08/10/24	111,060	111,060
보은 (2)	속리산레저	속리산면 상·중관리	96/10/04	97/05/09	07/06/22	-	135,254	130,191
	구병산	마로면 적암리	07/08/31		08/09/19		149,256	149,256
옥천 (1)	장계	안내면 장계리	86/06/07	-	86/10/22	10/05/04	198,705	198,705
영동 (2)	송호	양산면 송호리	77/10/31	99/09/17	87/07/08	98/06/05	355,000	292,231
	늘머니 과일랜드	영동읍 매천리	09/05/22	-	10/10/08	-	1,784,827	1,790,835
괴산 (2)	수옥정	연풍면 원풍리	95/12/08	00/03/07	96/07/19	07/10/04	230,000	229,469
	괴강	괴산읍 검승리	00/12/29	-	04/03/05	07/08/03	238,132	238,132
음성 (1)	무극전적	음성읍 소여리	85/06/08	-	85/09/13	94/01/18	18,481	18,499
단양 (3)	천동	단양읍 천동리	69/01/21	99/09/17	85/12/02	09/09/14	120,982	120,982
	다리안	단양읍 천동리	69/01/21	99/09/17	85/12/02	09/09/14	153,835	153,835
	온달	영춘면 하리	94/09/06	-	95/04/28	08/12/26	97,011	97,576

주 : 2010년 11월 기준

자료 : 각 자자체 내부자료, 2010

## □ 관광특구

- 2009년 기준 관광특구는 전국 13개 시·도에 26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충북에서는 수안보온천, 속리산, 단양 등 3곳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음

&lt;표 3-46&gt; 관광특구 현황

(단위 : km <sup>2</sup> )				
구 분	관광특구명	지정지역	면 적	지정시기
충 주	수안보온천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안보리 일원	9.22	97/01/18
보 은	속 리 산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상판리, 중판리, 갈목리 일원	43.75	97/01/18
단 양	단 양	단양군 단양·매포읍 일원(2개읍 5개리)	4.45	05/12/3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기준 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 2010.

&lt;표 3-47&gt; 관광특구 관광자원 현황

관광특구	구 분	내 용	개소수
수안보온천	자연관광자원	온천(1)	1
	시설관광자원	관광숙박업(6), 관광객이용시설업(6), 관광객편의시설업(114)	126
	관광시설	공공편익시설(38), 관광안내시설(15), 숙박시설(31), 휴양·오락시설(31), 접객시설(115), 상가시설(7)	237
속리산	자연관광자원	국립공원(1), 천연기념물(2)	3
	인문관광자원	도지정문화재(16), 사적 및 명승(1)	17
	시설관광자원	관광숙박업(1)	1
단양	관광시설	공공편익시설(17), 관광안내시설(23), 숙박시설(3), 접객시설(160), 상가시설(42)	245
	자연관광자원	자연공원(2), 자연동굴(3), 유람선(1)	6
	인문관광자원	문화재(58), 문화관광축제(2)	60
	시설관광자원	여행업(8), 관광숙박업(2), 관광객편의시설업(6)	16
	관광시설	공공편익시설(11), 관광안내시설(33), 숙박시설(2), 휴양·오락시설(10), 접객시설(18), 상가시설(4)	78

자료 : 각 시·군 내부자료, 2010.

&lt;표 3-48&gt; 관광특구 방문객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수안보 온천	내국인	2,369,767	2,439,597	3,310,509	2,756,644	2,052,002	-3.5
	외국인	45,231	22,142	10,336	11,126	14,912	-24.2
	합 계	2,414,998	2,461,739	3,320,845	2,767,770	2,066,914	-3.8
속리산	내국인	1,461,409	1,592,977	1,558,983	1,559,865	1,670,305	3.4
	외국인	12,151	9,563	12,039	14,192	15,229	5.8
	소 계	1,473,560	1,602,540	1,571,022	1,574,057	1,685,534	3.4
단양	내국인	6,920,808	6,229,794	6,898,515	7,921,489	8,054,127	3.9
	외국인	314,658	348,860	356,201	367,550	446,045	9.1
	소 계	7,235,467	6,578,654	7,254,716	8,289,039	8,500,172	4.1

자료 : 각 시·군 내부자료, 2010.

## □ 축제

### 가. 문화관광축제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97년부터 선정해 온 문화관광축제에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57개의 축제가 선정되었으며, 충북은 우수축제로 영동난계국악축제와 유망축제로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지정됨
  - 전체 57개의 문화관광축제 가운데 충남이 8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 강원도 7개, 전남·경남 6개, 경기·경북 5개, 전북 4개, 제주 3개, 충북 2개의 순으로 나타남

&lt;표 3-49&gt; 충북의 문화관광축제 결과

(단위: 명, 백만원)

축 제	지정 구분	기간	관광객수			경제효과
			계	내국인	외국인	
영동난계국악축제	우수	09/4~8	403,075	401,670	1,405	12,935
충주세계무술축제	유망	신종플루로 인한 축제 취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기준 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 2010.

### 나. 지역축제

- 2010년 3월, 16개 시도에서 제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축제 자료에 의하면 충북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는 총 51건으로, 전국 823건의 6.2%에 해당함

- 기초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이 2~4건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반면, 충주시와 보은군이 각각 7건으로 13.7%를 차지함
  - 옥천군·영동군·괴산군·음성군·단양군 각 4건(7.8%)
  - 제천시·청주시·청원군 각 3건(5.9%)
  - 진천군·증평군이 각 2건(3.9%)을 개최함
- 시기적으로 충북의 지역축제는 8~10월에 집중 분포(30건, 58.8%)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10월에만 14건(27.5%)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겨울철인 12~2월에는 3건의 축제로 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계절 축제화를 위한 개최시기의 조절과 차별화가 필요함

&lt;표 3-50&gt; 전국 지역별 축제수 및 비중

(단위 : 건·%)

지역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합계
축제수	69	44	24	23	13	16	21	93	
비중	8.4	5.3	2.9	2.8	1.6	1.9	2.6	11.3	
지역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23
축제수	93	51	76	62	34	51	122	31	
비중	11.3	6.2	9.2	7.5	4.1	6.2	14.8	3.8	100.0

주 : 2010/3/5 현재 16개 시도에서 제출한 지역축제 자료를 종합한 것임

자료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기준 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 2010.

## 2. 여건변화와 전망

- 세계관광의 대략적인 미래 트렌드의 특징으로는 아시아(중국 및 인도)의 부상, 저비용 항공의 활성화, 국가간 관광협력 및 경쟁, 노년관광층 증가, 녹색관광과 지속가능한 개발, 글로벌화 및 지역화의 공존, 관광소비지출의 규모 확대, 고유성(이벤트, 음식 등)의 증시, 관광시장의 세분화, 온라인 관광활성화 등으로 요약됨
- 한편 통상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 부머 세대는 그 규모와 소비력 측면에서 마케팅 전략 수립의 기준이 되는 바, 이들이 은퇴를 시작하는 2010년은 한국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체감도가 급상승하는 기점임
- 조기퇴직으로 인해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고령인구는 점차 활동성이 높은 시니어와 최고령의 핸디캡 단계의 고령인구로 분화되고 있음
- 특히 활동적인 시니어의 경우 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제와 복지 성장에 기여하고, 자율적인 삶과 자기실현의 욕구가 매우 강한 특징을 지님
- 충북의 경우 관광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백두대간 등 수려한 자연자원과 삼국의 접경지

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산성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관광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특히, 충북의 대표 관광지였던 보은속리산권은 북부의 충주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해 있는 실정임

- 한편 주5일 근무제의 확대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대, 모험관광, 생태관광, 문화·테마관광, 녹색관광 등 새로운 관광트랜드의 변화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한 가족단위 관광객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수도권의 ‘가족단위 체험형 문화관광객’의 유입을 겨냥한 관광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과의 접근성 양호</li> <li>■ 자연자원과 사람에 대한 청정 이미지</li> <li>■ 사통팔달의 국가 기간교통망 결절지로서 접근성 양호</li> <li>■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청주국제공항의 입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 대표 문화권인 중원문화권의 위상과 전망 약화</li> <li>■ 관광개발의 권역별 편중 현상</li> <li>■ 지역 내 관광인프라 시설 낙후 및 규모의 영세성</li> <li>■ 관광행정의 연속성·창의성 부족</li> </ul>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정책 기조 변화로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 고조</li> <li>■ 2010대충청방문의 해 및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홍보 강화</li> <li>■ 행정복합도시 세종시 건설로 새로운 배후시장 확보</li> <li>■ 중부신도시 조성 가속화로 청장년층과 가족 단위 인구유입 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행콘텐츠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인한 독창성 결여</li> <li>■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국내·외 경쟁 및 견제 심화</li> <li>■ 환경규제 및 토지이용규제 강화로 인한 관광개발 제약</li> <li>■ 주변 지자체의 대규모의 하드웨어 관광개발 사업계획 추진</li> </ul>

### 3. 계획의 기본방향

- 21C 신개념 관광개발방향 정립
  -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관광체계 구축
  - 충북형 생태녹색관광, 테라피관광, 문화관광 개발방향 정립
- 권역별 거점관광 활성화 추진
  - 권역별 특화 전략 수립(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특구 활성화

-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산업관광 추진
  - 특색있는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화
  - 관광자원 발굴 및 스토리텔링
  - 웰빙·체험·가족형 관광상품 개발
  - 지역문화콘텐츠의 관광자원화로 관광매력도 제고
  - 관광지원체계 확립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 관광 전문인력 양성화 체계 구축
    - 효율적인 관광홍보 방안 마련

## 4. 세부 추진과제

### 1) 21세기 신개념 관광개발방향 정립

####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관광체계 구축

- 최근의 관광트렌드 변화를 살펴보면 물량 위주의 대량공급 형태의 관광패턴에서 벗어나 점차 문화의 다양성을 접목한 다품종 소량생산적 관광이 경험적인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관광패턴에 적응하여야 함
  - 즉 관광시장에서도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기 용이한 보다 유연한 형태의 시장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관광시장의 형태변화에 따라 도보여행, 마음치유여행, 자연 및 동물생태체험, 역사탐험, 종교여행 등 체험하는 관광소비 형태와 함께 그린슈머(Greensumer), 생태탐방로, 슬로시티 등 친환경적 관광활동이 나타나고 있음
- 뉴 시니어(new senior) 핵심 관광소비계층으로의 부상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관광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임
  - 경제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은퇴한 노령인구를 지칭하는 뉴 시니어 층이 관광소비의 핵심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과 여가관광복지적 측면에서 새롭게 실버관광정책을 재정립하여야 함
  - 웰빙, 헬스케어에 관심이 많은 세대로 의료관광, 헬스관광에 대한 폭넓은 기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며, 단순히 은퇴한 노년계층을 위한 기존의 관광프로그램에서 탈피한 사회복지 차원의 새로운 형태의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 충북형 생태녹색관광, 테라피관광 등 중장기 관광개발방향 정립

- 소백산에서 속리산을 거쳐 영동의 민주지산, 삼도봉을 잇는 백두대간 민족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함
  - 백두대간을 주축으로 하여 주변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함으로써 특히 충북내방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및 영남권의 관광객 유치전략을 수립함
- 충북을 대표할만한 웰빙관광 자원인 제천한방~괴산산막이옛길~증평인삼~초정약수로 이어지는 테라피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홍보함
  - 한방의 과학화, 세계화로 전통의약의 메카로서 제천의 위상을 선점하기 위해 전통 한방과 에코세라피를 결합한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산업 육성을 위한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함
  - 중부권 최대의 인삼재배지인 증평지역을 금산 인삼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증평 발효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홍보를 위한 산학간 연계, 기존 인삼축제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 세계 3대 광천수인 초정약수지구의 귀중한 자연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난개발을 막기 위한 지하수보존 장기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2011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전략의 기초가 될 초정지구관광단지의 조성을 추진함
  - 이러한 천혜의 웰빙 자원을 IT산업과 BT산업에 접목, 과학화함으로써 중장년층만이 아닌 가족단위 관광객의 유치에도 힘써야 함
  - 한편 장기적으로는 청주국제공항 및 오송의료과학단지를 활용한 의료관광 관련 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함

## 2) 권역별 거점관광 활성화 추진

### □ 권역별 특화전략 수립

- 충북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3개의 권역별로 북부권(충주, 제천, 단양)은 수변·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중부권(청주,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은 바이오·웰빙관광의 중심지,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은 녹색·생태관광의 중심지로 특화시킴

&lt;표 3-51&gt; 권역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사업

권역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북부권 (충주, 제천, 단양)  수변문화 관광의 중심지	수변 자원을 활용한 수상·레저(레포츠) 휴양타운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양 수상레포츠타운(수중보 중심) 개발, 중원종합 휴양 레저타운 조성</li> <li>- 2013 조정선수권 대회 및 세계무술축제의 성공적 추진</li> </ul>
	중원문화유산을 활용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구려 테마파크 조성, 난한강 목개나루 문화마을조성</li> <li>- 이야기 책자 발간, 드라마 유치, 사찰음식 개발 등</li> </ul>
	충주호와 온천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안보 관광특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거리.즐길거리 : 박물관·주차장·스파로드 조성, 온천체 개최 등</li> <li>· 연계상품개발 : 미륵사지, 하늘재, 인근마을(봉화, 곤충, 약재) 등</li> </ul> </li> <li>- 앙성, 돈산, 문강 온천 특성화 : 관광상품 개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li> <li>- 충주호 주변 관광 활성화 : 수변자원과 온천을 연계한 상품 개발</li> </ul>
중부권 (청주,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바이오·웰빙관 광의 중심지	오송, 오창, 초정약수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관광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정약수 새정비, 신규시설(노화방지센터) 설치 등</li> <li>- 대규모 바이오시설 조성 및 유치</li> <li>- 괴산 자연자유휴양복합단지, 증평 웰빙공원 조성 등</li> </ul>
	중부권 거점 관광지 조성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남대 관광활성화 : 대통령 테마공원, 야간개장, 이벤트 등</li> <li>- 무심천 수변관광시설 : 생태하천, 야경, 꽃길, 나리조형물 등</li> <li>- 상징물(랜드마크)조성, 가로수길 공원화(광장, 포토존)</li> <li>- 밀레니엄타운 관광시설 집적화</li> <li>- 해양수산문화체험관, 스포츠시설 등</li> </ul>
	가족형 휴양·휴식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공원 조성 및 명품길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청호 둘레길, 200리 선유길, 청주옛길(산성길) 등</li> <li>· 유명 인물 마케팅으로 관광명소화</li> <li>· 운보의 집, 음성 반기문 생가 마을, 신채호 사당 등</li> </ul> </li> </ul>
	스포츠·드라마(한류)· 산업·바이오(의료) 관광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대표선수촌 연계로 세계 대회, 전국대회 유치</li> <li>- 카인과 아벨, 제빵왕 김탁구의 후속 드라마 유치</li> <li>- 산업·바이오·의료 관광(바이오밸리, 솔라밸리 연계) 개발</li> </ul>
남부권 (보은, 옥천, 영동)  녹색생태 관광의 중심지	속리산을 중심으로 한 녹색관광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류형 치유·휴양관광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은 바이오메디컬 휴양지 : 클리닉센터, 종합스파시설, 노천탕 등</li> <li>· 신정자구 개발 : 리조트,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li> </ul> </li> <li>- 휴양·레저 및 스포츠사업 발굴 및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li> <li>· 소나무 전시관 주변 개발(도깨비 축제 확대, 도깨비공원)</li> <li>· 구병산 관광시설 개발(케이블카 등)</li> <li>· 도깨비 축제 특화사업 추진(축제 세계화)</li> <li>· 삼년산성 고분군 개발 등(나재 문화 유적 개발)</li> </ul> </li> </ul>
	산촌·생태 체험 여행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한옥 체험(선병국, 춘주민속관 / 전통문화 및 음식체험)</li> <li>- 농촌생활(보은), 포도따기, 포도주 체험(옥천, 영동)</li> <li>- 영동 늘머니파일랜드 조성, 향수30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등</li> </ul>
	문화예술·스포츠 관광의 매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인 정지용·오장환과 연계한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생가, 향수와 바람길(대청호) 조성, 상품개발</li> </ul> </li> <li>- 국악체험여행 및 대중교통수단 활용한 와인테마여행</li> <li>- 불교·동학문화 개발(사찰음식, 불교문화페스티벌, 동학유적지 등)</li> <li>- WK리그 전지훈련단 유치 등 스포츠 관광 추진</li> </ul>

## □ 관광인프라 확충

- 시군별 대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인프라 확충

<표 3-52> 시·군별 대표 관광자원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시군별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계	공공	민자	
계	35개 사업	5,202,334	889,736	4,312,598	
청주시 (3개)	소 계	271,260	271,260	-	
	청주 수상 레저타운 조성	60,000	60,000	-	'14 ~
	밀레니엄타운내 불거리 조성 · 해양수산문화체험관 건립	160,000	160,000	-	'12~' 14
	청주 상징조형물 설치	51,260	51,260	-	'11~' 15
충주시 (4개)	소 계	569,580	142,480	427,100	
	중원종합 휴양레저타운 조성	200,000	10,000	190,000	'12~' 19
	충주 세계무술공원관광지 조성	348,080	115,580	232,500	'10~' 19
	고구려 테마파크 조성	15,400	10,800	4,600	'13~' 20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	6,100	6,100	-	'11~' 13
제천시 (2개)	소 계	172,557	92,257	80,300	
	제천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28,252	24,952	3,300	'12~' 15
	청풍호중심 관광지 조성 · 수상항공 및 수상레저 사업 · 친환경 한방바이오월드 조성 · 녹색관광마을 및 그린케이블카	144,305	67,305	77,000	'10~' 15
청원군 (3개)	소 계	45,000	45,000	-	
	청남대 관광활성화	25,000	25,000	-	'11 ~
	초정관광지 조성 및 활성화	15,500	15,500	-	'09~' 17
	청석굴 관광명소화	4,500	4,500	-	'11~' 13
보은군 (3개)	소 계	445,315	16,715	428,600	
	바이오메디컬 휴양지 조성	73,445	16,045	57,400	'10~' 14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	371,200	-	371,200	'11~' 15
	삼년산성 고분군 체험장 조성	670	670	-	'12~' 13

시군별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계	공공	민자	
옥천군 (3개)	소 계	18,984	18,984		
	육영수기념관 건립	13,000	13,000	-	'11~' 14
	향수 테마·문학공원 조성 · 지용문학공원 및 테마공원 조성	4,000	4,000	-	'13~' 14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1,984	1,984	-	'10~' 14
영동군 (3개)	소 계	518,980	139,380	379,600	
	영동 늘머니파일랜드	285,000	67,000	218,000	'03~' 14
	국악과 와인이 융합된 단지 조성 · 국악체험촌 및 와인테마타운 조성 · 비단물길 와인테마마을 조성	72,680	49,680	23,000	'09~' 17
	백화산 관광지 조성	161,300	22,700	138,600	'15~' 17
증평군 (2개)	소 계	165,558	21,100	144,458	
	증평 애듀팜특구 조성	157,558	13,100	144,458	'09~' 13
	율리 웰빙공원 조성	8,000	8,000	-	'11~' 13
진천군 (4개)	소 계	1,513,400	43,100	1,470,300	
	진천 백곡-초평호 네트워킹 구축	12,200	12,200	-	'10~' 13
	도농복합휴양단지 조성	1,462,800	-	1,462,800	'10~' 15
	종교유적지 관광자원화(진천, 음성)	29,400	21,900	7,500	'12~' 15
괴산군 (3개)	소 계	9,000	9,000	-	'12~' 14
	괴산 웰빙·휴양타운 조성 · 산행유정마을 조성 · 자연치유 휴양복합단지 조성	217,350	57,350	160,000	
	문광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193,150	33,150	160,000	'12~' 16
	문광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5,000	5,000	-	'11~' 14
음성군 (2개)	소 계	19,200	19,200	-	'12~'
	음성 반기문 테마관광지 조성	950,000	32,200	917,800	
	맹동저수지 관광단지 조성	50,000	32,200	17,800	'11~' 16
단양군 (3개)	소 계	900,000	-	900,000	'11~' 20
	단양 종합리조트 조성	314,350	9,910	304,440	
	단양 수상 레포츠타운 조성	212,840	-	212,840	'09~' 13
	소백산 정감록 명당체험마을 조성	92,010	410	91,600	'09~' 15

- 권역별 신개념 숙박시설 조성계획을 추진

&lt;표 3-53&gt; 권역별 숙박시설 조성계획

권역별	숙박시설 조성계획
북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주 : 세계부술공원 콘도, 호텔(32만m<sup>2</sup>, '10~' 19) 중원휴양레저파크 펜션, 콘도(100만m<sup>2</sup>, '12~' 19)</li> <li>· 단양 : 단양종합리조트(21동 252실, '09~' 13)</li> </ul>
중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주 : 상당산성 주변 한옥마을 조성(50동, '12~' 17)</li> <li>· 증평 : 남하리 민속체험박물관 주변(5,267m<sup>2</sup>) 도안면 「에듀팜특구」 가족호텔</li> <li>· 괴산 : 칠성 송동리일원 리조트시설(50만m<sup>2</sup>)</li> <li>· 음성 : 맹동저수지 관광단지내 숙박시설 ※ 청원 : 청남대 인근 리조트 조성 등 타당성 검토</li> </ul>
남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은 : 신정지구(390만m<sup>2</sup>, '07' ~ '13) 알프스 자연휴양림(14동, '06~' 13)</li> <li>· 옥천 : 오토캠핑장(3만m<sup>2</sup>, '14~' 16)</li> <li>· 영동 : 늘머니파일랜드 펜션, 콘도(170만, '03~' 14)</li> </ul>

## □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

&lt;표 3-54&gt;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및 내용

구 분	사업명	세부내용
수 안 보 관광특구	“왕의 온천” 으로 이미지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욕실 등 왕의 온천장 설치</li> <li>- 온천체를 “왕의 온천” 이미지에 맞도록 추진</li> </ul>
	기존시설 리모델링 및 주변 관광상품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와이키키 리모델링 및 테마파크 조성</li> <li>- 유휴온천(낙천장, 대람호텔, 크라운호텔, 사이판호텔) 연계 개발</li> <li>- 인근 농촌·사촌마을(봉화, 곤충, 약재) 연계 상품개발</li> </ul>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박물관, 온천 막걸리타워 조성</li> <li>- 테마 족족체험공간 설치</li> <li>- 석문동천 고향의 강 조성 및 평 상징조형물 설치</li> </ul>
	인근 관광지 연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오개지구, 문강·돈산·양성온천 체험코스, 하늘재·월악산·조령산 등 등산코스와 연계 추진</li> </ul>
속 리 산 관광특구	불교문화 자원을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주사 템플스테이 추진(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li> <li>- 중·장기적으로 불교문화엑스포 개최 추진 검토</li> </ul>
	신규 관광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검토</li> <li>- 솔향공원 주변 스카이바이크 설치(특구 활성화사업)</li> <li>- 상판지구 고향의 강 정비사업</li> </ul>
	속리산 도깨비 활용 관광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 아시아도깨비 조각 비엔날레 개최</li> <li>- 속리산 도깨비 페스티벌 개최</li> <li>- 콘텐츠 개발(도깨비영화, 관광상품, CI개발 등)</li> </ul>
	인근 관광자원 연계 관광상품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티재 휴양단지, 삼년산성 고분군 체험장 등</li> <li>- 종합레저타운 시설인 신정지구</li> <li>- 구병산관광지, 충북 알프스자연휴양림(산외면 장감리) 등</li> </ul>

## □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산업관광 추진

-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관광산업 부문의 선도사업을 권역별로 추진함으로써 관광과 산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함
- 북부권에는 대포읍 현대시멘트공장 부지내에 '단양 카르스트 산업관광 특화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단양팔경과의 연계방안을 도모함
  - 단양지역이 중부내륙권 최고의 카르스트 지대라는 특성, 현대시멘트 워크아웃후 폐 채석장부지를 친환경 골프장으로 조성사례,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특화시설, 녹색레포츠 및 휴양체험시설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테마임
- 중부권에는 오송 또는 밀레니엄타운내 '충북 바이오 테마전시관' 설립을 검토함
  - 바이오 전시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KTX 오송역개통, 바이오밸리(오송-음성-옥천)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산업관광 상품이 될 것임
- 남부권에는 송호리 송호관광지 주변 '영동 샤또마니 와인박물관'을 건립함
  - 영동의 대표산업인 포도, 와인산업을 금강변의 송호관광지, 난계국악타운, 양산팔경등과 연계함으로써 차별성 있는 산업관광지로 개발함
  - 와인만들기 체험 및 시음이 가능한 와인아카데미 설치, 와인관련 용품 및 공예품 전시

## 3) 관광자원 발굴 및 스토리텔링사업 추진

### □ 관광자원 발굴 및 스토리텔링

- 도내 관광자원조사 및 발굴자원의 관광상품화
  - 관광지는 물론 관광지 주변의 이야기 소재를 간직한 전통시설, 대물림 명인, 명소, 기관·단체별 보유한 볼거리, 자랑거리 등을 포함한 콘텐츠 중심의 관광자원 일제조사 실시
  - 발굴된 자원의 지역별 관광상품화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한 통합관광사이트 구축
- 관광자원별 스토리텔링화 사업 추진
  - 지역·소재별, 테마·분야별 스토리텔링 소재발굴 및 정리
  - 스토리텔링 아이디어 공모전, 문화관광해설사 대상 스토리텔링 경연대회 개최
  - 발굴된 스토리텔링의 DB화 및 시스템 구축

### □ 웰빙·체험·가족형 관광상품 개발

&lt;표 3-55&gt; 웰빙 체험 가족형 관광상품 및 세부내용

상품명	세부내용
바이오 휴양밸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 산림치유·휴양·관광 밸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치유센터, 숲속요양시설, 산림레포츠단지 등</li> </ul> </li> </ul>
리모밸리(Rimovalley)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변과 산을 활용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품 박물관, 폭포(수력발전), 수상레저관광단지 등</li> </ul> </li> </ul>
AM7 충북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일 오전7시 수도권에서 충북으로 여행하는 상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여행사 선정, 모객 및 예약, 관광상품 운영</li> </ul> </li> </ul>
놀토에 떠나는 체험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서속 내용을 주제로 학생·학부모의 체험상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서속에 등장하는 내용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li> <li>- 지리적으로 가까운 수도권 학습지(논술)와 연계 체험 홍보</li> </ul> </li> </ul>
가족과 함께 떠나는 충북문화 나들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적과 관광명소를 함께 둘러보는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방식 : 주말에 자가용을 이용한 투어</li> <li>- 프로그램 : 농촌체험, 문화유적지 탐방 등</li> </ul> </li> </ul>
국악과 와인으로 가는 열차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흥겨운 국악과 와인을 테마로 오감만족체험상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악체험전수 : 국악연주 및 국악기 제작 체험</li> <li>- 와인열차 : 나만의 와인 만들기, 와인족욕 등 웰빙체험</li> </ul> </li> </ul>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진 명품길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주옛길, 충주호 명품길, 남별 둘레길, 중원문화길, 청풍물길 100리 탐방로, 청풍호자드락길, 대청호 둘레길, 대통령길(둘레길) 운영, 향수바람길, 향수자전거길, 과거길(쾌방령), 거북이별보러가는길, 천년의 신비길, 200리 선유길, 남한강 녹색길(느림보 강물길), 대청호 오백리길 등</li> </ul>

#### □ 지역문화콘텐츠의 관광자원화로 관광매력도 제고

- 속리산 지역에 전승하고 있는 도깨비 관련 설화는 시대를 뛰어넘어,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울고 웃는 희로애락이 스며있는 차별화된 콘텐츠 자원이 될 수 있음
  - 도깨비 설화의 발굴 및 콘텐츠 작업, 도깨비 브랜드 연구개발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초기단계의 속리산 도깨비축제에 대한 홍보 및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장기적으로 도깨비 박물관과 민속촌 설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충북은 경상도와 구분지어 주는 백두대간 중심의 고갯마루 명소화 사업을 통해 방문객에게 충북만의 친근하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제공함
  - 충북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의 중심지인 한편 동남쪽으로 소백산맥, 북서로는 차령산맥이 지나고 있어 박달재와 추풍령, 말티재와 같은 여러 고갯마루가 잘 발달되어 있음
  - 고갯마루 주변의 다양한 문화자산을 콘텐츠화 함으로써 충북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 영남사람과 대비되는 호서사람의 전통을 전승한 선비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충북의 고유한 정체성에 근간을 둔 교육 및 체험관광의 장을 마련함
  - 충북은 선비의 고장, 충효의 지역으로서 정신사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바, 현대적 관점에서 선비문화를 재조명함으로써 정신문화 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정신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을 통한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함
  - 호서사람의 전통을 계승한 학문수양과 심신단련이 가능한 전통선비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독자성과 전통성을 살리는 한편으로 미래세대에게 바람직한 인성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함
- 대표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위한 우수 지역축제 개발 및 중점지원
  - 현재 충북은 충주의 무술축제와 영동의 난계국악축제만이 최우수축제와 우수축제에 지정되어 매년 국비 지원을 받고 있으나, 대표축제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무술축제에서의 택견이 차지하는 위상 미약, 난계축제에서 국악만의 특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는 현황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지역의 독창성에 근간을 둔 새로운 형태의 축제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 **4) 관광지원체계 확립**

#####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 중국, 일본, 방콕으로 한정된 정기노선을 동남아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국제노선의 다변화 확대방안 추진
  - 부정기노선의 적극적인 도입 및 저비용 항공사(LCC)의 동남아 국제선 모항기지로 육성
- 외국인 단체관광객, 전세기 취항 유치여행사 및 전세기 취항 모객 광고비 지원 등 공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 노선운항지역 여행사, 인바운드 여행사 대상의 패키지 등을 통한 여행상품의 소개
- 청주국제공항 면세점 확대, 항공복합산업단지내 쇼핑센터 건립 및 대규모 쇼핑몰 유치 추진 등 쇼핑시설 확충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방안 마련

##### **□ 관광 전문인력 양성화 체계 구축**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적 기반이 되는 유능한 관광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
  - 트렌드에 맞는 지역관광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학협동체계를 활용한

‘관광개발전문가’ 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일선에서의 아이디어를 채택하기 위하여 관광산업 종사자들을 관광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언어와 관광, 역사와 관광, 과학기술과 관광 등의 복합적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종합적 지식을 가진 인력으로 확대 양성되어야 함

## □ 효율적인 관광홍보 방안 마련

- 지역별 문화관광테마를 소재로 한 대표적인 지역명품 콘텐츠를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관광개발의 근간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콘텐츠를 지역의 대표 브랜드화 함으로써 지역관광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함
- 도시권 주변 농촌지역은 5도 2촌의 여가문화 트랜드에 맞추어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휴양명소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기능과 여가로서의 기능이 복합된 관광개발 형태로 추진함

<표 3-56> 지역별 문화관광 테마

권역별	시·군별	지역별 문화관광 테마	광역권
제 천 단양권	제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병과 선비의 고장</li> <li>· 마의태자와 덕주공주의 월악산, 용하9곡</li> </ul>	영주권 영월권
	단양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향과 퇴계 그리고 평강과 온달</li> <li>· 단양8경과 충주호, 소백산과 금수산(구인사, 김삿갓)</li> </ul>	
충 주 음성권	충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강변의 역사와 문화 (불교문화, 철불 / 충주사고)</li> <li>· 탄금대와 신립 미륵리사자와 하늘재</li> </ul>	여주권 이천권 원주권
	음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타사, 가섭사, 화암사 (음성의 지명과 비구니사찰)</li> <li>· 고추와 복숭아 그리고 호수와 자린고비의 고장</li> </ul>	
청 주 진천권	청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칙지신체요절 (칠당간, 진천 석장리 철기유적 연계)</li> <li>· 청주성전투 (상당산성, 부모산성, 청주읍성)</li> </ul>	조치원권 천안권 안성권
	청원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원의 선사유적 (두루봉동굴, 소로리, 아득이유적 등)</li> <li>· 한봉수와 손병희 그리고 단재 신채호(초정약수, 운보)</li> </ul>	
	진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강 정철과 김유신 (또는 놓다리와 임연)</li> <li>· 생거 진천의 보련산 보탑사 (법주사 팔상전 연계)</li> </ul>	
보 은 괴산권	보은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내리 동학전적지 (동학전쟁 2차봉기)</li> <li>· 대곡 성운(종곡리)과 천하8경 속리산, 삼년산성</li> </ul>	문경권 상주권
	괴산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벽초 흥명희와 단원 김홍도, 우암 송시열</li> <li>· 화양9곡과 35명산, 선유9곡, 산막이옛길</li> </ul>	
	증평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뜰두레놀이와 전통대장간, 인삼 주산지</li> <li>· 전통축제(장뜰난장축제, 밀때기·콩때기축제 등) 재현</li> </ul>	
옥 천 영동권	옥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제전쟁에서 임진관까지 (구진벼루 / 조헌과 영규)</li> <li>· 구읍의 정치용과 육영수생가 (보은 오장환 연계)</li> </ul>	금산권 무주권
	영동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야사와 영국사 (세조와 공민왕)</li> <li>· 양산팔경과 백두대간, 문향의 숲</li> </ul>	

○ 미래지향적인 홍보 및 마케팅 확대

- 소셜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관광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되는 제3세대 미디어 환경에 맞는 다양한 SNS 관광정보의 개발이 요구되며, 관광정보 콘텐츠에 대한 R&D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모바일 환경변화에 따른 소비자 트렌드 및 관광형태 변화에 따라 관광마케팅 방식을 오프라인 중심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에 접목하여야 함
- 온라인상의 불완전한 관광정보에 대한 신뢰도 구축을 위해 체계적인 관광정보 인증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여행작가 및 파워블로거를 중심으로 한 충청북도 관광홍보단 운영

## 제3절 활력있는 녹색농촌관광 활성화

### 1. 현황 및 문제점

#### □ 농촌관광 현황

- 2001년 5월 농림부의 “농외소득증대 중장기 추진계획”에서 농촌관광이 정부정책으로 제안된 이후 농촌관광은 많은 발전을 하여 초창기 도입기를 지나 성숙기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음
  - 농촌관광 활동이 마을단위로 농사나 전통놀이 체험, 주말농원 등에서의 농사체험이나 취미 농업 활동, 지역축제에서 향토음식물을 체험하고 농산물을 구매, 관광농원·농가민박·펜션 등에서의 숙박 등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농촌관광 경영형태도 마을주민의 공동경영, 관련자들이 조직한 법인 경영, 농가의 개별 경영, 외지인의 개별 경영 등 다채롭게 전개되고 있음
  - 정부정책은 농촌관광의 기반이 되는 농촌 어메니티 증대 노력, 마을단위 농촌관광 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 농촌관광 경영자 교육, 도시민에 대한 농촌관광 홍보, 농가 숙박업 지원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관광시장의 성장률보다 농촌관광 성장률이 높아 국내 관광시장에서 농촌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도시민들의 농촌관광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촌관광 경험자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체류형 방문객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2년부터 녹색관광(Green Tourism)이 정착화 되면서 도입되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어촌체험마을사업,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복원 우수사례사업 등 각 부처마다 다양하게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농촌관광과 관련된 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대표적임

&lt;표 3-57&gt; 시·군별 농촌관광관련 마을개발사업 선정 현황

시·군	아름마을	농촌전통 테마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촌마을종 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 을조성사업	계
충주시		· 하니마을	· 상대촌마을 · 탄방마을 · 인다락마을	· 달누루권역	· 소태복탄 · 수안보화천 · 소태덕은 · 살미재오개.	9
제천시	· 학현아름마을	· 산야초마을	· 화당마을	· 용두산권역 · 백운산권역	· 봉양옥전 · 백운덕동 · 봉양명암 · 송학오미 · 금성중전 · 한수탄지 · 덕산선고 · 백운운학 · 덕산월악 · 한수덕곡 · 금성활산	16
청원군		· 벌랏한지마을	· 고드미마을 · 연꽃마을 · 말미 장터마을 · 운교마을 · 오박사마을 · 미원사과마을		· 미원금관 · 낭성호정 · 미원운교	10
보은군	· 구병아름마을		· 분저실마을 · 두뫼마을 · 신개울마을 · 하안민들레마을 · 북실마을	· 서원권역 · 하안민들레 권역 · 북실권역	· 산외신정 · 회인건천 · 산외대원	12
옥천군		· 장수데마마을	· 신촌마을 · 안터마을	· 한두레권역 · 산수화권역	· 군서금산 · 안내현리	7
영동군		· 금강모치마을	· 비단강숲마을 · 시항골마을 · 주곡마을 · 원촌마을	· 지내권역 · 가곡권역	· 봉화조동	8
증평군			· 장안마을	· 상그린권역		2
진천군		· 생거진천화 랑촌마을	· 명심마을 · 하목마을	· 백곡권역	· 백곡명암	5
괴산군		· 올갱이마을	· 원풍마을 · 사기막마을 · 세평마을	· 갈은권역 · 청천권역 · 방곡권역	· 청천상신 · 연풍신혜 · 청정사기막	10
음성군		· 어을소담마을, · 체리마을	· 당골마을	· 감곡권역		4
단양군		· 가리점마을	· 한드미마을 · 금수산감골마을 · 방곡마을	· 한드미권역 · 샘양지권역 · 삼동지권역 · 영춘권역 · 흰여울권역	· 가곡어의곡 · 영춘오사	11
계	2	10	31	21	30	94

## □ 문제점

- 다양한 농촌관광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농촌관광사업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기가 어려운 현실임

- 다양한 생태자원을 마을과 서로 연계하여 체험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부족함
-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려 휴양 및 숙박, 이벤트 체험 등 판매상품과 연결시킨 농촌지역 특유의 특화 상품과 마케팅 방법이 부족
- 도시민의 농촌 방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함

## 2. 여건변화와 전망

### □ 농촌관광시장 규모의 증대

- 농촌관광시장 규모는 연평균 10%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002년 157,500명에서 2005년 1,037,700명으로 6.5배 증가하였으며, 전통테마마을과 팜스테이마을에서도 방문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자연휴양림의 성장 동향을 통해 농촌관광의 성장 동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보면 자연 휴양림 방문객의 수는 1995년 2,079,148명, 2001년 3,817,519명, 2005년 5,023,178명으로 연평균 14.2%의 높은 성장을 하고 있음

### □ 농촌관광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변화<sup>2)</sup>

- 전반적으로 농촌관광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만족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촌관광의 주된 목적이 전원감상과 자연학습 및 체험쪽으로 확대되어 추진되는 추세임
- 농촌관광이 점차 체류형으로 변하고 있으며
  - 1995년에는 당일코스가 45.5%였으나 2006년에는 29.5%로 줄었고, 1박 2일은 37.4%에서 44.8%, 2박 3일은 13.5%에서 20.6%, 3박 4일 이상은 3.6%에서 5.1%로 증가하였음
- 농촌관광을 위한 숙박시설 이용 형태는 호텔, 모텔, 여관 등에서 웨션 등을 포함한 민박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
  - 1995년 호텔·모텔·여관 49.9%였으나 2005년에는 민박이 더욱 늘어나 63.5%를 차지하였음

### □ 농촌관광에 관한 인식 확대

- 1996년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서는 도시민들의 51.1%가 농촌관광을 인식하였으나 2006년 농촌진흥청 자료에서는 89.3%로 확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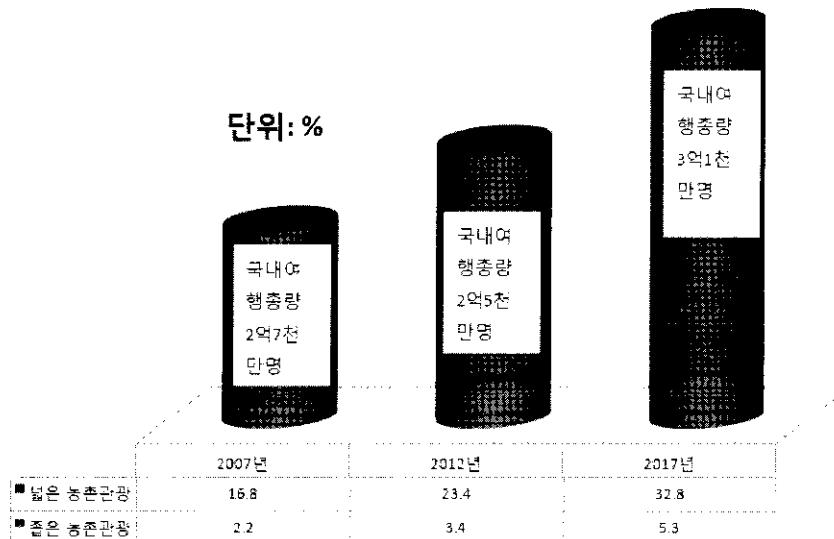
2)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7』, 271~293쪽의 내용 요약, 2007.

## □ 농촌관광으로 인한 소득 증대

- 마을 공동으로 숙박 및 음식물 판매수익, 농산물판매수익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농촌관광사업에 참여하는 개별 농가 단위에서도 숙박, 음식물판매, 농산물 판매 등 농외 부수입을 얻고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2006년 10월)를 보면 관광마을당 평균 방문객 수는 5,117명/년, 총 매출액은 67,868천원/년이며 농가민박(펜션 포함)의 평균 방문객 수는 275명/년, 총 매출액은 5,507천원으로 나타남
- 매출액 구성비
  - 관광마을은 농산물 판매, 민박수입, 음식물 판매 순이고, 농가민박에서는 민박수입, 농산물 판매, 음식물 판매 순임

## □ 시장 규모의 지속적 확대

- 소득과 여가시간의 증대,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농촌관광 시장 규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그림 3-15> 농촌관광 시장규모의 변화 전망

## □ 농촌관광 수요의 지속적 확대

- 넓은 의미의 농촌관광은 2007년 기준으로 연간 45,187천명으로 국내 관광 총량에서

16.8%, 2012년에는 66,702천 명으로 증가해 전체에서 23.4%, 2017년에는 98,461천 명으로 증가하여 국내 관광 총량에서 32.8%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좁은 의미의 농촌관광은 2007년 전체 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에 해당하는 5,971천 명에서 2012년에서는 3.4%에 해당하는 9,749천 명을 늘어나며, 2017년에는 5.3%에 해당하는 15,915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 농촌관광 공급의 질적 변화

- 농촌관광의 기반이 되는 깨끗한 환경, 매력적인 경관, 문화유산, 향토특산음식 등과 같은 소재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노력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될 것임
-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는 더욱 세련된 형태의 미적 감각을 갖춘 농가주택이 신축되고 그것을 자산으로 삼아 농어가 민박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경영체들이 증가할 것임
  - 초등학생 연령층 대상으로 공교육 교과과정에 제시된 학습프로그램을 운용하는 학생 체험학습 전문 농촌관광 경영체의 출현
  - 문화유산 해설사나 숲 해설가처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농촌관광 경영체도 등장할 것임
  - 농어가 민박 전문농가, 향토음식 제공 전문농가, 체험활동 제공 전문농가 등이 등장 일정 지역내에서 전문농가가 상호 협력하여 농촌관광연계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가속화될 것임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정한 농촌관광자원풍부</li> <li>■ 다양한 역사문화자원</li> <li>■ 특화된 다양한 시·군 농산물</li> <li>■ 대도시권과 근접한 접근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류형 농촌관광상품 부족</li> <li>■ 농촌관광 투자 미약</li> <li>■ 농촌관광의 시·군 연계 부족</li> <li>■ 농촌관광 전문인력 부족</li> </ul>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부한 관광자원</li> <li>■ 수도권 인접성</li> <li>■ 청정(친환경)농산물 생산</li> <li>■ 농촌관광수요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남도, 강원도 등 다른 시도와 경쟁 심화</li> <li>■ 아름다운 농촌경관의 훼손과 농지잠식</li> <li>■ 농촌관광관련시설 낙후</li> <li>■ 농촌 인구 감소와 노령화 가속화</li> </ul>

### 3. 계획의 기본방향

- 농촌관광자원 개발
  - 농촌지역이 가진 다양한 잠재력과 고유한 특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
  - 농촌지역의 강점요인인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 해 나가도록 함
- 주민참여형의 마을자원개발 사업 전개
  - 지역중심의 새로운 농촌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조직의 활성화와 다양한 형태의 도·농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함
  - 농촌개발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부자본 투자유치 전략을 적극적으로 강구함
- 지역밀착형의 친환경 관광사업과의 연계 발전 도모
  - 주변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관광자원과 공간적 연계를 통한 농촌자원 활용과 관광지연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함
- 농촌관광자원의 상품화
  - 농촌관광산업과 농촌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그 당위성이 인식됨에 따라 각 지방의 역사성·문화성·향토성을 반영한 고유의 농촌관광상품개발이 필요함
- 농촌관광의 만족도 제고와 욕구충족
  -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관광자원 이외의 쇼핑자원이 추가되어 농촌관광상품개발은 농촌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욕구 충족과 만족스러운 농촌관광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관광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음
  -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
    -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 환경보전과 도시민의 휴양 장소 제공, 도·농 교류의 촉진,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과 같은 다차원적인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임
    - 도시 잠재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공략과 농촌관광에 대한 욕구를 활기시키고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고유한 농촌관광상품의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함
  - 국토공간의 생산적 활용 및 향토문화의 전승
    - 농촌지역 공간이용의 확대와 관광활동의 다양화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고유상품의 개발은 농촌방문객들의 기대심리에 부응하고 향토문화의 전승과 지역공간의 생산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농촌관광상품의 개발과 활용이 요구됨
- 가공식품 개발
  - 향토 특색 문화상품으로 개발하여 극동아의 무한한 식품시장(중국, 러시아의 유사 문화권 및 교포 활용)을 위한 세계화 상품으로 개발하고 수출도록 함

- 농업인 및 시설농가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민의 직접 참여로 인한 실질적 혜택이 가능함
- 재배와 생산, 가공을 연계하여 식품소비화하며, 새로운 식문화를 창달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하려는 정책의지가 필요함
-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
- 지역민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작물 재배와 가격을 안정화하고 지역 소규모 관광상품으로 개발

## 4. 세부 추진과제

### □ 농촌관광 경영자의 육성

-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진 농촌관광 경영자의 육성
- 자기의 책임아래 자본을 투자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새로운 시장과 상품을 개발하며 산업을 조직하는 행동양식 배양
- 농촌관광정책 대상자를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는 도시로부터의 은퇴자,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가, 이들로 구성된 조직체 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부지원에 의한 농촌관광 교육 프로그램 진행시 교육대상을 농가 또는 관광마을에 한정하지 말고 농촌관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개방하여야 함

### □ 우수한 농촌관광 상품 개발

- 숙박 서비스, 음식물 제공 서비스, 체험프로그램처럼 수요대상이 명확하고 시장에서 쉽게 거래될 수 있어야 함
- 농촌관광상품의 최소한의 수준 유지 지침 제시
-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샤워시설, 침구류, 재난에 대비한 안전장치 등의 최소한의 요구 수준을 갖춤
- 각종 체험시설에서의 안전장치,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처리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
- 농촌관광 상품의 표준화 작업 추진
- 숙박 및 조리시설에 대한 표준화, 서비스의 표준화 등이 필요하며 농촌관광 등급화의 전제 조건임

## □ 농촌관광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거래비용 절감

- 농촌관광과 관련된 정보가 쉽게 유통될 수 있어야 하며, 낮은 비용으로 농촌관광 상품이 거래될 수 있어야 함
- 정보의 전달은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농촌관광안내책자, 인터넷 상의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여행사의 여행상품 카탈로그, 언론 홍보, 경험자의 입소문 등 다양한 매체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공급자 조직이 필요함
- 원활한 정보유통과 함께 신속하고 편리한 대금 결제방식, 예약 및 환불시스템 구축

## □ 자발적 소비증의 형성

- 본인의 의사에 따라 농촌관광을 선호하는 소비자 층을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함
- 정기적인 도시민의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도시민이 농촌관광에서 원하는 것, 불편해 하는 것 등을 농촌경영자에게 전달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게 하여 자발적인 소비자 층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함

## □ 농산·촌체험마을 육성

- 농촌에 잠재되어 있는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도농교류기반을 확대함
- 농촌의 문화, 자연경관과 생태적 특성, 농촌 특유의 따뜻함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함





##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물류·정보통신망 구축

제1절 내륙권 발전과 연계한 통합교통망체계 구축

제2절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U-거버넌스 구축



#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물류·정보통신망 구축

## 제1절 내륙권 발전과 연계한 통합교통망체계 구축

### 1. 현황 및 문제점

#### 1) 도로부문

##### 등급별 도로현황

- 충북의 도로 총연장은 2009년 말 현재 6,674km이며, 등급별로는 고속도로 6개 노선 315km, 일반국도 13개 노선 959km, 지방도 49개 노선(국가지원지방도 6개 노선 포함) 1,458km, 시·군도 271개 노선 3,942km임

&lt;표 3-58&gt; 충청북도 등급별 도로현황 총괄(2009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km, %)

구분	연장	포장도						미포장도	미개통도	비율(%)		
		소계	2차로 이하	4차로	6차로	8차로	포장도			미포장도	미개통도	
합계	6,674	5,100 (100.0)	3,875 (76.0)	1,011 (19.8)	197 (3.9)	17 (0.3)	714	860	76.4	10.7	12.9	
고속국도	315	315 (100.0)	-	249 (78.8)	50 (15.7)	17 (5.4)	-	-	100.0	-	-	
일반국도	959	959 (100.0)	491 (51.2)	451 (47.1)	17 (1.7)	-	-	-	100.0	-	-	
지방도	소계	1,458	1,361 (100.0)	1,242 (91.2)	106 (7.8)	14 (1.0)	-	63	34	93.3	4.3	2.4
	국가지원지방도	268	242 (100.0)	189 (78.0)	46 (19.0)	7 (3.0)	-		26	90.4	-	9.6
	지방도	1,190	1,119 (100.0)	1,053 (94.1)	60 (5.3)	7 (0.6)	-	63	9	94.0	5.3	0.7
시군도	소계	3,942	2,465 (100.0)	2,142 (86.9)	206 (8.3)	117 (4.8)	-	651	825	62.5	16.5	20.9
	시도	1,521	1,107 (100.0)	800 (72.3)	190 (17.1)	117 (10.6)	-	7	407	72.8	0.5	26.7
	군도	2,421	1,358 (100.0)	1,342 (98.8)	16 (1.2)	-	-	644	419	56.1	26.6	17.3

자료 : 충청북도, 『도로현황조사』, 2010.

- 전체적으로 2차로와 4차로가 95% 이상을 상회하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6차로 이상

도로는 고속국도를 제외하고 극히 낮은 비율을 보여, 도로의 간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일반국도가 고속도로와 지방도에 비해 전국대비 비율이 낮은 수준인데 이로 인한 내부교통체계 미흡과 지역간 접근성 불량으로 인해 지역 연결성을 저해시키고 있음
- 지역을 관통하는 13개 국도 중 지역내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4차로의 국도 17, 19, 36호선이 충북지역의 주요한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타 도로들은 2차로가 많아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간선기능을 담당하기 어려움

## □ 도로연장 증가추이

- 도로연장 추이를 보면 연평균 0.5%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 1.28%보다 낮게 나타남
- 도로별로는 고속도로가 6.1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시군도가 0.39%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각각 0.11%, 0.0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음

<표 3-59> 충청북도 도로연장 증가추이

(단위 : km)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03-'09)
충 청 북 도	합계	6,497	6,542	6,566	6,608	6,694	6,748	6,674 0.45%
	고속도로	220	256	257	257	301	315	315 6.17%
	국도	965	968	968	965	963	959	959 -0.11%
	지방도	1,460	1,460	1,460	1,459	1,459	1,457	1,458 -0.02%
	시·군도	3,852	3,857	3,881	3,927	3,972	4,017	3,942 0.39%
전국	97,253	100,278	102,293	102,061	103,019	104,236	104,983	1.28%

자료 : 국토해양부, 『도로현황조사』, 각 년도.

## □ 자동차 보유대수

- 2009년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591.5천대로서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 17,325.2천 대의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자동차 증가추이는 2003년 477.5천대에서 2009년 591.5천대로 연평균 3.6%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승용차의 경우는 2003년에 313.0천대에서 2009년에 418.9천대로 연평균 5.0%의 증

가를 나타내어 승용차가 자동차의 증가를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자가용의 증가율에 비해 도로연장의 증가는 0.45%에 불과하여 교통시설의 공급이 수요증가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임

<표 3-60> 자동차의 증가추이

(단위 : 천대)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03 ~ '09)
총 청 북 도	합계	477.5	492.1	510.5	531.7	553.4	569.5	591.5
	승용차	313.0	325.6	344.7	363.7	382.2	397.8	418.9
	승합차	41.8	41.0	38.2	37.9	38.4	38.6	38.5
	화물차	120.6	123.2	125.4	127.8	130.5	130.7	131.8
	특수차	2.1	2.2	2.3	2.3	2.3	2.3	1.5%
	합계	14,586.8	14,934.1	15,396.7	15,895.2	16,428.2	16,794.2	17,325.2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각년도.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각년도.

## 2) 철도부문

- 충북의 철도망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을 포함하여, 지역의 서부에 위치한 경부선과 북동부에 위치한 중앙선에 의해 타지역과 연결되고 있으며, 지역내 철도망으로는 충북선이 충북을 동서로 가로질러 경부선, 중앙선 및 태백선을 각각 연결하고 있음
- 충북선(조치원~봉양간) 115km의 기존 복선구간에 대하여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 고속화를 추진할 계획임
- 경부선 부강역~중부권 내륙화물기지를 연결하는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선 2.75km를 2010년 1월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2010년 11월 고속철도 오송역을 개통하여 경부선 40회, 호남선 8회 등 1일 총 48회 열차를 운행하고 있으나, 고속철도 오송역 접근교통체계 미비 및 충북선을 포함한 기존 철도와의 연계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임

<표 3-61> 충북선 선로용량 및 운행현황(2009년)

구간	선로 용량	여객					화물			합계
		KTX	새마을	무궁화	통근	소계	컨테이너	화물	소계	
조치원~오송	56	-	-	8	-	8	2	12	14	22
오송~음성	132	-	-	9	-	9	2	31	33	42
음성~봉양	135	-	-	9	-	9	2	32	34	43

자료 : 철도시설공단, 「철도통계연보」, 2010.

### 3) 공항부문

#### □ 운항노선

- 도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항은 청주공항 1개소이며, 국내선은 청주~제주간 1일 12회, 국제선은 청주~북경간 주2회, 청주~상해간 주 9회, 청주~홍콩간 주 6회, 청주~심양간 주 1회임
- 공항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국제선 운항 및 이용객수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의 위상에는 크게 미약한 실정으로 향후 국제노선시설 및 국제규모에 적합한 시설확충이 요구됨

#### □ 주요시설 현황

- 청주국제공항의 총 부지면적은 190.9만m<sup>2</sup>(군부대 포함시 673.9만m<sup>2</sup>)으로써 전국 16개 공항 중 4번째 규모이며, 활주로는 2개로 구성되어 있음

<표 3-62> 청주공항 시설현황 및 수용능력

	구분	국내선	국제선
시설 현황	소재지	충북 청원군 내수읍 입상리 산5-1	
	부지(m <sup>2</sup> )	1,909,645(군부대포함시 6,739,778)	
	활주로(m)	2,744×60, 2,744×45	
	계류장(m <sup>2</sup> )	91,173	
	여객터미널(m <sup>2</sup> )	22,406	
	주차장(m <sup>2</sup> )	8,000	14,406
	화물터미널(m <sup>2</sup> )	2,257	
	항행안전시설	1,667	590
수용 능력	운항횟수(회/년)	24R : ILS(CAT-I)	
	동시주기(대)	140,000	
	여객(만명/년)	11	
	동시주차(대)	315	
	화물(만톤/년)	189	126
	운항항공기	1,298	
	최저착륙시정	3.8	
		3.3	0.5
		B737,Q400	
		800m	

자료 : 한국공항공사 내부자료

## □ 여객 및 화물 수송실적

-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수는 2003년 761천명에서 2009년 1,024천명으로 평균 5.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연도별 화물수송실적의 경우 국내선은 2003년 20,848톤, 2009년 10,217톤으로 연평균 11.4%의 감소추세에 있으며, 국제선의 경우 2003년 2,172톤에서 2004년 3,075톤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는 389톤으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청주공항의 화물수송은 수화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화물물동량은 거의 없는 실정임

&lt;표 3-63&gt; 청주공항 수송실적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03~09)	
국내선	여객 (천명)	도착	345	376	381	434	439	463	498	6.3%
		출발	341	368	375	432	432	454	494	6.3%
		계	687	744	756	866	872	917	991	6.3%
	화물 (톤)	도착	10,101	9,109	6,673	6,462	6,188	5,889	6,134	-8.0%
		출발	10,747	9,111	5,479	5,679	5,607	4,792	4,083	-14.9%
		계	20,848	18,220	12,151	12,142	11,795	10,681	10,217	-11.2%
국제선	여객 (천명)	도착	37	37	49	67	80	63	16	-12.8%
		출발	37	40	52	67	81	63	16	-13.3%
		계	74	77	101	134	161	126	32	-13.0%
	화물 (톤)	도착	476	442	617	924	957	703	180	-15.0%
		출발	1,697	2,633	773	749	764	617	209	-29.4%
		계	2,172	3,075	1,390	1,673	1,721	1,320	389	-24.9%
합계	여객 (천명)	도착	382	413	430	501	520	525	514	5.1%
		출발	379	408	427	499	513	517	509	5.1%
		계	761	821	857	1,000	1,032	1,043	1,024	5.1%
	화물 (톤)	도착	10,577	9,551	7,290	7,386	7,145	6,592	6,314	-8.2%
		출발	12,443	11,744	6,251	6,428	6,371	5,408	4,292	-16.3%
		계	23,020	21,295	13,542	13,814	13,516	12,001	10,606	-12.1%

자료 : 한국공항공사 내부자료

#### 4) 물류부문

##### □ 충북물류산업

- 충북물류산업은 규모면에서 볼 때, 타지역이 GRDP 대비 물류산업 비중이 6~7% 정도임에 비해서 2~3%로 전국 평균치에 비하면  $\frac{1}{3}$  수준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이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frac{2}{3}$ 정도(약 8천억원/년)가 타지역의 물류기업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미임
- 충북의 경우 물류비가 지역총생산액(GRDP)의 2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전체 GDP 대비 물류비 비중인 15.6%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송비가 전체 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6%로 국가물류비의 수송비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 물류경쟁력이 저하됨

##### □ 충북물류업체

- 현재 충북물류산업의 구성은 화물운송업과 창고업이 대부분이며, 제3자 물류업(3PL, 3rd Party Logistics)이나 물류정보시스템업, 물류컨설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업체는 전무한 실정임

##### □ 충북물류네트워크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국토해양부, 2009.10)에 따르면 충북을 청주권, 음성권, 충주권으로 구분하고, 청주권(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은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음성권(음성, 진천, 괴산, 증평)은 음성물류단지, 충주권(충주, 제천, 단양)은 제천물류단지로 구분하고 있음
- 충북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의 물류거점계획 부재에 따른 남부권과 청주권과의 물류네트워크 구축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충북에는 고속철도 분기역, 청주공항 등 광역교통거점이 존재하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의 거점인 청주·청원 지역과 음성·충주, 남부권을 연결할 수 있는 고속교통망 부재에 따른 물류거점간 연계성이 미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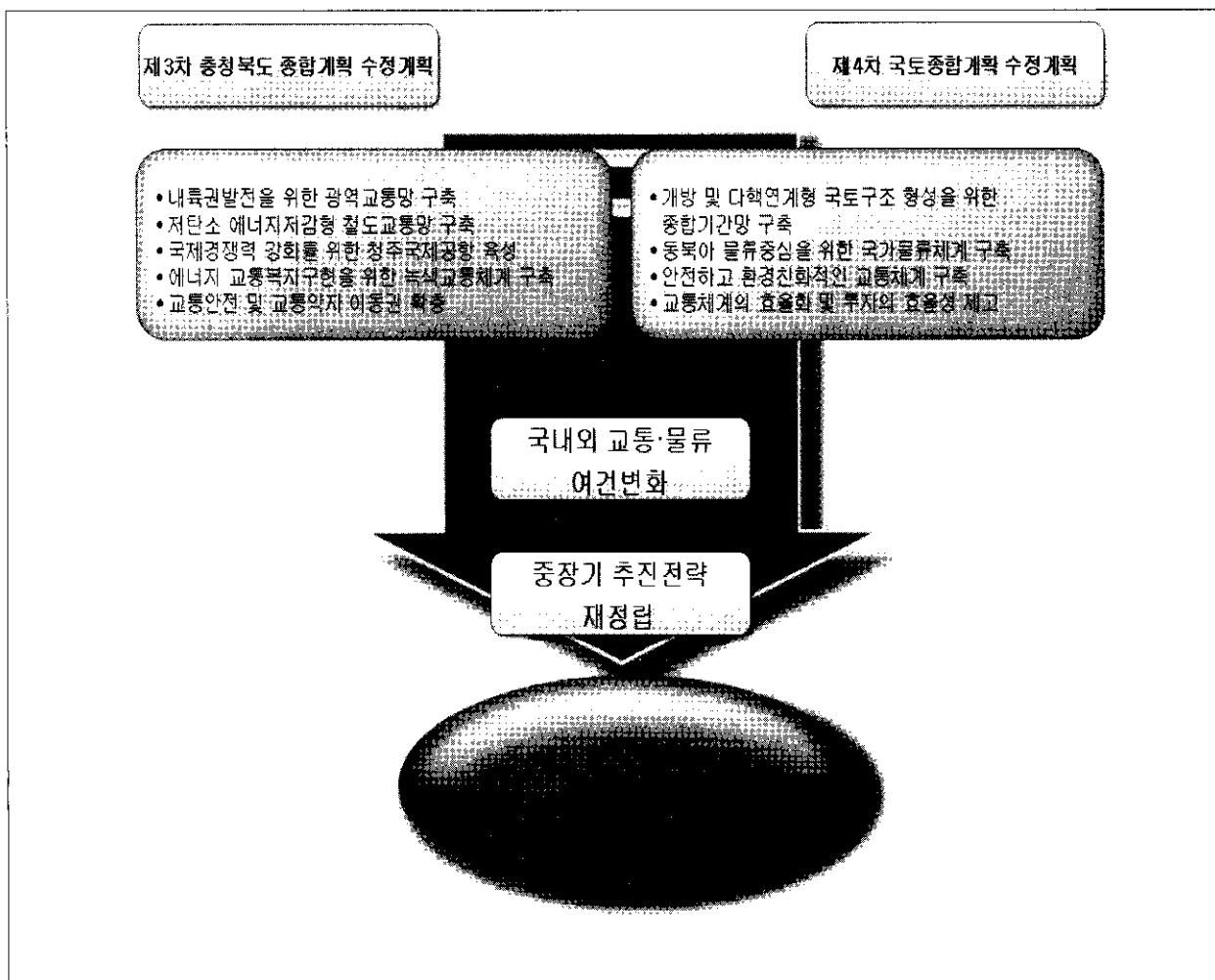
## 2. 여건변화와 전망

- 국민소득의 증가,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자동차 가격, 경제규모의 확대와 여가시간의 증대 및 자동차산업의 수요창출효과 뿐만 아니라 인근에 건설될 세종시 등의 영향과 국토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추진중인 혁신도시, 기업도시로 이전하게 될 교통수요 등에 따라 폭발적인 자동차 증가가 교통수요 폭발의 주 요인으로 작용함
- 충북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충청북도 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 2009”에서 제시한 장래 자동차 보유대수와 2010년 자동차 보유대수 현황과의 오차를 보정하여 본 계획의 목표연도에 맞게 보정하여 적용하였으며, 장래인구는 본 계획에서 예측한 인구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도로포장률은 시·군도의 경우 장래 포장계획이 불분명하여 도로포장률 산정에서는 제외하였으며, 2010년 현재 지방도의 미포장도와 미개통도가 2020년에 100% 포장률을 달성을한다는 전제하에 산정하였음
- 도로 등급별 도로연장은 고속국도 및 국도의 경우 “충청북도 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 2009”에서 제시한 도로건설계획에 기초하여 산정하였으며, 지방도의 경우 2009년 현재 미포장도와 미개통도를 포함한 전체 연장 1,458.4km를 2020년에 100% 포장율을 달성을한다는 전제하에 산정한 수치임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간선교통망의 결절지</li> <li>■ 국·내외 교통접근성 용이</li> <li>■ 풍부한 물류인프라 조성</li> <li>■ 지자체의 지역산업 육성의지 높음</li> <li>■ 첨단산업분야 선점 정책추진 : BINT 충북</li> <li>■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거점 기능의 취약</li> <li>■ 수위도시 부재에 따른 중추거점기능 미비</li> <li>■ 물류산업구조 극히 취약</li> <li>■ 관련산업의 전문인력 부족</li> <li>■ 도시구조와 정보망간 부조화</li> <li>■ 상대적 도세의 열위</li> </ul>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가선용 지대로서의 충북</li> <li>■ 오송, 오창 신산업단지 조성</li> <li>■ 세종시 건설</li> <li>■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li> <li>■ 정보화시대 도래로 인한 전자정부 구현</li> <li>■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정보통신 기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수요와 시설의 불일치</li> <li>■ 교통사고 다발지역</li> <li>■ 인접지자체와의 전략산업 중복</li> <li>■ 고급인력의 역외유출 심화</li> <li>■ 도농간, 계층간 정보화 격차의 잔존</li> <li>■ 인터넷 등 이용자 수준의 상대적 열위</li> </ul>

### 3. 계획의 기본방향

-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08~2020) 및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정책기조에 근거하여 교통물류 부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음
- 국내외 교통물류부문 여건변화에 따른 추진전략을 재정립
  - 국가 교통정책기조 변화에 능동적 대처(도로중심 → 철도중심)
  - 녹색교통(철도, 자전거 등)에 부합하는 추진전략 수립
  - 교통물류 부문 추진실적 및 녹색교통 정책기조에 기초한 계획지표 재수정



<그림 3-16> 교통부문 기본방향

## 4. 세부 추진과제

### 1) 내륙권발전과 연계한 통합교통망 체계 구축

- 내륙권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 저탄소 에너지저감형 철도교통망 구축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주국제공항 육성
- 에너지 교통복지구현을 위한 녹색교통체계 구축
-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이동권 확충

#### 가. 내륙권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 □ 고속도로

- 세종시 건설로 인한 호남권과 청주·대전권 그리고 강원권 등 전국과의 연결성 확보를 위한 국가기간교통망을 구축함
- 혁신도시, 기업도시, 오송역, 청주국제공항 등 국가 주요시설의 기능 확대를 위한 연계 교통망 확충

<표 3-64> 고속도로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기간 (년)	사업비 (억원)	주요 경유지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	2020	54,510	■ 청주~충주~원주(제천)~평창(삼척)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2020	21,700	■ 증평~미원~보은~영동~무주
제3충청내륙고속화도로	2020	13,800	■ 미원~괴산~단양
평택-제천간고속도로	2006~2020	9,623	■ 안성~(음성~충주~제천)
제2충부고속도로 확장	2002~2020	8,000	■ 호법~남이
증평~회인간 고속도로	2020	8,500	■ 증평~내수~낭성~회인
동서5축 고속도로	2008~2012	67,246	■ 당진~(천안~오창)~문경~영주~울진
청원~공주간 고속도로	2008~2015	54,050	■ 청원~공주
동서6축 고속도로 지선 신설	2020	13,947	■ 세종시~(청원)~문경

## □ 국도

- 충북의 주 개발축인 국도 36호선 및 국도 17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 국도의 자동차 전용도로화 추진으로 국도기능 회복 및 도내 권역간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 세종시 연결도로 신설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지역도로망 확충을 통해 국가 주요시설의 기능확대를 위한 연계 교통망을 확충함
- 충북 내륙 관광활성화를 위한 내륙관광순환도로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함

**<표 3-65> 국도 사업 및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고속도로 연결 지역도로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부내륙 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주~주덕(국도3호선), 7.3km, 6차로</li> <li>- 음성~괴산(국도37호선), 8.5km, 4차로</li> <li>- 용두~금가(국도21호선), 10.8km, 4차로</li> <li>- 괴산~연풍1(국도34호선), 9.7km, 4차로</li> </ul> </li> <li>■ 중앙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양~가곡(국도59호선), 6.8km, 4차로</li> <li>- 단양IC~대강(국도5호선), 6.6km, 4차로</li> </ul> </li> <li>■ 경부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동~추풍령1(국도4호선), 10km, 4차로</li> <li>- 영동~추풍령2(국도4호선), 9.2km, 4차로</li> <li>- 진천~두교리(국도17호선), 9.4km, 4차로</li> <li>- 마전~은행(국도37호선), 5.5km, 4차로</li> <li>- 은행~옥천(국도37호선), 6.1km, 4차로</li> </ul> </li> <li>■ 중부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천IC~금왕1(국도21호선), 11km, 4차로</li> <li>- 진천IC~금왕2(국도21호선), 9.9km, 4차로</li> <li>- 진천~증평1(국도34호선), 7.14km, 4차로</li> <li>- 진천~증평2(국도34호선), 11.2km, 4차로</li> <li>- 북일~남일(1,2)(국도25호선), 12.6km, 4차로</li> <li>- 북일~남일1-1(국도36호선), 1.4km, 4차로</li> <li>- 오동~구성(국도36호선), 4km, 4차로</li> </ul> </li> <li>■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 귀례~목계(국도19호선), 10km, 4차로</li> </ul>
순환격자망 정비대상 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산~청산(국도19호선), 9.1km, 3차로 확포장</li> <li>■ 청원~괴산(국도19호선), 24.6km, 3차로 확포장</li> <li>■ 탄부~보은(국도25호선), 10.8km, 3차로 확포장</li> <li>■ 충주~단양(국도36호선), 40.4km, 3차로 확포장</li> <li>■ 학산~용산(국도19호선), 33.9km, 4차로 확포장</li> <li>■ 보은~청원(국도19호선), 19km, 4차로 확포장</li> <li>■ 괴산~충주(국도19호선), 20km, 4차로 확포장</li> </ul>
세종시 연결도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송~청주 연결도로(국도36호선), 6.5km, 폭 21m</li> <li>■ 오송~조치원역 연결도로(국도36호선), 3km, 폭 21m</li> </ul>
국도대체 우회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면~북면(국도17,25,36호선), 11.4km, 4차로</li> <li>■ 휴암~오동(국도17,25,36호선), 13.3km, 4차로</li> </ul>

## □ 지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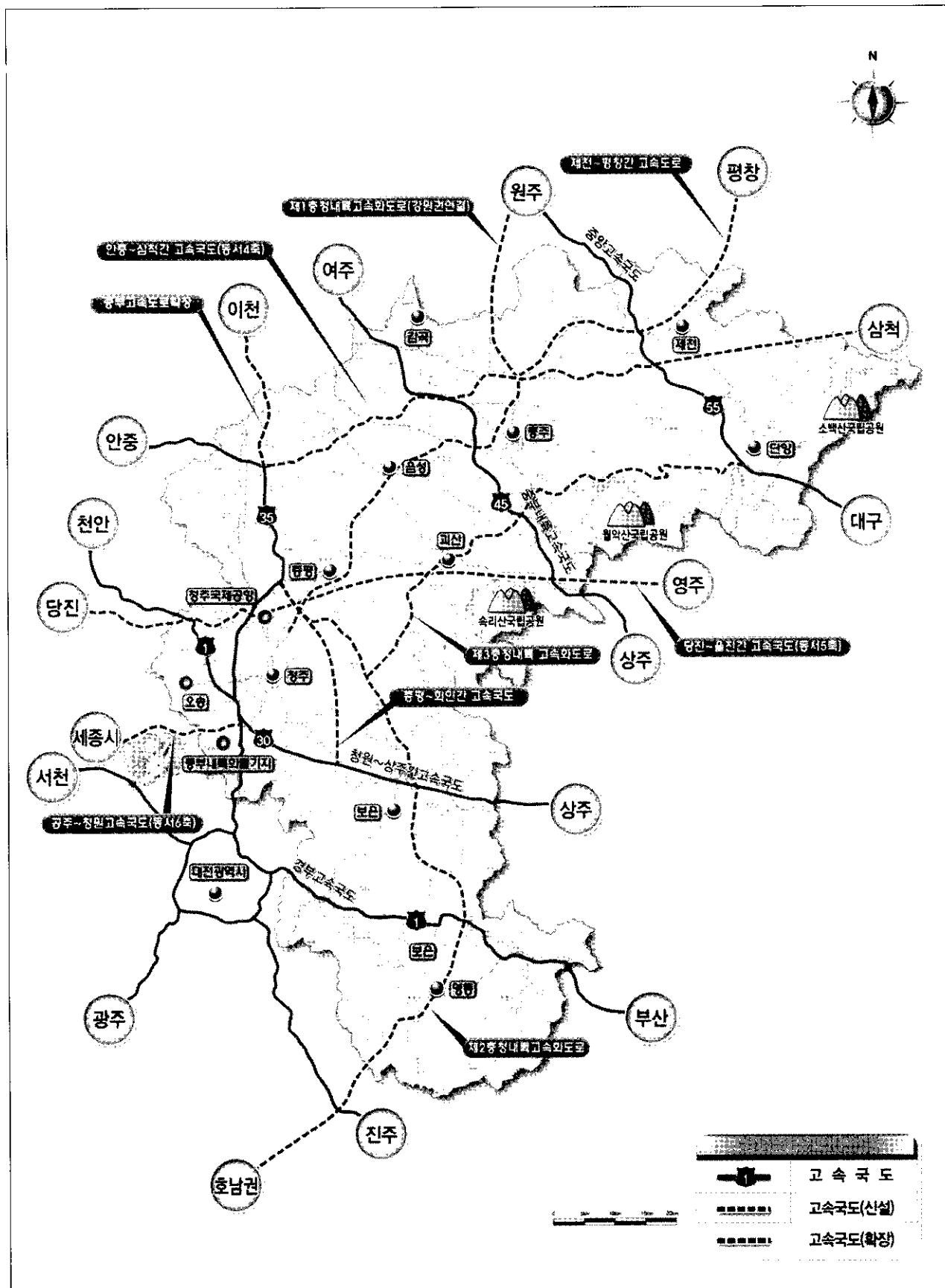
- 혁신도시, 기업도시, 오송역 등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접근성 향상에 기여함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접근도로 개선 및 오송·오창과학단지, 고속철도 오송역 등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도로망을 확충함
- 도로 위계간 연계성 확충 및 주요 지방도 확포장 사업 추진으로 도로간 원활한 통행과 기존의 교통체증 등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함

**<표 3-66> 지방도 사업 및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세종시 지방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송~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지방도506,596호선), 11.8km, 폭 14m</li> <li>■ 청주 연결도로, 11.8km, 폭 14m</li> </ul>
순환격자망 정비대상 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창~미원(지방도511호선), 26.5km, 4차로 확포장</li> <li>■ 청산~탄부(지방도505호선), 13.1km, 3차로 확포장</li> </ul>
주요 지방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성~신니IC(지방도318호선), 8.8km, 4차로</li> <li>■ 장야~매화(지방도501호선), 1.7km, 4차로</li> <li>■ 속리산연계도로(지방도505호선), 1.0km, 4차로</li> <li>■ 탑연~다락(지방도507호선), 1.6km, 4차로</li> <li>■ 다락~태성(지방도507호선), 2.5km, 4차로</li> <li>■ 증평~도안(지방도510호선), 1.5km, 4차로</li> <li>■ 문강~수회(지방도510호선), 2.2km, 2차로</li> <li>■ 송정~평촌(지방도510호선), 1.3km, 2차로</li> <li>■ 영하~우산(지방도511호선), 1.0km, 4차로</li> <li>■ 석화~초경(지방도511호선), 1.3km, 4차로</li> <li>■ 산성~무성(지방도512호선), 2.5km, 4차로</li> <li>■ 관정~이목(지방도512호선), 2.6km, 4차로</li> <li>■ 장암~지경(지방도515호선), 2.3km, 2차로</li> <li>■ 대소~삼성(지방도515호선), 5.7km, 4차로</li> <li>■ 방곡~울산(지방도532호선), 4.8km, 2차로</li> <li>■ 양저~지수(지방도575호선), 4.7km, 2차로</li> <li>■ 금왕~내송(지방도583호선), 1.5km, 4차로</li> <li>■ 오송역사진입로(지방도591호선), 0.44km, 6차로</li> <li>■ 부강철도교(지방도591호선), 0.5km, 2~4차로</li> <li>■ 증평~용강(지방도592호선), 1.2km, 4차로</li> <li>■ 용강~청안(지방도510,596호선), 2.4km, 4차로</li> <li>■ 성산~두릉(지방도510,596호선), 6.3km, 4차로</li> </ul>

<계속>

사업명	사업내용
주요 국가지원지방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일~문의(국지도32호선), 6.8km, 4차로</li> <li>■ 문의~대전(국지도32호선), 9.6km, 4차로</li> <li>■ 신너~화석(국지도49호선), 2.3km, 2차로</li> <li>■ 화석~문성(국지도50호선), 2.5km, 2차로</li> <li>■ 문성~노은(국지도51호선), 1.5km, 2차로</li> <li>■ 가금~칠금(국지도82호선), 6.9km, 2~4차로</li> <li>■ 연금리조트~청풍대교(국지도82호선), 1.9km, 4차로</li> <li>■ 북충주IC~가금(국지도82호선), 5.0km, 4차로</li> <li>■ 청풍대교(국지도82호선), 1.5km, 2차로</li> </ul>
용량부족구간 정비대상 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천~동이(지방도501호선), 7.4km, 4차로 확포장</li> <li>■ 강외~옥산(지방도508호선), 7.7km, 4차로 확포장</li> <li>■ 성산~장대(지방도510호선), 4.7km, 4차로 확포장</li> <li>■ 낭성~이목(지방도512호선), 4.4km, 4차로 확포장</li> <li>■ 덕정~내곡(지방도515호선), 4.34km, 4차로 확포장</li> <li>■ 내수~증평(지방도540호선), 7.0km, 4차로 확포장</li> <li>■ 이월~덕산(지방도587호선), 5.8km, 4차로 확포장</li> <li>■ 현도~강외(지방도591호선), 10.2km, 4차로 확포장</li> <li>■ 강내~홍덕(지방도594호선), 7.9km, 4차로 확포장</li> <li>■ 홍덕~오창(지방도596호선), 11.9km, 4차로 확포장</li> </ul>
미개통구간 정비대상 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저~은운(지방도502호선), 5.7km, 2차로 확포장</li> <li>■ 소매~소암(지방도510호선), 2.6km, 2차로 확포장</li> <li>■ 설운~내사(지방도531호선), 1.4km, 2차로 확포장</li> <li>■ 목별~재오개(지방도531호선), 4.5km, 2차로 확포장</li> <li>■ 지동~부산(지방도532호선), 11.1km, 2차로 확포장</li> <li>■ 단성~덕산(지방도534호선), 3.5km, 2차로 확포장</li> <li>■ 미륵~포암(지방도597호선), 1.5km, 2차로 확포장</li> </ul>



<그림 3-17> 2020년 충청북도 고속도로망 계획

## 나. 저탄소 에너지저감형 철도교통망 구축

### □ 오송역을 거점으로 한 X자형 고속철도망 구축

- 중부내륙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서간의 연결성 강화와 세종시 접근성 제고를 위한 X자형 고속철도망 구축
  - 오송~충주~원주~강원영북권(춘천~북한연결철도~대륙횡단철도와 연계)
- 오송역 건설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서울기점 120km)
  - 충북선을 확장하여 신호장 신설, 목포 및 부산방면 환승계획, 향후 경부고속철도 오송 역에서 분기하여 충북선과 직결 연결
- ※ 충청권에 건설중인 세종시 등 대·내외적인 상황변화 요인을 반영, 충북도 차원의 수요 증가 등에 대비한 교통망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함
- 호남고속철도 건설(오송~목포)

<표 3-67> 호남고속철도 사업 및 내용

사업명	사업구간	총사업비(억원)	연장(km)	사업기간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121,016	230.9	~2014
	광주~목포			~2017

- 제2 경부축 구상실현을 위한 철도망 신설
  - 경부고속선 2복선 전철화(평택~오송) : 47.5km

### □ 중앙선과 태백선 전철화 추진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화물수송증가에 대비하여 중앙선의 복선전철화사업을 추진하고, 강원권 태백카지노 개발효과의 북부권 지역경제 영향을 고려하여 태백선 복선전철화사업도 동기간내 추진

<표 3-68> 중앙선과 태백선 전철화 사업내용

구분	사업명	연장(km)	사업기간
중앙선	■ 제천~도담(복선전철화)	17.4km	2001~2011
	■ 원주~제천(복선전철화)	37.7km	2003~2018
	■ 도담~영천(복선전철화)	150km	2010~2019
태백선	■ 제천~쌍용(복선전철화)	13.9km	2002~2011
	■ 쌍용~백산(복선전철화)	69.9km(충북:14.4km)	2011~2015

\* 국가철도망계획에 미반영 된 사업은 향후 교통수요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함

## □ 세종시 및 혁신도시 접근성 개선 연계교통망 확충

- 세종시 및 혁신도시 등 주요 국가시설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고속철도망 개설을 통하여 ‘신국토중심성’ 강화

<표 3-69> 세종시 및 혁신도시 연계교통망 확충 사업

구분	사업명	연장(km)	주요 경유지
세종시 연계교통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권철도</li> <li>■ 충북선 고속화</li> <li>■ 중부내륙관광철도</li> <li>■ 조치원~보령철도 조기 연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6.9km</li> <li>115.0km</li> <li>78.7km</li> <li>88.6k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산~청주공항</li> <li>■ 조치원~봉양</li> <li>■ 세종시~청원~보은~상주</li> <li>■ 조치원~세종시~공주~보령</li> </ul>
혁신도시 국가 철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부선(동탄~안성~혁신도시~증평~청주공항) 단선전철</li> </ul>	58.4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탄~안성~혁신도시~증평~청주공항</li> </ul>

\* 철도망 계획중 국가철도망계획에 미반영 된 사업은 향후 교통수요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함

## □ 내륙권발전을 위한 연계교통망 확충

- 낙후지역 철도건설을 통한 내륙권발전 촉진을 위해 중부내륙선 신설로 수도권과 경북권과의 연결성 강화, 수도권 및 충남권역의 국내외 관광객의 항공 접근성 개선

<표 3-70> 내륙권발전을 위한 교통망 사업

사업명	연장(km)	주요 경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부내륙선(천안~괴산~문경)</li> <li>■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li> <li>■ 동서화합 산악철도</li> <li>■ 충북선과 중앙선 연결 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0.1km</li> <li>95.8km</li> <li>104.9km</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안~괴산~문경</li> <li>■ 이천~충주~문경</li> <li>■ 영동~부주~남원</li> <li>■ 충주~원주~춘천, 강릉</li> </ul>

\* 철도망 계획중 국가철도망계획에 미반영 된 사업은 향후 교통수요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함

##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철도망 확충

- 수도권과 충청 서해안권 주민들의 청주국제공항 이용율을 증대시키고 세종시 건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철도 접근성 제고

**<표 3-71>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철도망 확충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연장(km)
천안~청주공항선	■ 천안~청주공항까지 수도권전철 연장	54.1km
본선역 수준의 공항역 확충	■ 충북선 고속화에 대비하고 국가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등과 연계하여 공항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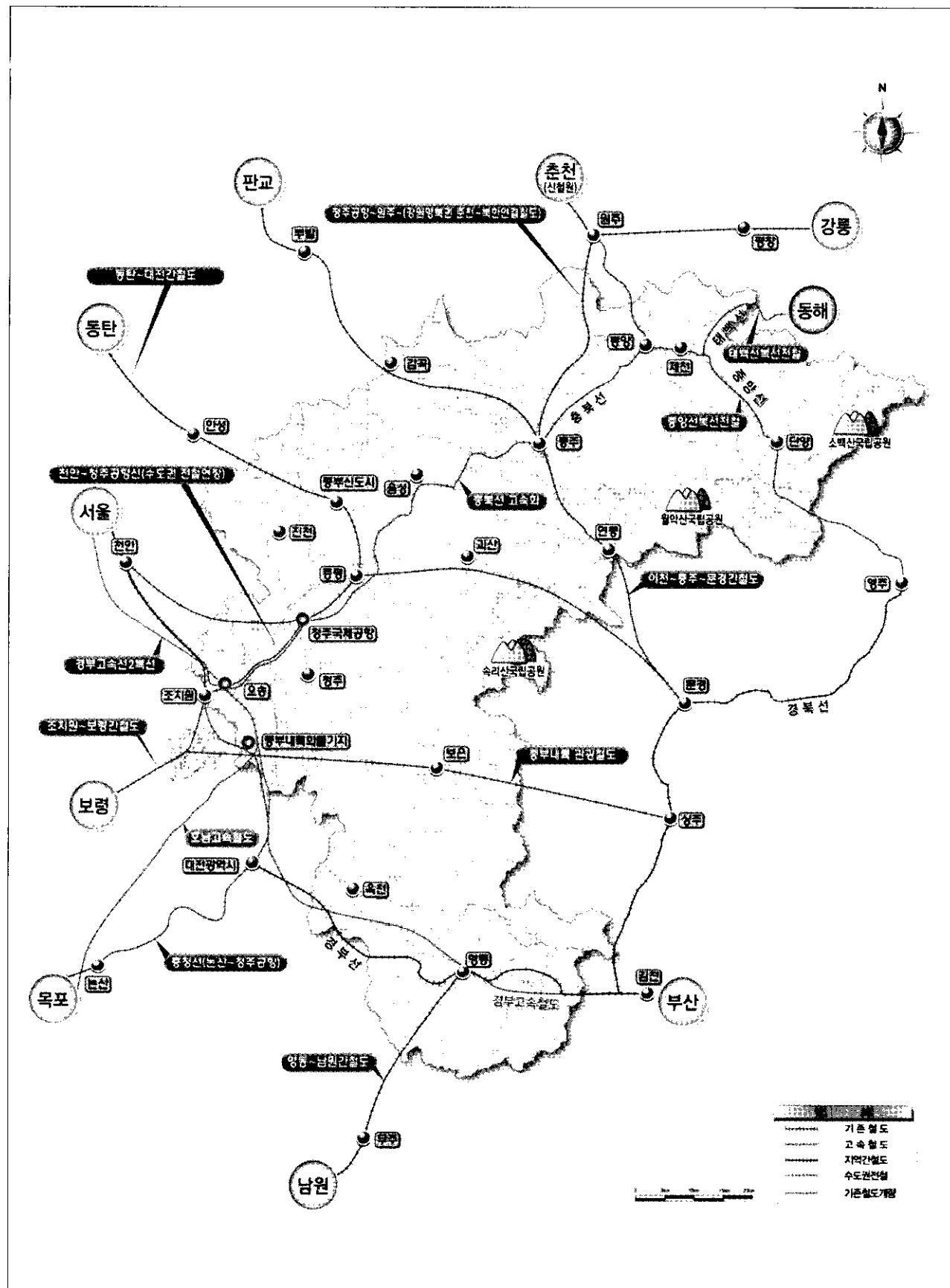
**□ 고속철도 오송역 접근성제고를 위한 연계철도 건설**

- 고속철도 오송역 개통이후 접근교통체계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정시성을 갖춘 철도건설을 통한 오송역 활성화 기대

**<표 3-72> 오송역 접근성을 위한 연계철도 건설 사업**

사업명	연장(km)	운영시기
충북선~청주버스터미널	5.58km	2017년

\* 국가철도망계획에 미반영 된 사업은 향후 교통수요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함



<그림 3-18> 2020년 충청북도 철도망 계획

## 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주국제공항 육성

### □ 청주국제공항 시설 확충

- 세종시의 완공 등 2020년까지 중부권 거점공항 및 세종시 관문공항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 확충

<표 3-73> 청주국제공항 시설 확충 사업

사업내용	현재	확장·신설	합계
유도로신설	-	2개소	2개소
화물청사 증축	2,257m <sup>2</sup>	20,000m <sup>2</sup>	22,257m <sup>2</sup>
활주로확장	2,744m	3,600m	3,600m

※ 활주로 확장계획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중에 있으므로 추후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토록 함  
 ※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은 향후 항공수요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함

### □ 국제노선 확충

- 일본·동남아 등 항공노선 개설을 통한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정립
- 세종시의 관문공항으로서 국제화기능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
- 충청연합투어를 통해 다변화된 중국특화노선을 개발
- 충청권 3도 공동으로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노선개설

<표 3-74> 신규 국제노선 개설 사업

사업규모	사업내용
일본, 동남아 신규 노선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동남아 등 주요국가를 대상으로 중점 타깃 노선 선정</li> <li>■ 민관 합동 추진지원단과 함께 중앙정부, 국내외 항공사 등을 방문 유치활동</li> </ul>

### □ 청주국제공항 저가항공사(LCC) 허브화

- 세종시 국제화기능 수행, 동북아 물류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저가항공사(LCC)를 유치하여 저가항공사 베이스 공항으로 육성

&lt;표 3-75&gt; 청주국제공항 저가항공사 허브화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저비용 항공사 (LCC)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항공사의 홈베이스 청주 이전 또는 제2베이스 구축 유도</li> <li>■ 신생항공사 지원으로 청주 홈베이스 유치</li> <li>■ 외국항공사의 운항 자유화 : 청주 홈베이스시 운수권과 호혜적 교환</li> <li>■ 항공사별 마케팅(공항공사 청주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추진)</li> </ul>
화물운송 지원책 강화와 민간항공전용 공항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첨단산업단지 등의 수·출입 화물 수송에 따른 지원대책 모색</li> <li>■ 장기적으로 군 공항을 이전하여 민간항공 전용공항으로 육성</li> </ul>

#### □ 특송업체 거점 기지화

- 균동 항공노선 개설을 통한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특송업체 유치를 통해 물류집산기능 역할 확대

&lt;표 3-76&gt; 특송업체 거점 기지화 대상업체

대상업체	지역별
「에어본」 등 20개 지역별 전문화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시장 : 온라인카고서비스(OCS)</li> <li>■ 중국시장 : 스카이킹, ACI 등</li> </ul>

#### □ 국제항공화물 수요확보방안 강구

- 천안, 아산, 오송, 오창 등 경박단소형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산업단지 및 중부권내륙화물기지 등과 연계 항공화물 수요창출
- 중부권 수출화물주선업체의 화물작업장 및 사무실의 공항내 또는 주변지역 마련

#### □ 청주국제공항 인지도 제고를 위한 협의회 활성화 및 홍보방안

- 청주국제공항활성화 추진협의회 및 실무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나 활동 및 추진실적 제고를 위한 적극적 지원활동 강화
- 충청권 3개 시·도 공조를 통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추진
- 청주국제공항 인지도 제고 및 공동홍보 방안

&lt;표 3-77&gt; 청주국제공항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청주국제공항CI제작	■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고품위 CI 제작
「아시아 문화존」선언	■ 각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상해-청주-후쿠오카-방콕을 잇는 가칭 「아시아 문화존(Asia Cultural Zone : ACZ Line)」 선언
기타	■ 국내외 주요 지역에 청주국제공항 홍보를 위한 대형 입간판 설치 ■ 취항 항공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 한국관광광사와 연계한 전세기 취항 공동 프로모션

#### 라. 에너지 교통복지구현을 위한 녹색교통체계 구축

##### BRT(Bus Rapid Transit)건설

- 청주권내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해 BRT의 도입을 검토하고 고속철도 및 충북선과의 연계된 노선구상과 세종시, 증평 및 대전과의 연계성 모색
- 충주시와 제천시의 경우에도 수도권 전철노선(수도권~충주·문경 연장)의 장기계획과 병행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신교통수단의 도입계획을 마련하며, 민자유치를 통한 역세권 개발과 연계교통망 구축

&lt;표 3-78&gt; BRT 건설 사업

사업명	연장(km)	운영시기
세종시~오송역	11.2km	2012년
오송역~청주공항	11.8km	2020년
오송역~청주시	5.2km	1단계
	3.7km	2단계
	7.5km	3단계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활성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건설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천시 청풍호 및 단양군 양방산 모노레일 건설을 통한 관광활성화 도모

&lt;표 3-79&gt; 신교통수단 건설 사업

사업명	연장(km)	사업비(억원)
청풍호 모노레일	12.0km	1,200
양방산 모노레일	2.5km	160

### □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건설

- 고속철도 오송역 등 연계환승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을 연결하여 Hub & Spokes의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건설
-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를 강화하고,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
- 1차적으로 KTX오송역은 국가복합환승센터로 예전성숙시 청주공항역을 추가 지정토록 함
- 청주시외·고속버스터미널과 충주역은 광역복합환승센터로 지정토록 함

&lt;표 3-80&gt; 복합환승센터 건설 권역 및 대상시설

권역	복합환승센터 건설 대상시설
청주권	KTX 오송역, 충북선 청주공항역, 청주시외·고속버스터미널
충주권	중부내륙선(여주~문경) 충주역

### □ 청풍명월 Bike-Network 구축

-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수단간 연계가 용이하도록 지원체계 확립
  - 버스, 전철 등에 자전거 동반승차를 위한 탑재장치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장거리 이용자와 자전거 이용 유도
-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망 구축
  - 도시내 자전거 급행도로 설치를 검토하고,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망 조성을 위하여 철도역 및 버스정류소 연계를 통한 자전거도로망 구축

&lt;표 3-81&gt; 청풍명월 Bike-Network 구축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청풍명월 Bike-Network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오송~청주~오창~증평(전국10대 자전거 거점도시)</li> <li>■ 2단계 : 증평~음성~충주</li> </ul>	2011~2014

## □ 보행중심의 생활 녹색교통 정비

-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적극 참여
  - 도시내 쇼핑몰 등의 일정구역을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하여 안전한 보행 공간의 네트워크화 추진
- 우측 보행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시설물 개선
  - 철도·공항·여객터미널 등 공공시설의 시설개선
  - 우측보행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강화

## 마.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이동권 확충

### □ 교통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교통체계 구축

- 세종시 건설 등 향후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교통정보체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정책적 지원 요구

<표 3-82> 종합적인 교통체계 구축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통행수요관리(TDM) 및 교통체계관리(TSM)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행수요관리(TDM) 및 교통체계관리(TSM) 체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흐름 방해 요인 제거, 교통수단의 원활한 교통흐름 제공</li> <li>·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국가경쟁력위원회) 확대시행</li> </ul> </li> </ul>
교통정보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상황에 대응하는 교통관리(신호제어 등), 교통상황 정보제공 및 경로안내, 대중교통 이용정보 제공, 상용차량 운영관리 등</li> </ul> </li> </ul>
종합교통체계 구축 전담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북도, 각 시군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공단 청주지사, 충북발전연 구원 등이 참여하는 교통투자 및 안전사업을 위한 전담반 구성</li> </ul>

### □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

-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및 교통수단 정비·확충
-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 노인 등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lt;표 3-83&gt; 이동권 강화를 위한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저상버스 및 특별 교통수단 확대를 통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까지 저상버스 104대, 특별교통수단 76대 도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현재 저상버스 67대, 특별교통수단 61대 도입되어 운영 중</li> </ul> </li> </ul>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약자의 현황, 이동실태 등을 조사</li> <li>- 저상버스 표준모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용 운전 장치 등 이동편의와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li> </ul> </li> </ul>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마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저상버스 도입) 등을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교통수단을 도입 등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립</li> </ul> </li> <li>■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립</li> </ul>

## □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 개발사업

&lt;표 3-84&gt; 추진시책 및 개발사업

구분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도로	고속도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주-충주-원주(강원영복권)」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li> <li>■ 「제천-평창(강원영동권)」 간 고속도로</li> <li>■ 「증평-영동」 간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li> <li>■ 「미원-단양」 간 제3충청내륙고속화도로</li> <li>■ 「증평-회인」 간 고속도로</li> <li>■ 「천안-오창~울진」 간 동서5축 고속도로</li> <li>■ 「공주-청원」 간 동서6축 고속도로</li> <li>■ 「세종시-청원-문경」 간 동서6축 지선고속도로</li> <li>■ 「안증-(음성-제천)-삼척」 간 고속도로</li> <li>■ 「호법-남이」 간 고속도로 확장</li> </ul>
	일반국도 정비 및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속도로 연결 국도 확충(19개 구간)</li> <li>■ 순환격자망 내륙관광순환도로 조성(7개 구간)</li> <li>■ 세종시 연결도로 신설(2개 구간)</li> <li>■ 국도대체 우회도로 확충(2개 구간)</li> </ul>
	지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시 연결도로(2개 구간)</li> <li>■ 순환격자망 정비(2개 구간)</li> <li>■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9개 구간)</li> <li>■ 지방도 확포장 사업(22개 구간)</li> <li>■ 용량부족구간 정비(10개 구간)</li> <li>■ 미개통구간 정비(7개 구간)</li> </ul>
철도	고속철도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송-원주(강원영복권 : 춘천-북한연결철도)</li> </ul> </li> <li>■ 경부고속철도 병목구간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부고속선 2복선 전철화(평택~오송)</li> <li>- 동탄~대전간 철도건설(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li> </ul> </li> </ul>

구분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중앙선 및 태백선 전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선(3개 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천-도담(복선전철화)</li> <li>- 원주-제천(복선전철화)</li> <li>- 도담-영천(복선전철화)</li> </ul> </li> <li>■ 태백선(2개 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천-쌍용(복선전철화)</li> <li>- 쌍용-백산(복선전철화)</li> </ul> </li> </ul>
	주요 국가시설 연결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시 연결철도(4개 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권 철도, 충북선 고속화, 중부내륙관광철도</li> <li>- 조치원-보령철도 조기 연결</li> </ul> </li> <li>■ 혁신도시 연결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부선(동탄-안성-혁신도시-중평-청주공항) 단선철도</li> </ul> </li> </ul>
	지역균형발전 촉진 철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부내륙선(천안-괴산-문경)</li> <li>■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li> <li>■ 동서화합 산악철도(영동-남원)</li> <li>■ 충북선과 중앙선 연결 철도</li> </ul>
	청주국제공항 연결철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주공항-천안간 수도권 전철연결</li> </ul>
	오송역 연계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선-청주버스터미널간 철도 연계</li> </ul>
항공	공항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창사, 활주로 등</li> </ul>
	국제노선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동남아 등 근동 항공노선 등</li> </ul>
	저가항공사 허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운임 항공사 유치, 저가 항공사 활성화</li> </ul>
	특송업체 거점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 특송업체 대상 유치</li> </ul>
녹색 교통 체계	BRT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시-오송단지</li> <li>■ 오송단지-청주(공항)</li> <li>■ 오송역~청주시</li> </ul>
	모노레일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풍호 모노레일, 양방산 모노레일</li> </ul>
	복합환승센터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속철도 오송역, 충북선 청주공항역, 청주시외·고속버스터미널, 충주역</li> </ul>
	청풍명월 Bike-Network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오송~청주~오창~중평</li> <li>■ 2단계 : 중평~음성~충주</li> </ul>
	보행중심의 생활 녹색교통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적극 참여</li> <li>■ 우측 보행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시설물 개선</li> </ul>
교통안전/ 교통약자 이동권	교통안전 종합대책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DM 및 TSM 구축</li> <li>■ 교통정보체계 구축</li> <li>■ 종합교통체계 종합 전담반 구성</li> </ul>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확대</li> <li>■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li> <li>■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정</li> </ul>

\* 도로, 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여건변화에 따른 수요 등을 검토하여 사업구간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향후 국가기간 교통망계획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함

## 2) 물류 인프라 조성을 통한 물류거점 육성

- 물류 인프라 조성을 통한 물류거점 육성
- 물류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고도화

### 가. 물류 인프라 조성을 통한 물류거점 육성

#### 동북아 물류전담 공항 육성

- 청주국제공항 화물터미널 확장 및 항공기정비센터(MRO)를 중심으로 한 항공정비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청주공항을 동북아의 물류전담공항으로 특화

#### 물류유통 거점단지 조성을 통한 K자형 물류벨트 구축

- 충북지역 2010년 12월 현재 충북지역에는 보은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2개의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총 101개의 산업단지가 운영 및 계획 중에 있음

<표 3-85> 충북지역 산업단지 운영 및 계획

구분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합계
조성완료	2	16	—	38	56
조 성 중	1	14	1	4	20
미 착 수	—	21	—	4	25
합 계	3	51	1	46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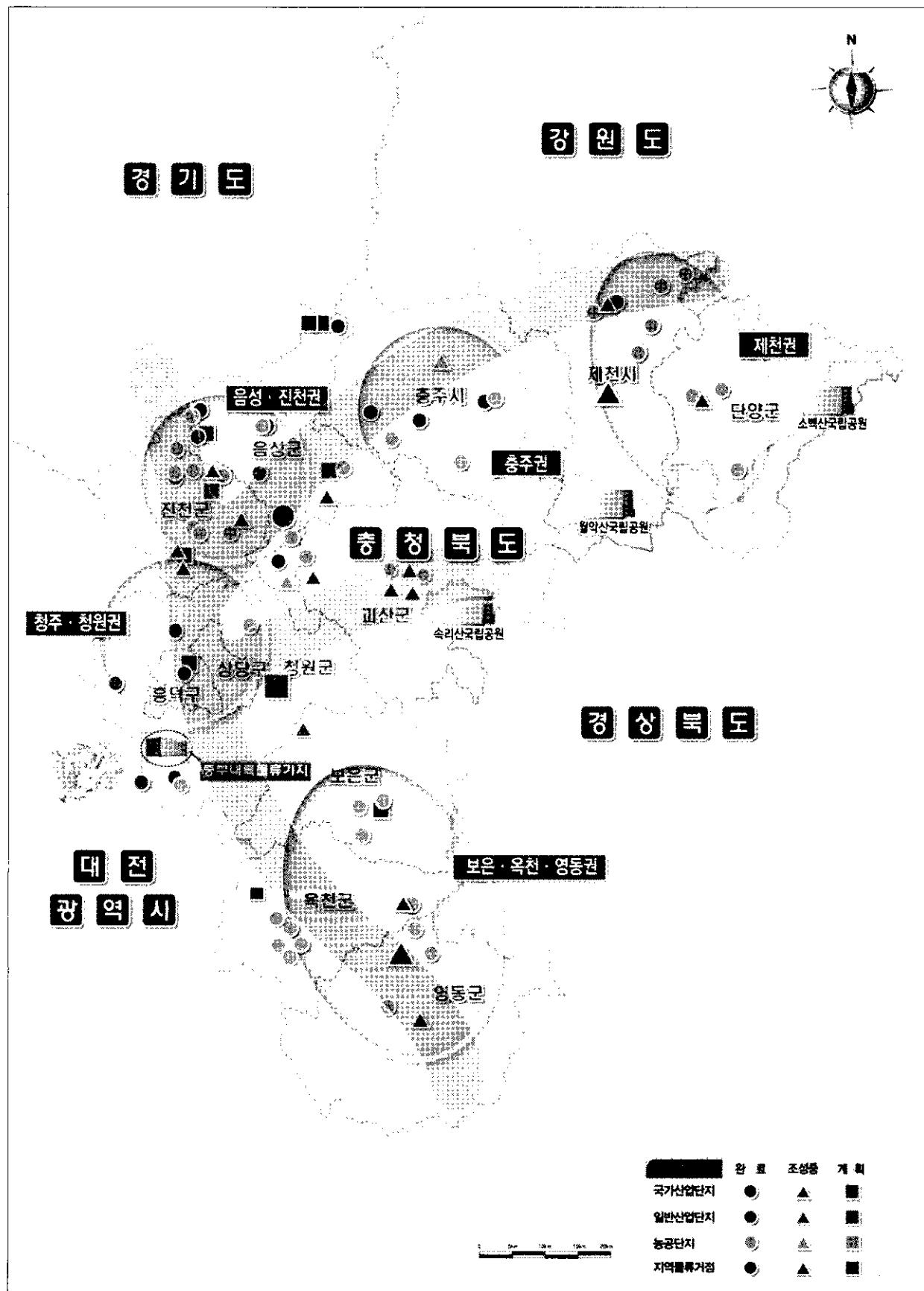
- 중부권 내륙화물기지를 허브축으로 권역별 특성에 따른 중·소규모의 권역별 물류거점을 조성하여 K자형 물류벨트 구축
  - 청주권, 제천권, 음성권, 남부(옥천, 영동)권 4개의 권역별 물류단지와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간에 Hub-and-Spoke 개념의 기능정립을 통한 K자형 물류벨트 구축

&lt;표 3-86&gt; 중부권 권역별 K자형 물류벨트 구축 사업

구분	면적(천 m <sup>2</sup> )	사업기간	조성지역	
물류 단지	청주권 물류단지	-	2020	청원군
	제천 물류단지	162	2003~2011	제천시
	음성 유통단지	284	1998~2007	음성군
	영동 황간 물류단지	264	2009~2012	영동군
	연풍 물류유통 특화단지	330	2015~2019	괴산군
	옥천 명품 아울렛 물류단지	-	2020	옥천군
조성 중 산업 단지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51	2002~2011	청주시
	충주DH산업단지	78	2009~2011	충주시
	제천제2일반산업단지	1,299	2006~2011	제천시
	양화농공단지	148	2009~2011	제천시
	오창제2산업단지	1,389	2007~2012	청원군
	옥산산업단지	1,271	2008~2011	청원군
	신척산업단지	1,464	2007~2011	진천군
	태홍일반산업단지	36	2008~2011	진천군
	금성일반산업단지	116	2008~2012	진천군
	초평은암일반산업단지	123	2009~2011	진천군
	원남산업단지	1,084	2007~2011	음성군
	청산산업단지	351	2007~2011	옥천군
	영동산업단지	998	2007~2013	영동군
	주곡산업단지	149	2009~2011	영동군
	보은국가산업단지	4,178	1987~2011	보은군
	단양신소재산업단지	352	2004~2010	단양군
	과산건축자재특화산업단지	855	2007~2011	괴산군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142	2007~2010	옥천군

구분	면적(천 m <sup>2</sup> )	사업기간	조성지역
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3,263	2007~2015
	충주제4산업단지	156	2008~2012
	충주녹색패션산업단지	294	2009~2011
	만정일반산업단지	50	2009~2011
	충주테크원시티산업단지	251	2009~2011
	양호농공단지	148	2009~2011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3,332	2007~2015
	문백태락일반산업단지	42	2009~2011
	산수일반산업단지	1,310	2008~2012
	증평2일반산업단지	734	2009~2011
	감곡일반산업단지	1,045	2001~2010
	용산산업단지	936	2007~2012
	중부산업단지	148	2007~2012
	감곡상우산업단지	75	2008~2010
	육령일반산업단지	64	2009~2011
	음성임대산업단지	132	2009~2012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	691	2007~2012
	보은첨단산업단지	1,484	2007~2013
	괴산첨단산업단지	936	2006~2010
	감물가구산업단지	439	2008~2011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	324	2008~2013
	광역친환경농업단지	16,000	2010~2012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	630	2010~2015
	괴산청정 푸드밸리산업단지	410	2010~2013
	옥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1,300	2011~2013
	옥천군		

\* 물류·유통적 측면은 국가계획의 성격이 시군 및 권역단위의 시설계획까지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도차원에서 조성이 필요한 권역, 시군단위의 물류/유통시설계획을 반영한 사항이며, 향후 충청북도 물류산업종합발전계획 수립시 국토해양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반영, 계획적 측면에서 공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그림 3-19> 충청북도 물류/산업단지 계획

## 나. 물류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고도화

### □ 물류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고도화

-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한 오송·오창단지,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청주국제공항 등 주요 물류거점간 네트워크 기반 구축
- 지역종합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를 활용한 인터넷서비스 기반 구축

<표 3-87> 주요 물류거점간 네트워크 기반 구축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u-충북물류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충북물류지원단 구성</li> <li>· 역내 유비쿼터스 환경하의 물류산업 활성화</li> </ul>
소프트 물류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내 물류 표준화 및 정보화 지원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li> <li>· 오송, 오창 단지 지능형 u-Logistics 정보 솔루션 보급 지원</li> <li>· 물류정보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서비스 무상 제공을 통한 업체의 참여 유도</li> </ul>
충북물류인프라 EPC 네트워크 구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주요 물류거점 EPC 네트워크 건설</li> <li>· 첨단 RFID 서비스 시스템 도입</li> </ul>

### □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 개발사업

<표 3-88> 추진시책 및 개발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물류 인프라 조성을 통한 물류거점 육성	청주공항의 동북아 물류접담공항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주국제공항 화물터미널 확장</li> <li>· 항공정비복합산업단지 조성</li> </ul>
	K자형 물류벨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물류거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주권, 제천권, 음성권, 남부권</li> </ul> </li> <li>· 주요 산업단지 조성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산업단지 : 2개소</li> <li>- 일반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 : 53개소</li> <li>- 농공단지 : 46개소</li> </ul> </li> </ul>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고도화	u-충북물류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충북물류지원단 구성</li> <li>· 역내 유비쿼터스 환경하의 물류산업 활성화</li> </ul>
	소프트 물류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내 물류 표준화 및 정보화 지원</li> <li>· 오송, 오창 단지 지능형 u-Logistics 정보 솔루션 보급 지원</li> <li>· 물류정보 ASP 서비스 무상 제공</li> </ul>
	충북물류인프라 EPC 네트워크 구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주요 물류거점 EPC 네트워크 건설</li> <li>· 첨단 RFID 서비스 시스템 도입</li> </ul>

## 제2절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U-거버넌스 구축

### 1.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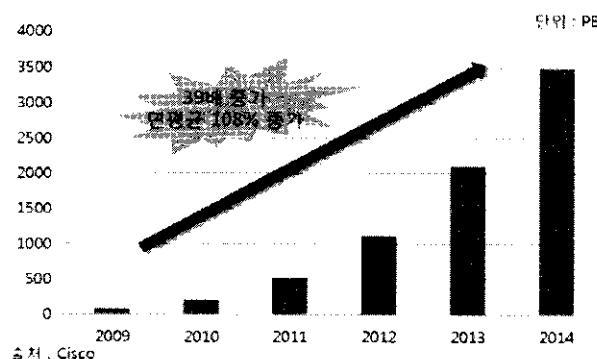
- 유무선 융합형의 이른바 '융합형 서비스' 보편화
  - 기존의 정보통신서비스는 유선(wireline)과 무선(wireless)으로 구분되었으나, 최근들어 전화, 컴퓨터(유선), 핸드폰, 노트북(무선) 등이 융합화되는 경향을 나타냄
  - 이에 따라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기존의 음성 및 문자서비스에서 확대되어 모바일 커머스, 위치기반 서비스, 모바일 콘텐츠, 스마트 러닝·스마트 호스피탈·스마트 유통을 비롯한 타산업 생산성 향상 솔루션 서비스, 뉴 미디어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 영역 탄생 및 성장
- 무선서비스의 진화 : 3G에서 4G로 가는 과도기(현재는 3.5G)
  - 3G는 과거(1세대-아날로그 통신, 2세대-디지털 통신)에 이어 동영상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현행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임이며, 최근 널리 보급되고 있는 3.5G는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즉, 무선인터넷과 영상통화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도록 진화한 서비스로서 Wi-Fi망의 AP(Access Point)를 이용한 통신서비스 활용이 가능함
- 한편, 4G는 기존 3G에 비해 전송속도가 5-7배가량 빠른 서비스 제공 가능함. 국내 통신사들도 2011년 하반기부터 4G 서비스 제공 시작
  - Wi-Fi(와이파이) : 홈 네트워킹, 휴대전화, 비디오 게임 등에 쓰이는 유명한 무선 기술의 상표 이름이며, 무선랜으로 지칭함. 무선접속장치(AP : Attach Point)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 이내에서 PDA나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음
- 모바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 방안 강구 필요
  - 모바일산업은 무선망시스템, 모바일 기기 및 SW, 서비스 등으로 구성
  - 과거 정보통신 강국으로 평가받던 우리나라 역시, 4G의 모바일 환경에서 강국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실제로 핸드폰에서 경쟁우위를 가졌던 우리나라 전자업체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모바일 SW(일명 앱-App-)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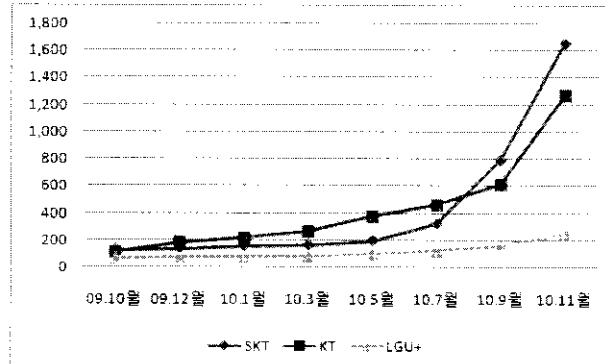
## □ 문제점

### ○ 데이터량 폭증

- 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해 기존 컴퓨터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기존 서비스망(3.5G)의 수용용량이 포화상태에 직면함에 따라 4G로의 이전 요구



<그림 3-20>  
세계 모바일데이터트래픽 증가(단위:PB)



<그림 3-21>  
국내 모바일데이터트래픽 증가(단위:TB)

- 이에 따라 4G 환경에 부응하는 초고속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
- 새로운 정보통신환경에 부응하는 경쟁력 확보방안 모색 시급
  - 4G 표준인 LTE-Adv.의 우리나라(삼성, LG, ETRI) 표준 점유율은 25% 미만으로 평가
- 정보통신 서비스와 보안
  - 정보통신서비스의 고도화(처리용량의 대용량화와 고속화)와 유무선 융합형 서비스가 등장 함에 따라 이들 분야에 대한 해커들의 침입 역시 급속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관련 업체들의 피해증가와 보완솔루션 업계의 시장 중대
  - 향후 보안 솔루션 관련 시장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이들 분야는 대부분 미국계 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국내 업체(안철수연구소, 하우리 등)들의 활동도 매우 활발함

## 2. 여건변화와 전망

### □ 차세대 정보통신망 구축 가속화

- 유비쿼터스 정보화 환경의 대두에 따른 관련 인프라 표준화 및 확보 노력 치열
  - 유비쿼터스에 대한 논쟁은 2006년을 정점으로 시장형성 본격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선진국에서는 ubiquitous 인프라를 토대로 u-City, u-Health, u-Life 등 자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의 활용과 함께 이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이익 창출을 위하여 시장선점 및 관련 기술 표준화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제5세대 차세대 통신망(NGBcN : Next Generatio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관련 표준화 급속 진행 및 시장형성 본격화 단계
  - 선진국을 중심으로 통신망의 확대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새로운 차세대 통신망 표준 확보 및 선점을 위한 노력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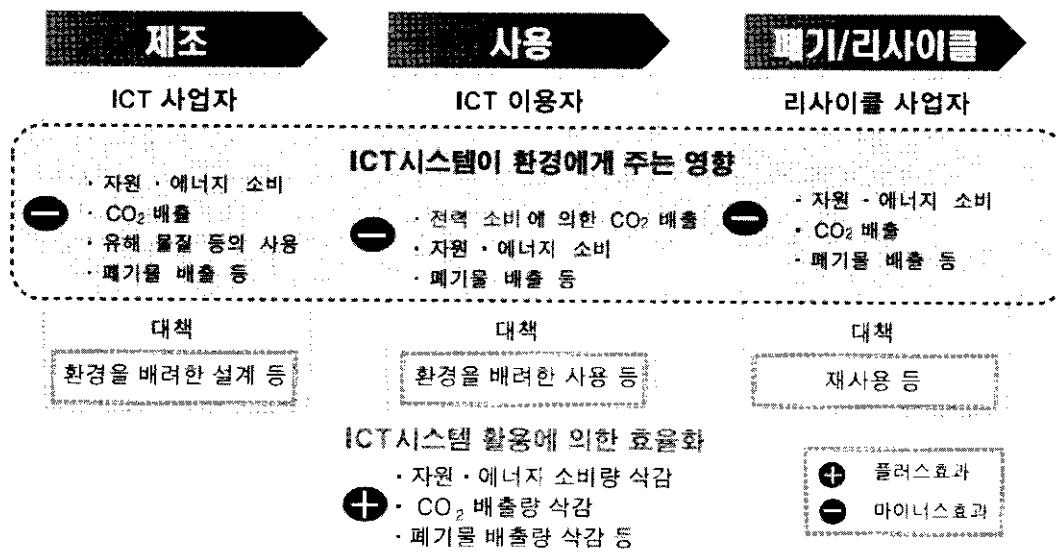
### □ 유비쿼터스 환경 도래에 따른 기반 인프라 구축 경쟁 치열

- 유비쿼터스 활용을 위한 각종 표준화 경쟁 가속
  - RFID 표준 : 주파수 표준, RFID Tag, Antenna 표준 등
- USN의 서비스 구조, 필수 기술요소 등 관련 표준화 및 선점 경쟁 지속
  -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 환경, 물리계에서 센싱된 정보 또는 특정 이벤트가 인간 생활에 활용되도록 센서 노드(sensor node)들 간의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유무선 통신 기술 기반 네트워크
  - 사물 및 주변 환경정보 감지, 실시간 관리 등이 가능하여 자연재해 예방 및 환경감시, 폭발 및 화재감시, 교통량 관리, 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음
- 유비쿼터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산업 활성화 단계
  - 관련 기술의 안정화 및 보편화, 가격인하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를 산업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됨
  - 특히, 미국과 같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자국시장이 비교적 풍부한 미국은 완전경쟁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내수시장이 협소하거나 선진국 대비 기술력이 비교적 높지 않다고 생각되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에서는 전면 시장개방에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

- \* 우리나라의 경우 완제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비교적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자료기술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실정

## □ Green ICT 선점 위한 글로벌 경쟁 치열

- 녹색성장의 관심 증대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의 녹색화 및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치열
- 그런 ICT : 환경을 의미하는 녹색(Green)과 정보통신기술(ICT)의 합성어로 “ICT 부문 녹색화(Green of ICT)”, “ICT 융합 경제·사회 저탄소화(Green by ICT)”를 포괄하는 의미임. 실효성 있는 ICT 기반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기술개발, 생산, 활용, 기반 구축 등 그런 ICT 전 범위를 연계한 표준화 전략 수립 필요



<그림 3-22> 그린 ICT 개념도

## □ 충청지역 최근 여건

- 5+2 광역권계획(충청권) : 충청권의 특화산업은 뉴 IT와 의약바이오로 이 가운데 뉴 IT 분야의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이 포함됨
  - IT 클러스터 조성 : 천안(Display), 대덕(자료기술), 세종(인허가), 오송(u-Health), 오창(Mobile Device) 등
  - u-Health 시범사업 추진 : 지식경제부와 충북 등 4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시범사업 실시

<표 3-89> u-Health 시범사업 내용

구성	지역	대상자/대상질환	참여병원
SKT 컨소시엄	경기(고양, 성남) 전남(여수) 충북	총 대상자수: 8천명 대상질환: 당뇨/고혈압, 암생존자, 만성폐질환 의원/요양원: 1차의원 100여처/요양원 30처	서울대, 서울아산, 강북삼성, 국립암센터, 삼성서울, 용인세브란 스 및 개원의 100개소
LG전자 컨소시엄	대구광역시	총 대상자수: 4천명 대상질환: 고혈압, 당뇨병, 대사증후군 의원: 1차의원 38개소	경북대, 영남대, 신촌· 장남세브란스, 서울대 및 개원의 38개소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완비</li> <li>■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산업(반도체) 클러스터 기구축</li> <li>■ 정보통신 부분에 대한 지역의 관심</li> <li>■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한 빠른 적응력</li> <li>■ 풍부한 이용자 환경</li> <li>■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 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적인 역내 배출 교육인프라의 역외 유출(전국 최상위 순위)</li> <li>■ 정보통신분야(특히, SW분야) 대기업 부재</li> <li>■ 충북 신성장동력 육성에 필요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첨단 고급인력의 유치·확보 미흡</li> </ul>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신규산단 및 신도시 중심의 다양한 테스트 배드 구축 가능</li> <li>■ 세종시 건설을 계기로 충북이 배후도시로서의 역할 제고 전망</li> <li>■ 오송 KTX 분기역 개통을 계기로 신규 성장산업 육성 기회 포착</li> <li>■ 중부혁신도시 및 충주기업도시 추진 기반 시너지 효과 창출 구현</li> <li>■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의약바이오, 뉴IT)와 연계하여 정보통신 산업 육성 기회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산업의 고부가가치분야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과점현상 지속으로 역내 기업의 시장진입 난이</li> <li>■ 글로벌 대형업체의 국내시장 장악으로 역내 기업 진입여지가 상대적으로 작음</li> <li>■ 국내지자체간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경쟁 치열</li> <li>■ 산업특성상 요구되는 최고급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유치 어려움</li> </ul>

### 3. 세부 추진과제

#### □ u-거버넌스 구현 도시개발

- 안정적 구축에서 운영까지 u-거버넌스 구현 도시로의 개발
  -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융·복합산업이 도시개발의 주요 요소가 되면서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을 효율적·유기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력의 u-거버넌스 모델을 구현함

#### □ 기구축 신도시에 유비쿼터스 기반 인프라 구현 추진

- 기업도시, 혁신도시, 신산업단지(오송, 오창, 태생국가산업단지 등) 등 신규도시에 타 지역에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보화 특화 인프라 구현으로 도시 경쟁력 제고

#### □ 선진화된 물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 시킴

-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기반으로 오송, 오창 산업단지, 중부권 내륙화물기지(ICD), 청주국제공항, 오송 KTX분기역 등 주요 물류거점간 물류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강구함
  - 내륙화물기지(Inland Container Depot) : 우리나라의 교통체증 현상을 완화시키고 녹색 물류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70%가 만들어지는 수도권과 우리나라 수출의 70%를 담당하는 부산권에 각각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만들고 기존의 트럭 대신 심야의 철도를 이용하여 물류를 처리하려는 구상임. 수도권(동수원)과 부산권(양산)에 이어 중부권에 공컨테이너의 집하 및 재분류 등의 목적으로 2010년도 서비스를 개시함

#### □ 맞춤형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공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청소년복지서비스 및 아동보호서비스를 위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시킴

#### □ 재난방제시스템 구현

-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지진, 해일,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과 화재 등의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재난예방과 복구체계를 위한

국가 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재난·재해관리 계획을 구현함

### □ SMART-Gov<sup>3)</sup>

#### ○ 목표

- 도민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다양한 상담 서비스 제공
-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체계 마련

#### ○ 추진전략

- 언제, 어디서나 업무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오피스 기반의 통합행정서비스 제공

#### ○ 추진과제

- ① 스마트-열린행정 시스템 구축
- ② 도민소통 네트워크센터 구축
- ③ 그린 데이터 센터(GDC : Green Data Center) 구축
- ④ 스마트-Safe(정보보호)체계 강화
- ⑤ IT융복합담당관(CICO : Chief IT Convergence Officer) 제도 신설
- ⑥ 공간정보기반 행정정보종합서비스 제공

### □ SMART-Safety

#### ○ 목표

- 어린이, 장애인의 안전과 편리를 적극적으로 보장
- 도심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통한 사전 사고 예방

#### ○ 추진전략

- 어린이, 장애인의 안전과 편리를 보장하는 안전서비스 제공

#### ○ 추진과제

- ① 어린이 보호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CCTV 구축
- ②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기술 모바일 서비스 구현
- ③ USN(Ubiquitous Sensor Network)기반 도심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 SMART-Life

3) 충청북도, 『충청북도 정보화 기본계획』, 2010.

○ 목표

- 도민생활의 편의 도모를 위한 공감서비스 제공
- 실버세대, 농촌주민, 도심 저소득층 등을 위한 생활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전략

- 저소득층, 노인층,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을 위한 생활서비스 제공

○ 추진과제

- ①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충북(M.cb21) 구축
- ② u-Silver 커뮤니티 서비스 구축
- ③ u-도서관 서비스 구축
- ④ TV 방송 디지털 전환 대비 수신환경 개선 지원
- ⑤ 농촌지역에 차세대 광대역 가입자망(NG BcN : Next Generatio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구축
- ⑥ SMART 환경 조성을 위한 무선 인터넷 존 확대 구축
- ⑦ 생활 중심의 공간서비스(3차원 GIS) 제공

## □ SMART-Biz

○ 목표

- SW 산업 육성 및 IT 컨버젼스(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 중소기업, 전통시장, 관광상품 서비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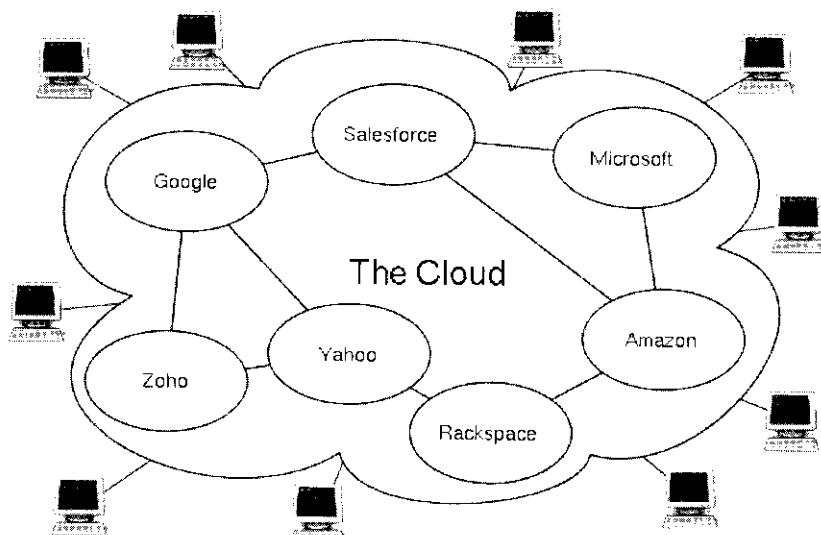
○ 추진전략

- 신도시(오송, 오창, 중부신도시, 충주기업도시 등)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기업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서비스의 주기적 제공

○ 추진과제

- ① SW 및 콘텐츠 산업 육성
- ② BIGH-T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u-Health 사업 고도화
  - \* 기 추진중인 u-Health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
- ③ 산업단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체계 구축

\*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인터넷 기반(cloud)의 컴퓨팅(computing) 기술을 의미. 인터넷 상의 유저리티 데이터 서버에 프로그램을 두고 상시적으로 컴퓨터나 휴대폰 등에 불러와서 사용하는 웹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up>4)</sup>



<그림 3-23> 클라우딩 컴퓨팅의 개념도

- ④ u-전통시장 상거래 활성화 지원
- ⑤ u-Tourpia(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 \* 기존 충청북도 문화관광사이트(cbtour.net)과 연계 추진
- ⑥ 국제통상 서비스 제공 및 경제원동력의 공간정보서비스와 연동 추진
  - \* 기존 충청북도 국제통상 사이트(ebiznjoy.com)과 연계 추진
  - \* 충청북도에서 추진중인 3차원 GIS 서비스와 연계 추진

## □ SMART-Eco

- 목표
  - 지속가능한 녹색 충청북도 건설
  - 충북의 청정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자원하는 서비스 구축
- 추진전략
  - 에너지 순환, 환경보전, 녹색관광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충청북도 건설을 위한 녹색서비스 제공
- 추진과제
  - ①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 ② 녹색IT기반 탄소배출량 관리서비스
  - ③ u-Clean 서비스 구축

4) 위키디피아, <http://ko.wikipedia.org/wiki/>